

성도의 빛 10

1979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9차 연차 대회 보고

1979년 3월 31일과 4월 1일 유타주 솔트레
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
에서 개최된 연차 대회 말씀 및 순서

오 주여, 하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36년에 이렇게 기도했다. “당신의 모든 교회 회원과 저희 가족과 적접적인 연고자와 병든 자와 고통을 당하는 자와 세상에서 온유한 자를 기억하시고 당신께서 손대지 아니하시고 세우신 왕국이 태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신의 교회가 흑암의 광야로부터 나와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를 세운 군대 같은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교성 109 : 72-73)

스펜서 더블류 캠볼 대판장은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위대한 예언자적 전망과 상징적인 묘사의 정신으로, 1979년 4월 연차 대회에 참석한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평가와 함께 고무적

인 말씀을 하셨다. “나는 교회가 이제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하여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기 위하여 최종 준비 중에 있다는 인상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길을닦아 나가기 위한 결정이 내려진 것도 있으며,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백성으로서 앞으로 진군해 나가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결정은 교회의 개개 회원들이 내려야 합니다.

이 대회에서의 발표 사항은 캠볼 대판장의 말씀에 반영되었다. 평의회에 의한 교회 행정이 복지 모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는데, 그 모임에서는 지역, 복합 지역 및 교회 지역 평의회가 교회의 필요 사항에 더욱 충실히 응하기 위해 승인되었음이 발표되었다.

킴볼 대관장이 대회의 모든 모임을 감리했으며, 대관장단 제1보좌인, 엔 엘 돈태너 부대관장, 제2보좌인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이 모임을 사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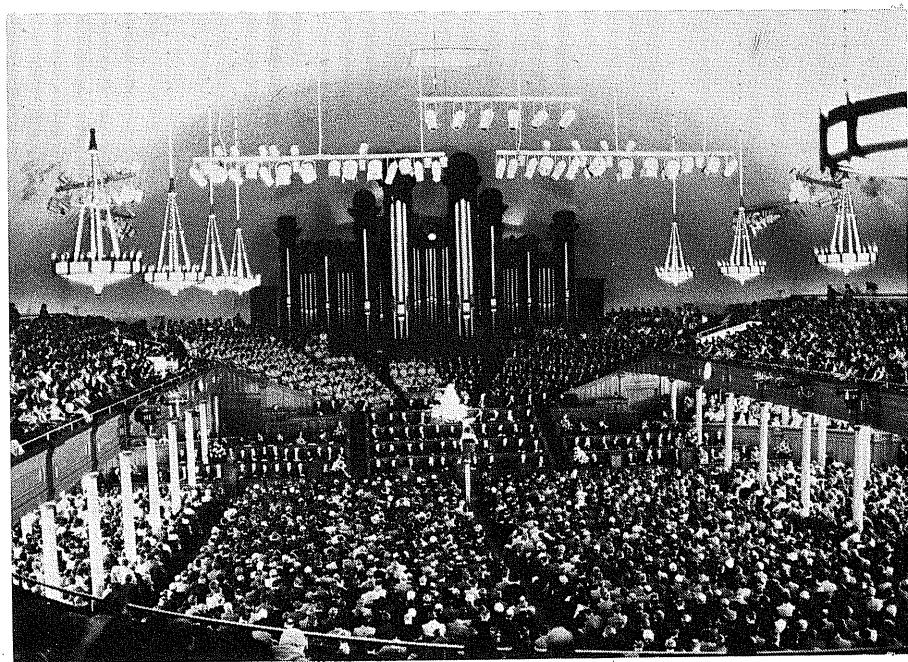
모임은 템플 스퀘어의 태비내클에서 토요일인 3월 31일과, 일요일 4월 1일에 열렸으며, 25명의 총관리 역원이 말씀을 했다.

대회의 일부 또는 전체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중계되었다. 미국과 카나다의 180개 텔레비전 방송국과 7개의 텔레비전 위성 중계와 800개의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망 및 2개의 케이블 텔레비전 비데오 테이프로 방송되었다. 라디오 방송은 74개 라틴 아메리카 방송국, 65개 미

국 방송국, 44개 호주 방송국, 30개 뉴질랜드 방송국을 통하여 중계되었으며, 폐쇄 회로 방송을 통해서는 영어로 미국과 유럽내의 567개 예배당과, 불어와 독어 및 벤마크어로 유럽내의 81개 예배당에, 스페인어로는 미국내의 5개 예배당에, 그리고 7개의 에프 엠 방송망을 통해 방송되었다. 신권회 모임은 미국과 카나다, 푸에르토 리코,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및 한국 등지의 1599개 폐쇄 회로 지역에 방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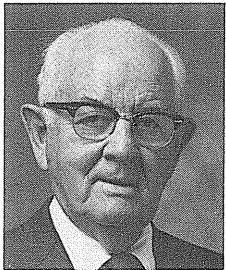
2일간의 연차 대회외에도, 지역 대표 세미나가 3월 30일 금요일에 교회 본부 건물에서 있었다.

—편집자— *



악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자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는 파괴적인 세력에 우리는 일상 생활과 신앙을 떼어 놓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님이 지명하신 세계 대회를 개최하는 이 자리에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과 세계 만방의 수많은 우리의 벗과 구도자들에게 축복을 드리며 정중히 맞이합니다. 나는 또한 세계 어느 곳에 서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주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드리도록 청합니다.

우리는 6개월 전에 솔트레이크시티의 이곳 템플 스퀘어에서 연차 대회 모임을 가진 이래, 주님의 왕국이 크게 성장하고 확장한 것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남미에서 브라질

의 상파울루에 아름답고 새로운 신전의 문을 열었으며,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유태주의로간 신전을 재현납하여 그곳에서 신전 의식이 수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섯 곳에서 신전이 속속 건축되고 있으며, 더 많은 신전의 건축이 현재 계획되고 있어, 주님의 사업이 굳굳하게 뻗어 나가는 곳에서는 땅의 이끌에서 저끌까지 거룩한 신전이 곳곳에 세워지리라는 말일의 예언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 약 28,00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유태주와 세계 각지의 교회에는 감독이 그들을 선교사로 부른다면 언제라도 부름에 응할 합당하고도 유능한 형제 자매가 열마든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선교사들은 대개 청년 남녀이며, 그 수효는 늘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 지역에서 2년 동안 지내며,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뜻깊고 혼신적인 봉사를 합니다. 그 수효는 상당한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됩니다. 우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며, 세상에서는 더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세계의 거의 전 지역을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확보했으며, 머지 않아서 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 속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날이 이르게 되리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급히 준비해야 하는 사태로 우리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와드와 지부로 구성되는 물론 교회의 지역적인 행정 구역 단위인 스웨이크가 매해 약 100여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시온이 고루 발전하고 성장해 나감을 보여 주는 이 통계 수치에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회원 수는 400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여러 곳에 신전과 예배 장소가 세워지며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천 명씩 증가함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감독의 창고와 가난한 자를 구조하기 위한 생산 단위를 갖춘 광범위한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더욱 확장되어 나감을 보게 되어 즐겁습니다. 구제주는 교회의 초기부터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을 명하시고 책임지워 주셨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까지도 지시해 주시어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와 방법을 제시해 주어 개인적인 독립을 강조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이 땅은 모든 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이같이 성장해 나가는 현상에 매우 흡족한 마음입니다.

모든 신권 정원회는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특히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과 자매들로 이루어지는 보조 조직도 역시 그려합니다. 우리가 기뻐해 마지 않는 이러한 성장의 증거가 역력하지만, 한편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주장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는 악에 우리 말일성도가 상처를 입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크게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가정과 가족을 파괴시키려드는 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거주하는 집과 건물, 광, 의양간, 담 및 사업 장소의 외관에 관심을 가져 우리가 사는 마을을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보기좋게 꾸미기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회원들이 앞 마당에 나무를 심고 화초를 기르며, 야채를 재배하여 집안도 아름답게 꾸미고, 식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권고하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 권고에 여러분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호응해 주셨으며, 그러한 문제에서 여러분이 협력해 주신 것을 알려 주는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지하지 마시고, 계속해 나가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까지 해 온바, 가정의 외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계속해 나가되, 가정의 내부에 더욱 주의를 집중하기를 또한 촉구합니다. 이것은 집안의 가구를 청결히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가정이 전체적인 면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갖추도록 해야합니다.

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총당시켜 왔음은 충분히 입증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가족을 강화하고, 자녀를 축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것이며, 올해나 앞으로 다가올 해에도 거듭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합당한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유익한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관계하는 것도 크게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시 재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합당하게 가르치고, 부모가 이끌어주고 지도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자녀들의 병을 고쳐주는 만병 통치약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영적 및 감정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해 줍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겨서는 안됩니다.

요즈음에는 이 책임을 가정으로부터 학교나 교회 및 여러 종류의 아동 보호 기관이나 학원 등에 이양시키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외부의 영향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합당하게 대신할 수는 결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지도해 주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늘

함께 하며, 지켜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며,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은 그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부모의 책임은 바로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밖의 모든 기관은 이차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며, 이혼, 별거 가족, 야만적 행위나 욕설과 같은 물질적 밀어닥치는 악에 대하여 가족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가족의 순결을 파괴시킬 부도덕과 춘화 및 성적인 문란 행위에 대하여 끊임없이 처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악은 극히 현실적이며 위협적인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신문이나 잡지의 제목만 읽어도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파괴적인 영향이 펼쳐있음을 알게 되어 깜짝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마치 경종을 울리는 사람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내가 경종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의 협재들과 기타 종관리 역원되시는 분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러한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정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창문을 닫는다면, 간단히 퇴치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안전히 한다해도 우리가 말하는 악에 대하여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이러한 악의 세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학교나 놀이터, 극장, 사무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집안으로 끌어 들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사회 생활에서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찾아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러운 것이나 병균따위는 깨끗이 하여 살균 소독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악이 출현하는가에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구석 구석에서 그러한 것을 찾아 내야 하며, 그러한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악의 불길이 타오르기 전에 불씨를 완전히 꺼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악의 위협을 받지 않고, 가정과 가정의 주위에 만연해 있는 악한 세력에 물들지 않고 굳게 끝칠 수 있게 하려면, 이 가족을 계획하신 근원이 되시며 구성해 주신 창조주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길은 하나 뿐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섬원하고 영감이 가득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 합당하고 명예로운 결혼은 하나님이 성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과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오늘날의 그릇된 문화는 하나님이 성임하신 계획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입니다.

영감적인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 1: 39)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 하시리라.” (히 13: 4)

이와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골 9:9)하신 우리 주님은 예나 이제나

다름 없이 그가 성임하신 계획에 따라 자녀를 낳는 성인들에게 이러한 필수 조건을 반복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주어진 경전에는 태초로부터 적용되는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어 자주 인용되며,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암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교성 68 : 25)

나는 여덟 살이라는 나이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러한 법칙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들이 청년 또는 성인에 가깝게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자녀들은 여덟 살 또는 그 이전에 침례와 암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계명은 시온의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회망이나 제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온의 스테이크는 지상의 각 처에 있는 주민들에게 널리 퍼져고 있으므로, 그 책임은 더욱 커진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시온의 부모들에게 계속 충고해 주십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교성 68:28) 우리는 이 계명이 단지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교리와 전제 생활 양식을 지칭하는 것임을 인식 해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라는 계명은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는 계명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 1:28) 는 말씀은 예멘 동산에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기심은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파괴시

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을 파괴, 분열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혼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살인 다음가는 중죄가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전반적인 면에서 잔음, 간통, 동성 연애, 유산, 알콜 중독, 부정직, 범죄 등과 같은 끔찍한 죄악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점점 짐식해 들어오는 사실에 분명히 실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과 가정을 온통 파괴시키려 듭니다.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는 결혼 생활의 책임에 관하여 몇마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생의 반려자를 택하는 시기가 되면, 거룩한 신전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교육을 마치며, 명예롭고 보람있는 직업을 택하여, 가족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결혼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나의 의견이나 현대 교회 지도자의 의견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타 모든 의견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퇴폐적인 곳에서는 결혼 생활에 반기를 들고 있으며 결혼 생활은 하더라도 자녀는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히 “왜 결혼하는가?”라는 질문이 야기되며, “반 결혼 혁명”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며, 책임을 지워 준다는 논의가 여기 저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구속과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홀륭한 인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이처럼 전전치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성임하신 것입니다. 그

것은 필요하고도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참된 상황이며, 많은 사람이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 해서 결혼 생활의 정당성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어, 해의 영광에서 누릴 행복을 파괴시키려는 여러 요인에 대하여 우리 가족 단위를 강화시키려 할 때는 주께서는 우리들만의 힘으로 이 일을 수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역경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알려진 대화의 통로를 마련해 주시어,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 주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할 수 있게 해주셨으므로, 우리는 기도의 절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생의 밑바닥에 처한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의 희오리 속에서 도 오히려 안정과 평온을 가져다 주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한 폭풍우나 젊은 안개속에서 빛나는 신전이 더욱 아름답게 돌보이는 것과 같이, 인간이 내적인 폭풍우와 슬픔과 고통에 시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영화로운 것이 됩니다.”

(대회 보고, 1965년 4월 16페이지)

현대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접하고 대화의 통로를 열어 해줄 수 있는 기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니다. 누구도 생활이 너무 바빠 기도는 생각해 볼 여지도 없다고 구실을 대서는 안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얻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구세주의 거룩하고 유익한 가르침을 이해하여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보다도 더 커진 적은 세계 역사상 일찌기 없었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원리가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받는다는 진리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계시된 예수의 가르침은 일정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가르침이 침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의로움과 사악함이 교차하여 야기되는 문명의 흥망 성쇠는 구세주의 거룩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해 줍니다. 우리는 무신앙과 무신론이 난무하는 세상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 전체가 힘을 합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이성론자를 대해야 하는가 하면,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는 권력과 세속적인 부를 탐욕하는 무리와 과감히 맞서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회원인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 영의 자녀인 인간의 품위와 권리 위해 오늘날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과 신앙을 떼어 놓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곳과 우리 가정에 의로움이 가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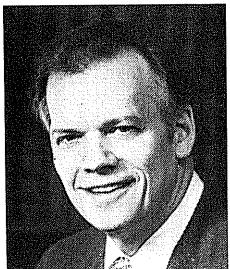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모든 충성과 봉사를 다비치는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훌륭한 기독교인이란 어디 살고 있는지 자신이 속한 나라의 훌륭한 국민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 정중하고 온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경배하며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증대된 힘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축복하시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아버지가 계시니”

풀 에이치 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발 앞에 인간사에 대한 문제를 내 보인다면 그 문제를 이겨내도록 도와 주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수백만 회원은 킵볼 대관장을 주님의 예언자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찬송가, 59장)라는 중요한 찬송가를 잘 부릅니다. 예언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킵볼 대관장도 진실로 예언자이심을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사람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살펴 보기 좋습니다. 매우 재미도 있고 환상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제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 줍니다. 웃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찡그리고, 화내며, 고요하거나, 불행하며, 만족한

얼굴이 있습니다. 둥근 얼굴, 베모난 얼굴, 타원형 얼굴, 보조개가 진 얼굴, 또는 아름답거나 평범한 얼굴도 있습니다. 또 노인과 소년의 얼굴도 있습니다.

생일상을 받은 소년의 얼굴이나, 이제 막 약혼식을 올린 한쌍의 약혼자들이나 첫 아기를 갖게 된 부모와 아들이나 딸의 출입식에 참석하여 호숫해하는 엄마와 아빠, 5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는 부부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흥미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풍선껌을 자기 머리만큼이나 분 여섯 살짜리 개구장이의 얼굴이며, 같은 날 저녁에 두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한 정신없는 소녀, 강낭콩을 접질께 요리해 버린 새 신부, 어느 한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집안에 있는 이 아이, 저 아이의 이름을 모조리 불러대는 부모의 얼굴처럼 재미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학교로 전학해 온 여학생과 첫 아이를 잃은 부부, 먼 길을 떠난 자녀를 그리워하는 부모,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노인들과 기도하는 어린이의 얼굴과 같이 감동적이며 애처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얼굴은 너무도 많은 것을 나타내며 이야기해 줍니다. 잠시 내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어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어린이가 한결같이 예쁘고 깨끗한 옷을 차려 입고 스튜디오로 내려 왔습니다. 나는 한번에 한 어린이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유익한 방송이 될 대화가 나오기를 희망했습니다. 첫번째 어린이는 다섯 살난 여자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나오자 나는 무릎에 앉혀 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좋아해요?”

“아니요.”

그래 내가 말했읍니다. “왜 그렇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나는 그 아이를 내려 놓았읍니다.

나는 우리가 가정의 내면을 들어내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 세명의 어린이와 이야기 했읍니다. 그 때 문이 열리면서 깨끗하게 다린 옷을 입은 귀여운 어린이가 들어 왔읍니다. 그 아이를 스튜디오에 내보내려고 얼마나 자상하게 돌보아 주었는지 한 눈에 나타났읍니다. 정말 천진무구한 얼굴이었읍니다. 나는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읍니다. “이름이 뭐지 ?”

“코리예요”하고 그 아이가 말했읍니다.

“코리는 몇 살이지 ?”

그 아이는 손가락 네개를 들어 올리며 “네 살이예요” 했읍니다.

그렇게 되니 질문할 것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 할 줄 아니 ?”하고 말했읍니다.

“네”

“노래 하나 불러 보겠니 ?”

“네”

그 아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초등학교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것 저것 접속곡으로 부르더니, 끝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야 말로 혼연할 수 없는 기분이었읍니다. 내가 창문을 통해서 보니 방송 기술자도 역시 눈물을 썩어내고 있었읍니다.

노래가 끝나자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노래부르는 걸 들으니 코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살 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

코리는 나를 쳐다 보았읍니다. 나는 코리가 대답한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읍니다.

코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빠가 있기 때문이예요.”

나는 “아,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로군.”하고 생각했읍니다.

나는 “너는 예수님을 아니 ?”하고 말했읍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지 ?”

“우리 큰 형님이셔요”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네”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

그 아이는 이렇게 답했읍니다.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지 ?”하고 말했읍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내가 물었읍니다.

그려자 그 아이는 “그것도 모르셔요 ?”하는 듯이 나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요.”

나는 얼마나 놀라우리만큼 잘 알고 있는가 하고 생각했읍니다.

서론 네살이나 선 네살이 되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네살 짜리가 알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 그 아이가 들려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생활을 하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저 한 구석으로 들어가시어 우리의 어릿광대짓을 무관심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와 같은 존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와 수십억의 인간이 사는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이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까지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사소한 일에 관여하시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타인에게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니,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살펴 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대로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우리 인간은 대체로 청소년기와 성인

으로 성장해 가는 시기에 어린 시절의 단순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빛을 꺼버리고 그대신 어둠침침한 막을 끼어 놓아 그 막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한 장본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가 견디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물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말씀을 듣거나 영감적인 책을 읽으면 실제로 영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내부에서 거인이 감동을 받고 잠을 깨어 나오는 듯한 느낌이지요. 그러다가도 직장에 가는 길에 차바퀴가 터진다든가 내 힘으로 깊을 수도 없는 빚을 지게 되거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승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상 생활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나의 선한 의지는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 살고 있거나, 좋은 직장을 갖고 부를 누린다 해도 인간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 나가야 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암박감과 좌절감이 작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수도 있고, 코트 단추를 잃어 버리는 수가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속세에 둘러는 수도 있습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매일 조금씩 축적되면 마치 모터가 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최근에 우리 이웃집의 접시 밖에 기계에 이쑤시개가 모터속으로 들어가 수리하는데 50불이나 들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제로 비극이나 반대에 부딪치는 수가 있습니다. 삶의 빛이 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수도 있습니다. 전강이나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청중 중에서도 빛을 깊을 능력이 없거나 위장병으로 마음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월남전에서 포로

로 잡혔던 사람이 자기 병에 걸려 여러 달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휴식을 취하는 때라고는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 나가시겠습니까?

이유가 크든 작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수시로 의문이 떠 오르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잘 살 수 없을까? 좀더 잘 할 수 없을까? 혹시 내가 놓쳐버린 행복을 잡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찾은 답은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 계시다는 세기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위대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말일에 모습을 나타내셨으며,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현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는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생활에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진리와 거룩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원리를 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째뚫어 보시는 눈길 앞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참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웰링تون 공작이 워털루 전쟁에 대하여 말했을 때, 그는 영국 군인이 불란서 군인보다 더 용감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5분간 더 용감했던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누가 마지막 5분간 더 용감한가, 좀더 열심히 하는가, 모든 사태가 다 우리가 패배할 것처럼 보일때라도 끝까지 물려서지 않는가 하는 것 등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사지가 마비된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팔과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턱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한 손수레에 누워서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그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쓰지 못하는 발에 빨간 양말을 잘 신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구에 대하여 도전하는 상징 같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보십시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몇 해 전에 나의 부친이 내게 들려주신 명언이 생각납니다.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노력하다 다시 실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노력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항상 웃음 띤 얼굴로 유명한 어느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명랑한 얼굴 표정은 좀처럼 사그러질 때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여성에게 생활해 나가는 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은 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갖다드릴 중요한 편지를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가시 철망으로 만든 울타리 뒤에서 계셨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뛰어 가다가 울타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앞이 마에서 뺨 까지 찢겼습니다. 그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겨, 안면에 주름이 지고 올상을 짓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찡그린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면 웃음을 지울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특쟁하는 규모가 얼마나 되든지, 여러분이나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움과 좌절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하찮은 인간이 될리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어떤 높은 곳에 속한다고 말해 줍니다. 그 어떤 높은 곳은 바로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특쟁하는 것은 주님이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문학의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엔지시 1961이라고 불리는 은하계에서 최근에 큰 동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은하계는 우리 태양계의 은하수보다 몇십배나 되며 수억 개의 새로 생성된 고온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헤아릴 길이 없는 무한한 우주를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데 우리의 생각이 미칠 때 우리의 사소한 생각이나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은 일에 주께서 관심을 보이시리라고 생각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생활한 기록을 보면, 그가 이 세상에서 함께 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요구 사항이나 염려를 돌아 보시지 않을 정도로 너무 위대하게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와 마르타의 오라비나사로가 죽었던 경우가 생각나십니까? 두 자매는 그리스도를 뵙고 그들의 애통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위안을 받고자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뵙자 마자, 다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요11: 21, 22)라고 말했습니다. 자, 부활의 날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는 것을 예수보다 더 잘 알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기운을 내거라, 몇 해 안되어 네 오라비를 다시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전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 11: 35)고 쓰여 있습니다. 두 명의 친구의 고통과 애통하는 심정을 헤아리시고 순수한 연민의 정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히 무덤으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많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깔주린 우리에게 생선과 빵으로 배부르게 하신 기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그때 지축을 뒤흔들만한 것이나 어떤 고원한 것을 가지고 무리를 대하지 않으

셨습니다. 주님은 배불리 먹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구를 아시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거룩한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을 느끼는 것은 영원한 계획에서 보면 별 뜻이 없는 하찮은 것일지도 모르나, 우리 당사자에게는 중대한 것이 되므로, 주님보시기에도 역시 중대한 것이 됩니다. 내일이 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사라져 새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발 앞의 인간사에 대한 문제를 내 보인다면 오늘 그 문제를 이겨내도록 도와 주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든 작든 여러분의 발전을 막고 이장을 흐리게 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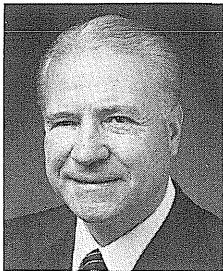
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두드리고 찾으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의 자녀이므로 내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위안과 충고를 주시리니, 떠리를 들고 용기를 내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을 당당히 대하십시오.

맑은 눈동자의 네 살난 친구의 말은 과연 맞는 말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오늘의 세계를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해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코리의 답은 그대로 맞는 말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가정은 교육 기관임

지 호머 더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기본적인 가정 교육 과정은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성신의 은사, 기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충성을 다하여 말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킵블 대관장이 오늘 말씀하신 복음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발생하며, 세상은 혼란되어 있습니다. 예언자가 말씀하셨듯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요 목표는 가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은 교육적 및 종교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영향력이 강한 사회제도입니다. 물론 교사나, 대학이나 학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교사를 배출하는 가정입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교

우를 배출하는 가정입니다. 회복된 교회는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복음을 중심한 가정 생활은 우리가 이러한 목표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출생 후 2년 동안에 받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익힌 태도, 음성, 말하는 법, 표현력, 경건, 친절, 진학성 등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정에서 물리학과 같은 전문 과목은 가르칠 수 없읍니다. 그런 것은 대학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개체성을 가르치는 데에서 전문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어린이도 하는 단순한 말이며” (찬송가 186장)라는 찬송가가 있읍니다. 그러한 어린이는 장차 잠언에 나와 있는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입파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 21 : 23)

몰몬경의 앞 줄을 장식하고 있는 교육적인 진증은 우리에게 의욕과 교훈을 불어 넣어 줍니다.

“나 너희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부친이 아시던 학문을 거의 다 배웠고…

“…이는 유대인의 학문과 애굽인들의 언어로 되어 있으니라.” (너일 1 : 1-2)

“거의 다 배웠고…”

우리 자녀들도 그와같은 사실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학문에는 자녀들의 마음과 정신에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자와 같은 모세의 예언의 가르침을 심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장론할 것이며.” (신 6 : 5-7)

1775년에 존 아담스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새로운 국가를 세울 구상을 하면

서, 아내 아비 계일에게 국가의 미래의 지도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편지로써 보냈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웅들과 정치가들과 철학자를 갖추려면, 그 보다 먼저 교육 받은 여성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페이지 스미스 저, 존 아담스, 뉴욕, 더블레이, 1962, 1권, 221—22페이지에서 인용)

그것은 유타주 드레이퍼 출신인 93세의 클라라 혼 파크 여사가 쓴 시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선조 필그림들이 한 일에 대해
나 하 많은 좋은 이야기 들었네
그들이 어떻게 먹고 마셨는지
조용히 생각하고 싶을 때
아이들은 누가 데리고 있어
주었을지 궁금했네
필그림 선조들에게 어머니가
없었다면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 것인가.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아침에 예언자께서 인용하신 교리와 성약 68편 25내지 30절에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밝혀 주셨습니다. 잠시 그것을 살펴 보기로 합시다.

첫째 “회개”의 교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으나, 누구도 그 말에 움츠러들 필요는 없읍니다. 그것은 진보하는 과정입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영화로운 기회는 이 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가르침 받은 자녀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하시는 주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이웃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열 권에 달하는 방대한 역사책에서 사회가 붕괴하기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행

위가 나타나게 된다고 저술했습니다. ‘사람들은 기회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된다고 느끼며, 여러 가지 비속하고 야만스런 행위가 나타나며, 구습을 타파한다 하여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소위 창조적인 천재니, 고풍이니, 신풍이니, 철학적 방법이라는 등의 구제 수단을 찾게 됩니다. 토인비의 책을 읽어 보면, 이런한 모든 것은 실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홍수가 밀려 나간 곳에 한 인물이 일어나…이 지상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겁니다. (뉴욕,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1947년 1~4권 요약판, 376—77페이지.) 그 인물은 바로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첫 여행기에서 쓴 첫 구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브전 랜드스트롬, 콜럼버스, 뉴욕, 맥밀란사, 1967년 54페이지.) 이와 같이 역사 기록은 시작됩니다. 바톨로모 라스 카사스가 콜럼버스의 아들 페르디난드의 도움으로 여행 일지를 정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1492년 10월 12일에 상륙하여 대장은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을 거룩한 구세주라는 뜻인, 산 살바도르라고 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유럽인이 지명을 붙인 첫 번째 땅이 되었습니다. (랜드스트롬, 68페이지 참조)

우리는 인류를 위한 구원의 원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주장합니다. 그 구원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셋째, “여덟 살이 될 때에 죄 사함을 위하여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가족 단체인 교회에 들어가는 입문입니다. 성신의 은사는 우리를 전리로 이끌어 주는 수단으로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68편 25내지 28절은 가족의 교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로를 규명해 줍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



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있으니라.” 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네째, 이러한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주님은 같은 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또 시온의 주민은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니라.” (교성 68 : 28-29)

다섯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면하고 혼명한 노동이 이 모든 것을 위한, 성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달성하는 중심 열쇠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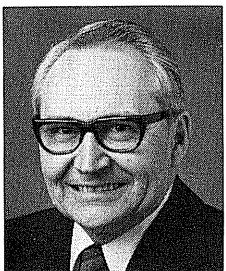
시온의 모든 주민은 “충성을 다하여 맡은 일을”(교성 68 : 30)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일하는 습관은 가정에서 가

장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되시는 분들이 참된 신천지도자로 그들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고 모범을 보여 가족들에게 이러한 원칙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축구합니다. 사랑하고, 헌신해 주며, 존경심을 길러주고 자녀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은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나 이제나 예언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 계시며 이 회복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은 오늘날 주님의 살아 있는 예언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증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의 왕국

엘 툴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 모습을 보이고, 행동하며, 일할 때는 눈에 띠는 차이 곧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몇주 전에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간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옆 좌석에 내호 기심을 끄는 기사가 펼쳐진 채 주간 잡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회의하는 미국인—성장하는 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79년 2월 26일자 74페이지) 그 내용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굳어져 온 신조, 진보의 원동력 및 문명의 기반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부 지도자들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전과 같이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조사 결과 종교에 대한 의무감이 힘 박해졌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관한 질문의 결론은 교회에 다니

거나 교회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서 종교 단체는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아무리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계속하여 짚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답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인류의 영혼을 꾀롭히는 두려움과 의구심을 넣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으로 역사의 교훈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마음먹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각 개인이 저마다 도덕 규범이나 정치의 기준 혹은 통치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그러한 체제 하에서 생활하려 한 백성이 성공을 거둔 예는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가치있는 기준과 어떤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뭉칠 수 있었던 문명인들이 가장 크게 발전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교사는 인간이 의롭게 세운 기준에 따를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강한 백성이 성공했음을 보여 줍니다. 태초로부터 여러 예언자들은 인류에게 더 높은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도록 권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경에서 니파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는 만민에게 명하신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하셨으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시었고,” (니파이이서 9 : 23)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며, 지상에 오실 구세주의 사명을 위해 길을 예비하신 침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이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교회가 회복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주, 구세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도우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브리간 영 대광장은 1847년에 원터 쿼터스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그의 최후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왕국을 받아들일 모든 영에게 의로움과 평화와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의 선한 뜻은 모든 인간에게 향해 있으며, 우리는 혈세나 영원한 세계에서의 인간의 구원을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인간이 특권을 허락해 주는 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함께 모입니다. 온 지상의 고귀한 자, 혼명한 자, 박식한 자, 부유한 자는 위대한 여호와께서 주신 부와 치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 함께 모입니다. 온 지상의 모든 나라와 혈족과 왕국과 언어와 민족과 방언으로부터 엠마뉴엘의 표준에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원리를 세우도록 도웁시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오실 때 성결케 된 자와 함께 보상받을 것이며,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밀레니얼 스타지, 1848년 3월 15일, 87페이지.)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생활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과 인위적인 표준에 따라 생활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더 높은 법에 따라 생활하고자 결심하면 그의 모습이나 행위,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방법에서 눈에 띄는 차이 곧,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경전은 주님의 법에 따라 생활하고자 개심

한 여러 사람의 생활에 나타난 극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경에는 그 당시에 이 지상에 살았던 밀는 자와 밀지 않는 자 사이에 일어난 투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는 박해가 극심해 치는지라. 교회 회원들은 이 사태를 지도자들에게 하소하여 불평하매 지도자들은 이를 엘마에게 전하였고 엘마가 이를 모사이야 왕에게 고함이...”

“모사이야 왕이 전국 각처에 영을 내려 밀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속한 자들을 박해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 슬픈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밀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며, 엘마의 아들 중 그 아비의 이름을 쫓아 엘마라 하는 아들이 또한 밀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여 심히 간악하고 사심에 젖은 자가 되었고, 또한 말이 많고 백성들에게 감언 이설을 펴뜨려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저가 행하는 죄악을 쫓아 행하게 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백성들간에 불화를 일게 하며, 하나님의 원수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를 열어 주어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는데 이를 크게 방해하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은밀한 중에 교회를 파괴할 방안을 모색하였고, 하나님의 계명과 왕의 명을 거스려 주의 백성들을 뜯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모사이야서 27:1-2,8-10)

아들 엘마가 지역하며 돌아 다닐 때에, 주의 천사가 그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에게 나타나 우뢰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에 저들이 심히 놀라 땅에 엎드려졌고”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엘마야 일어나 내 앞에 서라.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펑박하느냐? 주님께서 이르셨으되, 이는 나의 교회라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요, 내 백성들이 범법하지 않을진대 아무도 이를 허물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니라.

“...보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주의 종, 앤마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곧 이는 너의 부친이라. 저가 네게 진리를 알게 하려 두터운 신앙으로 간구한지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네게 알릴 뜻으로 이곳에 왔음에, 주님의 종의 간구가 저의 신앙에 따라 성취되리로다.”(모사이야서 27:12-14)

천사의 나타남으로 아들 앤마의 놀라움은 극심하여 그도 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못하고, 기운이 진하여 팔과 다리를 가누지 못하니 사람들이 그를 테려다 그의 부친 앞에 누이고 그간에 겪은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앤마의 부친은 주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고 기뻐하며, 제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그들은 함께 급식하며 아들 앤마가 다시 사지에 힘을 모아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밤낮을 꼬박 급식하고 간구했읍니다. 이와 같이 신앙을 보이자, 앤마는 힘을 얻고 일어나 모여선 무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읍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속죄를 얻었도다. 보라 내가 영으로 거듭났으며,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만 백성이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이 모두 거듭나야 하나니,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타락한 육욕의 모양이 의로운 것이 되며, 하나님께 속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같이 하여 인간은 새 것이 되나니,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하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모사이야서 27:24-26)

앤마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때로부터 그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 다녔으며, 이 나라에서 강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경전은 기록하고 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아노니,



그 뜻 안에서 내가 영광롭도다. 나 스스로를 영광되게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뜻을 영광되게 하느니라. 내가 많은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됨은 나의 영광이니, 이가 곧 나의 기쁨이라.”(엘마서 29 : 9)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하면, 더 높은 법에 따라 생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그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스티븐 엘리차즈 장로는 이러한 속성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속성은 인간의 생활에서 완전한 표준이 된다. 친절, 동정심, 관용, 자비, 인내심, 공정한 판단, 충성, 공의, 성실성 및 사랑하는 마음 등은 모두 그리스도의 품성으로서, 인류의 이상주의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좋은 이웃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과, 풍족한 삶과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게 되리라는 개념은 서로 비교가 되는 것으로 인류 사회에서 가장 전전하고도 참된 철학이며 행복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지혜가 있는 곳은? 솔트레이크시티 메ஜ렛 출판사. 1955년 324페이지)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는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생활하는 중에 나타내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과 인류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스스로 길을 찾도록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면 큰 기쁨과 만족과 성취감이 따르게 되며, 따라서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 계속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더 높은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본보기로 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길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은 하늘 아래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이서 31 : 20-21)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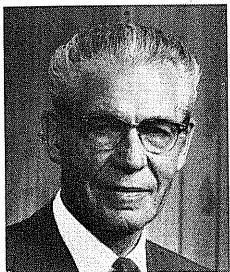
주님의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증드립니다. 아멘.

*

행복을 찾는 분들에게

엔 월든 태너 부대판장
대판장단 제 1 보좌



교회에서 가르치는 원리와 관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2년 전인, 1896년에 알 엠 브라이스 토마스씨가 영국, 런던에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했는데, 그때 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방문한 이후, 그는 교회의 교리와 관습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 주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과 영국에서 그가 다니던 교회의 가르침을 비교해 본 후 그는 곧 침례받고 회원이 되었습니다.

1897년 5월 24일에 영국 런던에서 그는 “본인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첫번째 기사의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이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목적은 본인이 영국에서 다니던 교회를 떠나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한 이유를 밝히고, 말일성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친지와 친구들의 청을 가능한 한 응해주고, 본인이 선조들의 신앙을 거부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자 힘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아들이시여,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축복이 내가 쓴 글에 임하여 주님의 진리와 거룩하신 말씀과 뜻에 일치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리버풀, 영국, 밀레니얼 스타지, 1897년)

1904년 12월 9일자로 미국에서 발행된 제2판 서문에서 우리는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기사를 쓴 이후, 유타주를 두번 방문하여 솔트레이크시티와 유타주 내의 여러 마을에서 여러 말일성도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성도들 중에서 잘 알려진 두 집안에서 민박을 한 일이 있어, 이 사람들의 사회에 자유롭게 섞여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며…공정하고 올바른 각도에서 그들을 평가해 볼 수 있었다.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약점을 갖고 있으며, 그들 중에서도 이름만 말일성도에 걸어 놓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전체적인 면에서 살펴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의로우며,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위대한 말일의 사업의 신성함을 굳게 간증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운명을 믿고 있음을 발견했다.

“다른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 중에서도 교육을 받고 풍부한 지성을 갖춘 많은 남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 이 성도의 집단 사회에서 학자는 흔히 찾아볼 수 있고, 현재도 성악과 악기 연주를 공부하며, 유럽과 미국의 동부 여러 주에서 중점적으로 미술에

열중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을 찾아 보기란 힘든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서 음악적 재능은 현저하게 눈에 띄고 있다. 유타주 내에 교육, 지성, 능력, 정직 등과 같은 자질이 요청되는 여러 중요한 직책은 밀일성도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법조계, 의학계, 언론계 및 상업 계통의 전문 직종에서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성도들이 여러 직종에 들어 차신망을 받으며 일하며, 유타 주민들에게도 큰 혜택을 주고 있다. “본인은 이번에 세번째로 유타주의 중심 도시를 들리게 되는 셈인 데, 1901년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받은 성도들에 대한 의견을 수정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제1판 서문, 솔트레이크시티 : 정보 및 교회 문학과 1904)

성도들은 지금도 뽑내려거나, 범법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은혜를 베푸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 7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토마스씨에게 유타주를 다시 방문해 주십사해도, 그 분은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이유를 여전히 찾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과 다름없이 같은 조직과 같은 이상과 목표를 갖고 있으며, 성도들의 교육 열은 그 어느 사회보다도 높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 직종과 행정 기관, 산업 기관, 사회 기관과 이제는 전 세계적인 교회로 알려진 정도로 성장한 교회에서 정직하게, 능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897년에 브라이스 토마스씨가 처음으로 기사를 썼을 당시와 비교해 보면, 스테이크는 오늘날의 1,000여개에 비하여 37개 밖에 안되었고, 선교부는 오늘 날 160여개에 비하여 18개, 회원수는 현재 400만 명이 넘지만 당시는 (100만명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222,334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기사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주민들은 아름다운 신전과 훌륭한 태버내를 갖고 있는데, 그 주변은 참으로 잘 정돈되었다. 그들의 집은 너무도 깨끗하고 그림같이 손질되어 있었으며, 훌륭한 정원

이 달려 있었다. 그들은 태버내를 합창단을 자랑하는 데, … 사실 나는 그보다 훌륭한 음악은 들어본 일이 없다. 이 주민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돌보는가 하면, 선교사들은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며, 참으로 모든 면에서 자신을 회생하고 있다. 성도의 교회 조직은 조금도 나무랄 틈 없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품성과 교리를 더 잘 알아보기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책, 특히 물론경을 확실히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토마스, 제1판, 3페이지.)

그는 그 말대로 연구하여, 광범위한 연구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에 배도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에 명시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직과 가르침을 그대로 지닌 교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이 세상에는 예언자가 있어야 하며, 주님은 예언자를 통해 계속 계시를 주시어 그의 백성을 인도하셔야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계시는 그 친 것이 아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예수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시는 것과 같이, 주님의 모든 자녀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께서 기도하신 뜻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 17:11 참조.) 그의 견해를 들어 보기로 합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과 같이 성장하는 방법을 보여 주고, 그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 보내 주신 이 보혜사, 즉 이 하나가 되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세월을 서로 증오와 파국으로 반목하고 있는 기독교계에서 분쟁과 불화를 일삼아 온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질 전망이 보이는 것 같다. (토마스, 제1판, 11페이지.)

그는 계속 연구한 결과, 많은 교회에서 침수에 의한 침례 의식을 변화시켰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도 그러한 형태로 침례 받았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현재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하여, 그는 3세기까지만 해도 그러한 혼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원래의 편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 냈습니다. 그는 아담의 죄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미친다고 가르친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갖추고 있으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여덟 살 또는 책임질 연령에 이르기까지는 침례 받지 않습니다. 토마스씨는 성경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고대 교회에서는 시행되었으나, 후세에 와서 사라졌음을 알아 냈습니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고린도전서 15: 29)

베드로는 이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베드로전서 4: 6)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어, 죽은 자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살아 생전에 침수로서의 침례 의식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침례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만 우리는 신전 사업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에게 맡겨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도록 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대신 이 과업을 수정해 달라고 의뢰한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리고 산 자를 위해서 수행되는 것이 신전 의식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해질 수 없음이라.”(교성 128 : 18)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추적하여 가족과 가족을 연결시켜 아담에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 계보 및 신전 사업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과업은 현재 교회의 신전에서 수행되어 말하기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 : 5-6)

이상의 모든 증거로 미루어 보건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사망 이후에 그 모습을 들어 낸 여러 다른 교회들은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초대 교회의 의식을 변화시켰음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구약과 신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대로 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암흑 시대로 알려진 시기에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예언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참된 복음에서 더욱 멀리 떨어져 나갔으며 초대 교회에서 시행된 의식이 더욱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계시자 요한이 예언한대로, 예언자로 선택된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복음은 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회복의 열쇠와 이 말일에 지상에 교회를 세우는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신 이야기와, 미대륙에서 그리스도를 새로이 증거하는 성경의 자매서 물론경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스겔은 이 두권의 책을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라 칭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리라고 예언했는데, 그 뜻은 그들이 같은 복음을 말하고 같은 교리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겔37 : 16-19 참조)

이제 토마스씨가 교회에 가입하면서 밝힌 이유를 몇 가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도덕적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들이 종사하는 사업의 신성에 관한 그들의 간증.

2.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와 똑같은 의식을 갖추고 있는 완전하고 효율적인 교회 조직.

3. 배도에 따른 복음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계속 주시는 말씀을 전해줄 살아있는 예언자의 필요성.

4.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유아 침례의 금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이상의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본래부터 가르친 교리였다.

5. 구약과 신약에 나와있는 대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계보 및 신전 사업.

오늘날 교회에 가입하는 개종자들이 밝히는 이유는 비슷하며 또 다양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영적 및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에 가입하면서 그 이유와 간증을 밝힌 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어느 젊은 부부는 다른 교파에 참석하다가 결국은 말일성도 교회에 들리게 되어 그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와는 다른 것을 발견했읍니다. 교회에 나가 공과를 받아본 후에, 우리는 이 교회야말로 우

리가 출곧 찾아 온 교회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들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다른 아이들과 더욱 훌륭한 관계를 맺고, 집안 일도 잘 도와주는 등 여러 면에서 변화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신권을 받게 되자, 가정 생활과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자기 확신이 더욱 증가되어 자연히 가정 생활이 과거와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에쿠아들에서 어떤 남성은 자기 집 근처의 길에서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을 집안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그들은 소책자와 인쇄물과 물본경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책자를 읽고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후에 선교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가르침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전해준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나를 새로운 생활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담배, 홍차, 커피, 또는 술을 취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계명임을 알았습니다. 장로님들이 나에게 그 계명을 가르쳐 주었을 때, 내가 훌륭한 생활을 하려면 그대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로님들은 나에게 그에 관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외롭게 살고 있던 한 여성은 선교사들이 만나, 그녀의 질문에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답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해 왔으므로, 나는 그 생활이 이처럼 허무하게 끝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니면 교회의 목사님은 나에게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았으나, 그 젊은 선교사들은 영생에 대한 훌륭한 이야-

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고 얼마든지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물본경을 공부하고 간증을 갖게 되었으며 침례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개종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이유로 교회 의식에 따라 매장되지 못하게 되어 늘 애통해 하던 차에, 그는 어느 날 아내가 집안으로 불러 들인 선교사들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은 유아 세례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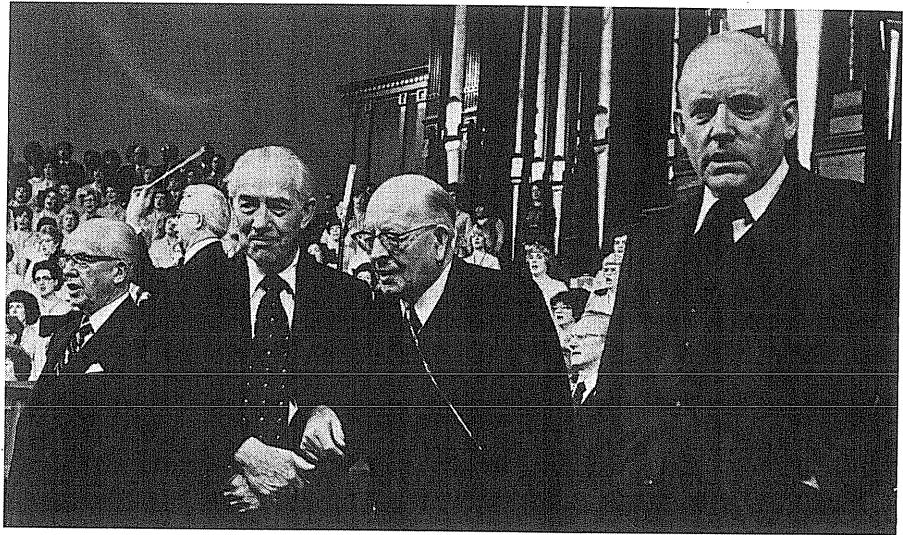
장로들은 어린 아이들은 죄를 지을 수 없으므로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된다는 물본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 들려 주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교리를 그리스도는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과 달리 느끼시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장로들은 나에게 여러 공과를 가르쳐 주어 물본경이 진실하다는 간증을 얻도록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연구해 보고, 기도하고, 간증을 가졌습니다. 나는 경전에 나와 있는대로 가슴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준 원리의 하나는 해의 영광의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해 할 수 있고 또 진정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것만으로도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느 장로 교회의 목사가 개종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동료 목사와 친지들로부터 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간증을 피력했습니다.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가 구하던 ‘값진 진주’를 찾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이 글을 쓡습니다.
(마 13:46 참조) 나는 12년을 넘게 찾아 헤맨 평화와 진리를 몰론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아직 몰본경을 다 돌파하지 못했으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밝혀 놓은 그 많은 진리는 이미 우리 가족의 영적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인간도 이 책을 쓸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 우리의 성실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지는 증오의 시험을 우리는 또한 수락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보기 위해 몰본경을 읽는 것 조차 고집스럽게 거부하며 시야를 가리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책을 읽고 생활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이 교회에 대한 신앙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실한 학생이며 성령이 권능을 주신 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시려는 것을 배우기를 두려워 하지 않을 때를입니다.

“장로 교회 목사로서 내가 어떤 조직을 이

끌어 나가기 위해 그 많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나 개인에게 비극적인 일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그 속에서 영생의 말씀과 승영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 1:39)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이 그토록 중요하므로, 주님은 우리가 부활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며, 부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간증하는 성경과 몰본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생에서 행복을 찾고 또 내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자 한다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1979년 3월 31일 토요일 오후 모임

1978년도 통계 보고

보고자 : 프랜시스 엠 기번스
대관장단 서기

대 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1978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발전과 현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교회 단위 조직

시온의 스테이크 수	990
복음 선교부 수	166
와드 수	6,731
스테이크 산하 독립 지부 수	1,333
선교부 산하 지부 수	1,790
와드나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국가	
의 수	60

(이 통계 수치는 1978년 1년 동안에 694개의 와드와 지부가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

1978년 말 현재 스테이크, 선교부 및 교회 본부 사무실에서 보고된 교회 회원 총 수	4,160,000
--	-----------

1978년의 교회 성장

총 복받은 어린이 수	97,000
침례 받은 기록상의 자녀 수	63,000
침례 받은 개종자 수	152,000

(개종자로 침례받은 수치는 대회에 앞서 교회 본부에서 받은 1978년의 보고를 기준으로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사회적 통계

회원 1,000명당 출산 수	30.7
회원 1,000명당 결혼한 사람 수	13.1
회원 1,000명당 사망자 수	4.1

신권

집사	145,000
교사	114,000
제사	211,000
장로	351,000
칠십인	29,000

대제사 137,000

(이 수치는 1978년에 37,000명의 신권 소유자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복음 선교사 수 27,669

교회 교육기구

1977-78학년도의 총 등록자 수	
신학원 중등부와 대학부 및	
특별 프로그램 등록자	301,000
교회 학교와 대학 및 상급 교육기관	70,000

복지 사업

현금 또는 생필품의 혜택을 입은	
인원 수	111,500
발달성도 사회 사업의 도움을 받은	
인원 수	18,000
유급 직장에 알선 받은 인원 수	21,000
복지 사업을 위해 봉사한 연인원의	
근로일 수	443,500
창고에서 분배된 생필품 중량	
(단위 : 파운드)	18,953,000

계보 협회

신전 의식을 위해 1978년에 조사된
명단 5,120,000
계보파는 43개국으로부터 기록을 입수하였으며, 입수된 명단은 30미터짜리 마이크로 필름 983,000개에 달하며, 이것은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4,679,000권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신전

1978년에 집행된 엔다우먼트의 수
 산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50,400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3,756,600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전의 수 16
 설계 혹은 건축 중에 있는 신전 5
 개축 중에 있는 신전 1
 한 곳의 신전은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에는 1977년보다 204,900의 엔다우먼트가 더 행해졌습니다.

한해 동안에 작고한 유명 회원 : 십이사도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보고자 : 월포드 지 에드림 협회 교회 재정 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1978년 12월 31일 현재의 교회 연례 재정 보고서와 같은 날 마감된 연간 교회 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한 재정 결산 및 운영에는 교회의 모든 기금과, 교회 재정과가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타 교회 운영 조직의 모든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산, 회계, 감사, 절차 그리고 기금 수입과 지출 관리 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관장단이 예산 절차에 따라 교회의 제반 기금 지출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출 위원회는 주기적인 모임에서 예산에 따라 기금 지출을 관리합니다.

교회의 다른 과와 독립되어 있는 감사과는 교회의 각과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과에서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타 교회 운영 조직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감사와 교회에서 채택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체계에 대한 감사를 정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부, 재정 센터 및 미국 이의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교회 각과 활동에 대해서는

평의회 일원인 벨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대관장단 제 2 보좌 매리온 지 룸니 부대관장부인, 아이다 젠슨 룸니 차매: 브리감 영대학 총장 어베스트 엘 월킨슨 박사, 뉴질랜드 웰링טון 선교부의 루돌프 에이치 럭키 선교부장; 센터빌 유타 남스테이크의 로버트 오스틴 트럼프 스테이크 부장: 교회 본부 선교사 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레이몬드 제이 페이스 지역 대표, 교회 건축 위원회의 회장을 역임한 웬더 비 멘데홀 형제.

이와 같은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회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교회 감사과의 괜리의 규모와 범위는 교회의 성장과 광범위한 활동에 비례하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기금에 대한 감사는 스테이크 감사자에게 지명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교회 재정과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지고 있지 않은 재단 법인의 사업은 전문 감사 기관이나 정부 조사기관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연례 재정 보고서와 기타 회계 자료에 대한 검토, 그리고 재정을 맡은 부서들의 회계 및 감사 방법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토대로해서 재정과와 감사과와 법률과의 책임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한 결과, 우리는 1978년 한해 동안 들어오고 나간 교회의 일반기금이 확정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회계 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형제.

교회 재정 위원회.

월포드 지 에드림.

해롤드 에이치 베넷.

웨스튼 이 해밀튼.

제이비드 엠 케네디.

워렌 이 퓨.

교회 본부 역원 지지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우 리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형제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의에 동의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지지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네이단 엘든 태너 형제를 대관장단 제 1 보좌로,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대관장단 제 2 보좌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헨터,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페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테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이상의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 축복사로 엘드리드 저 스미스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와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재단 이사장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프랭클린 디 리차즈,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에이 디어도어 터틀, 넬 에이 맥스웰, 매리온 디 헹스, 폴 에이치 던,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 밖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더어도어 엠 버튼, 버나드 피 브록뱅크, 로버트 엘 실슨, 오 레슬리 스토큰, 로버트 더헤일즈, 에드니 와이 고마쓰, 조셉 비 워스린, 하트만 벡터 이세, 로렌 시 먼, 렉스 더피네가, 진 알 쿡, 찰스 에이 디레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칼로스 이애시, 엘리 셀 래리드 이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이콥 디오거, 본 제이 페더스토운, 던 엘 라슨, 로이든 지 테릭, 로버트 이 웰즈, 지 호머 더럼, 제임스 엘 패러모어, 리차드 지 스코트, 휴 더블류 피녹크, 에프 엔지오 부쉬, 요시히코 기꾸찌, 로널드 이 포울멘, 데릭 에이 커스버트, 로버트 엘 백맨, 렉스 시 리브 일세, 에프 버튼 하워드, 테니 이 브루어튼, 째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으로 조셉 앤더슨 윌리엄 에이치 베넷, 제임스 에이 철리모어, 스터얼링 더블류 실, 헨리 디 테일러, 존 에이치 반데버그 및 에스 딜워스 영, 이상의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판리 감독단으로서는 빅터 엘 브라운 형제를 판리 감독으로, 에이치·버크 피터슨 형제를 제 1 보좌로, 제이 리차드 클라크 형제를 제 2 보좌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역 대표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 대표 전원.

상호부조회는 회장에 바바라 브래드 쇼우스미스 차매, 제 1 보좌로 매리언 리차즈 보이어 차매, 제 2 보좌로 셀리 월크스 토머스와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주일 학교는 회장으로 러셀 엠 넬슨 형제, 제 1 보좌로 조 제이 크리스턴슨 제 2 보좌로 윌리엄 더 오스월드,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청남 회장으로 널 더 세이러, 제 1 보좌로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제 2 보좌로 퀸지 맥케이,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청녀 회장으로 엘레인 에이 캐논 차매, 제 1 보좌로 일린 디 다저 차매, 제 2 보좌로 노마 비 스미스 차매,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초등협회 회장으로 나오며 맥스필드 셜웨이, 제 1 보좌로 콜린 부쉬만 레몬, 제 2 보좌로 도로시어 루 크리스찬슨 머독,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이상의 형제 자매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 교육 기구 임원으로 스페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엔 엘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힙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퍼키, 마빈 제이 애쉬튼, 넬 에이 맥스웰, 매리온 더 험스, 빅터 엘 브라운, 바바라 비 스미스. 이상 여러 형제 자매를 지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윌포드 지 에드링, 해롤드 에이치 베넷, 웨스턴 이 해밀튼, 테이비드 엠 케베더, 워렌 이 퓨

태버내클 합창단 단장에 오클리 에스 이반스, 지휘자로 제럴드 더 오틀리, 보조 지휘자로 도날드 에이치 리플링거, 보조 지휘자로 도날드 에이치 리플링거, 올랜 반주자로 로버트 커티, 로이 엘 달리, 존 롱거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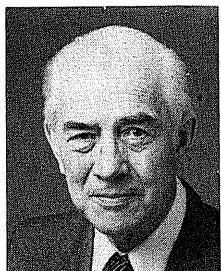
이상의 여러분을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킴볼 대관장님, 관리 역원 및 본부 역원에 대한 지지가 만장일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적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는 세계 역사에서 하늘이 보내준 봄철을 나타내고 있으니 친연히 빛나는 영성으로 꽃피울 여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일 년 중에 봄은 누구나 즐겨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봄이 되면 모든 생명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가장 환히 빛나며 희망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진실로 용기와 자신을 다시 일깨워 주는 시기입니다.

봄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서 소생하는 계절이며, 특히 영생에 대한 거룩한 약속이 재확인되는 시기입니다. 구세주께서 대속의 희생과 부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것도 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 모아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항상 기억하도록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게 한 것도 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갓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

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 : 39)하고 겸손히 기도하시며 거룩한 모범을 보여 주신 것도 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늘의 대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 같아, 저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도 역시 봄이었습니다. (요 17 : 11 참조)

연도는 다르지만 이 계절에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라.”(교성 38 : 2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 즉 행위와 목적의 하나됨은 일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바울이 서로 다투는 고린도인에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눠었느뇨?”(고전 1 : 13)라고 물어본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을 수 없고, 분쟁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예수께서 약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며 소망하신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인간이 실제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엡 4 : 13 참조)

그러나 우리가 다알고 있듯이 기독교 세계는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한 의견 차이와, 투쟁과 알력을 일삼으며, 때로는 서로 증오하고 있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눠었느뇨?”라고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고린도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 : 10)

바울은 네 종파 또는 고린도 지방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별개의 종단의 명칭을 들여 엄하게 꾸짖었읍니다. (고전 1 : 12-15 참조)

그 도시 내에서 전에 개종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변형시키기 시작하여 그의 부활을 부인하기까지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읍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나신 때로부터 이 1세기에 기독교계는 분열되기 시작했읍니다. 신약의 서한은 대부분이 이러한 현상을 공박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분쟁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인들도 견책했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쪽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갈 1 : 6-7)

그는 또 이렇게 분쟁을 예언했읍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여…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닙니.”(행 20 : 29-30)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며,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라고 말했읍니다. (벧후 2 : 1-2 참조)

바울은 디도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협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딛 1 : 10) 중이라고 말했으며, 유다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경전치 않은 정욕대로” 생활하는 기종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읍니다. (유 18-19 참조)

이와 같은 분열 현상은 사도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읍니다. 역사학자들은 기독교가 생겨난지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최소한 30여 개의 다른 파벌이 생겨, 원래의 교회가 분리되어 알력을 일삼는 종파가 난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통합이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읍니다.

초기에는 있었던 종파의 명칭을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합시다.

유대—기독교파는 할례를 포함한 모세의 의식을 도입하여 기독교를 유대교화 시키려 했읍니다.

지복 천년파(복천년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음)

엔크랫파는 포도주대신 물로 주님의 성찬을 들었읍니다.

에비온파는 유대의 율법의 일부를 지키고 바울을 부인하고, 마태복음만을 받아들였읍니다.

그노시스파는 희랍 철학을 섞어 복음의 진리를 혼동시켰읍니다.

알콘파는 일곱 하늘이 있어 각 하늘마다 한 왕이 다스린다고 믿었읍니다. 그들은 또한 예레미야서 7장과 44장에서 저주받은 신앙인 하늘 황후를 믿었읍니다.”

콥트파는 아직도 에집트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시리아 기독교파는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교 도시의 중심지였던 다마스쿠스(다메섹)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맨데안파는 침례 교회로 침례 형식으로서 물을 뿌리는 것에 반대했읍니다.

매니캐안파

쿼토데시맨파

희랍파 및 기타 다수가 있었읍니다.

기독교계의 사도와 예언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그 시기에, 여러 종파에서는 사도나 예언자나 계속적인 계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읍니다. 희랍 학문파 철학이 큰 부분을 차지했읍니다. 교회의 대들보가 없어진 데 대하여서는 아무런 변명도 찾으려 하지 않았읍니다.

지금도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암흑이 이 세상에 임했음을 알리는 슬픈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회복시키실 때를 예언했읍니다. 이 예언을 말한 사람은 사

도 베드로였으며, 대초로부터 선지자로 통하여 주신 만유가 말일에 회복되리라는 것 이었습니다. (행 3 : 21 참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지상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식해 온 종파가 난립하는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다해도 다른 기존 종파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경전은 그것을 인식하는 표적을 분명히 나타내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혼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살펴 보기로 합시다.

고대의 참된 교회 회원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조롱하여 부른 별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신약의 여러 참조성구(롬 16 : 2, 고전 1 : 2 참조)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스로를 '성도'라 불렀는데, 이는 웨스터 사전이나 기타 성경 연구가들도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적이 하나가 됩니다. 이 교회 회원들은 성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표적은 교회가 살아 있는 예언자를 통한 계속적인 계시로 인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주님은 그의 권능을 받은 예언자를 통하여 않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암 3 : 7 참조) 그러므로, 회복되는 거룩한 교회는 살아 있는 선견자 곧 계시자에 의해 하늘로부터 계속적인 계시를 받아 인도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애베소인들에게 설명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하여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엡 2 : 19-20 참조)

그는 이러한 사도와 예언자는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교회에서 계속된다

고 말했습니다. (엡 4 : 11-14, 마 5 : 48 참조)

그러나 또한 예언자들은 성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에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 일을 행할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은 살아 있는 예언자를 통해 계시로 뽑힌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히 5 : 4, 출 28 : 1 참조) 바울 자신도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행 13 : 1-3 참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는 그 성직자들이 살아 있는 예언자가 받는 계시에 의하여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로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과 그의 교회 사이에 대화가 연결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계시를 받음으로써 그와 같은 연결이 가능한 것이며 이 지상에서 일하는 살아 있는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참된 교회에 따르는 의심할 여지없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현대에 기원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교회가 아니라 현대에 기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회복될 것을 지적했습니다. (행 3 : 19-21 참조)

계시자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시간 즉, 다름 아닌 바로 현대에 회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계 14 : 6-7)

구세주도 이같이 말씀하시며,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

면 끝이 오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 24 : 14 참조) 그것은 확실히 현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표적은 고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경의에 새로운 보충 경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고대의 예언자들이 쓴 책을 편찬한 것으로, 새로운 예언자가 어떤 시기에 나타날 때마다 덧붙여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전은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다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신약의 4복음서와 다른 경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체제를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느 세대에게나 동일하신 존재이시므로, 오늘날의 참된 교회 역시 성경 이외에 새로운 경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참된 교회의 표적은 여러 가지

가 있으니,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점만을 빼어서 교회를 확실히 구별할 수는 없음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표적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분명히 나타나 온전히 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전 1 : 10, 엡 2 : 19-21 ; 4 : 11-16 참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다면, 그 교회안에서 이러한 확실한 구별의 표적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적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말일성도는 경전에 나와 있는대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세상에 회복되었으며, 그것은 현대에 기원을 둔 교회로서 새로운 계시가 들어 있는 경전은 더 갖고 있으며, 고대에서와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살아 있는 사도와 예언자의 더 위에 세워져 있음을 간증합니다. 거룩한 교회의 모든 표적이 여기에



며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러한 표적은 얼마든지 조사해 볼 수 있읍니다.

우리는 봄을 생명과 희망과 기쁨이 소생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여러 세기 동안 달아 놓으셨던 하늘을 열으신 것은 1820년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주님은 뉴욕주의 한 지점에 내려 오시어, 순수하고 흠없고 봄날처럼 환히 약속되어 있는 소년을 현대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소년이 현대의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었읍니다. 그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한대로 만 유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현대의 선견자요 계시자인 요셉 스미스 이 세입니다. 그는 구세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겸손히 그리고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요셉은 그의 종이었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의 오심을 열심히 바라고 있는 구속주이시요, 메시야이십니다. 요셉은 그가 오시기에 앞서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봄철, 즉 세계 역사에서 하늘이 보내 준 봄철에 들어서 있으니 찬연히 빛나는 영성으로 꽂피울 여름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늘이 우리 머리 위에서 달혀져 하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어둡고 추운 겨울이 불려 가고, 새로운 계시의 봄철이 찾아 와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그의 교회를 이 세상에 다시 돌려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늘의 빛이 밝혀졌습니다. 복천년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될 희망과 진리를 비쳐 주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현대의 예언자는 이 태버내클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현대의 예언자인 스페센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오늘 아침에도 현대와 1979년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들려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그는 바로 지금도 하나님을 대

신해 말씀합니다. 그의 보좌들도 역시 마찬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합당하게 성임된 열 두분의 형제님들도 역시 그려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다시 역사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있읍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증거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간증하며 그들의 간증은 참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구세주는 신비한 인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재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며 살아 계십니다. 주님 역시 그가 성임하신 대변자, 사도와 예언자에 의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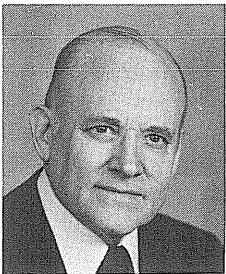
우리는 이와 같이 영감받은 분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알라는 주님의 권유로 받아들이며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오늘날 세우신 위인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을 받들어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영성을 기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신앙과 순종으로 힘을 구하고, 우리의 태도와 마음 가짐을 개선시켜 나가면, 우리는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겪은 놀라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188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처음으로 그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16년 후에 그는 웨버 스테이크 대회에서 행한 설교에서 더 자세히 말했으며, 그가 한 말씀은 데져렛 위클리지에 실렸습니다. 1880년 대회에서 우드럽 대관장은 요셉 스미스 예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예언자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던 꿈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브리검 영과 대화한 다른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브리검 형제와 히버 형제가 마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차 앞에는 내가 타고 대회에 참석하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성직자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나는 영 대관장에게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려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오. 내가 육신으로서 간증드리는 것은 다 마쳤으므로 더 이상이 백성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오. 그러나 나는 형제님을 보려 왔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려 온 것이오. 그러니 형제님이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바라오. 여러분 스스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하라는 이 말씀에 따르기 바라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왕국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형제님은 어둠 속을 걸어 되어 교회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도와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완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요셉 형제님이 나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었답니다.”(설교집 21 : 318)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웨버 스테이크에서 말씀한 대로 계속하여 그 경험을 말씀했는데,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남녀는 영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왕국 전설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싸우는 악한 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력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데져렛 위클리, 1896년 11월 7일, 643페이지).

우드럽 대관장은 설교를 계속하다가 선교사 시절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커틀랜드에서 배도가 한창 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동반자를 택해 곧 폭스 아일랜드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나는 폭스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코롬에 대한 것 이상으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가라 하셨으므로 나는 갔습니다. 나는 조나단 에이치 헤일을 택하여 함께 갔습니다. ...성도들이 미주리에서 일리노이스로 끌려 나간 그 즈음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

로 100여 명을 시운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내 생애는 언제나 그려왔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도록 떠맡고 또 주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영국으로 간 것은 계시를 받아 간 것입니다. 나는 알프레드 쿨든 형제와 함께 스태포드셔에 도자기 산지로 갔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여 거의 매일 밤 침례를 추었으며, 그처럼 훌륭한 선교사 생활을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나는 헨리 마을로 가서, 큰 홀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은 청중으로 가득 차들어 설 틈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 모임을 마지막으로 하여 내가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없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그들은 나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나는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었습니다. 주님은 간단히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역마차에 올라 129킬로 미터를 달려갔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발길을 내디딘 곳은 히어포드셔에 있는 존 벤하우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선지 반 시간 후에 나는 주께서 왜 나를 그 곳으로 보내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여러 가지 고대의 의식에 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가르친 것과 같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그 곳에 도착한지 한 달 동안에 600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8개월 동안 일하면서 나는 1,800명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곳에는 복음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께서는 나를 그곳에 보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익히 깨달은 바 있으므로, 내게 있었던 모든 좋은 일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데져렛 위클리, 1896년 11월 7일자, 643페이지.)

우드럽 대관장은 이러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내나 국외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이러한 영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영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우리 주위에는 적대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암흑과 유혹의 한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혜사와 함께 할 때까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은 빛과 진리와 계시의 영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져렛 위클리, 1896년 11월 7일, 643페이지.)

영성을 키우고 우리 자신을 지고한 신의 영향에 조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일이 걸리며 계속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며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영성을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는 스포츠나 게임 및 운동 경기에서 쓰이는 용어를 자주 활용했습니다. 그는 성도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경기에 나가 이기는 경기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며, 규칙을 지키고, 절제하며, 이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그가 쓴 글을 다시 풀어 보면 이와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달음질하는 사람들이 다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여러분도 힘껏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경기애나서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를 확실히 바라보며 달립니다.”(고전 9:24-26 공동번역 참조.) 그는 사랑하는 어린 친구이며 선교 사업 동반자인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디모데후서 4:7-8)

고대에 가장 치열한 경험이 되는 운동 경기는 맨손으로 죽기를 무릅쓰고 싸우는 것인 고로—바울은 그러한 신체적인 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쌔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11-18)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와 같이 운동 또는 경기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영적으로 되며 시간과 인내심을 인식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한 과정에 속하는 것임을 확실히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르칠 수 있

는 능력을 주셨으며,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지성의 빛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는 비율에 따라 얼마든지 넓혀 나갈 수 있는 정신 기능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생활 주변에서 악을 극복하고 죄스러운 모든 생각을 버리고 고대인들과 같이, 조물주의 권능과 영광에 휩싸인 신앙의 정점에 이르려,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더욱 더 완전에 가까이 이르게 되며, 그 생각은 명철해지고, 더욱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한 순간이나마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교회 정사, 2:8)

우리가 영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테서 곤란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우리 자신이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완전은 우리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이용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테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충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적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이 말일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 (교리와 성약 64:33-34)

주께서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이 말일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늘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온전한 자가 이 말일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서 몇몇은 낙담하여 미리부터 포기해야 할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의도하는 바

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따른다면, 자연히 그 목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덕성, 고결, 성실, 거룩함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교회 정사 5 : 134-35)

시작해야 할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출발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결음의 폭을 넓혀야 하나 한 결음씩 또박또박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육신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의 정점 또는 완전한 형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읍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신성한 계획입니다. 그것은 윤리적 규범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사회적 체제 이상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향상과 결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권과 성령과 함께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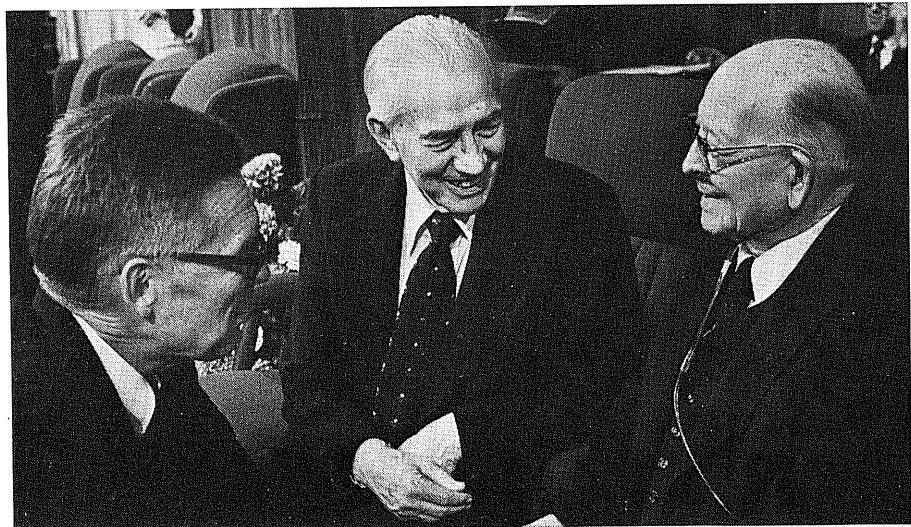
고, 한 발 한 발씩 진보해 나아가며, 힘을 구하고, 우리의 태도를 개선시켜 나가면, 우리는 선한 목자의 울타리 안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제하고 수양하며 노력하고 힘을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빌립보서 4 : 13)

현대의 계시는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 곧 정의를 행하게 하며 결손히 걷게 하며 공정하게 심판하게 하는 영을 신뢰하라. 이것이 나의 영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영을 네게 나누어 주려니와 저는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육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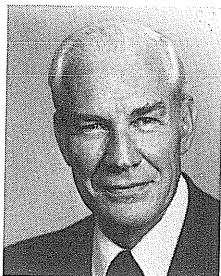
“그리하면 네가 알게 될 것이오, 곧 네가 밟게 되리라는 신앙으로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의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모두 다 이로써 알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 : 12-14)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얻을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왕족의 유산

로이든 지 데릭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권의 특성이 되는 일을 한다면 왕족에 속할 수 있게 됩니다.”

성 경을 믿는 사람들은 고대 미대륙의 예언자, 모로나이의 방문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한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뉴욕주 맨체스터에서 1823년 9월 21일 저녁에 일어난 일을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이 같이 하나님을 우러러 간구하고 있을 때 한줄기 광채가 내 방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 빛이 점점 퍼져 마침내 방은 한 낮의 햇빛보다 더 밝아지더니 홀연히 누가 내 침대머리에 나타나는 것이었읍니다. 그때 그분의 빌이 마루 바닥에 닿지 않은 것으로 나는 그 분이 공중에서 계심을 알았읍니다.

“그 분은 좀 늘어진 지극히 흰 성의를 걸치고 계셨으며… 그 분의 손은 드러나 있었

읍니다. 또한 머리와 목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드러나 있었으며…

“그 분의 성의만이 그토록 훤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온 몸이 형용할 수 조차 없이 희었으며 그 분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고 방이 그토록 밝은데도 그 분의 주변은 더욱 밝았읍니다. 내가 처음에 그 분을 보고 두려워 하였으나 곧 두려움은 내께서 물려갔읍니다.”(요셉 스미스 2 : 30-32)

뒤이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모로나이는 요셉 스미스에게 14세기 전에 자신이 땅 속에 묻어 둔 귀중한 기록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읍니다. 여러 말씀 중에서, 그는 말하기 서에 들어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약간 변경되긴 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읍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요셉 스미스 2 : 38-39)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메시지의 중대한 의미를 더욱 구적으로 강조할 수 있읍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어깨에 신성한 책임을 지워줍니다.

1836년 4월 3일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커틀랜드 신전에서 가장 영화로운 시현을 받았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읍니다. 요셉 스미스가 그때 나타나신 구세주를 묘사한 것은 우리 경전 중에서 가장 귀중한 구절이 됩니다. (교성 110 : 2-3 참조) 그런 다음에 모세가 나타나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한 열쇠를 주었으며, 그 이후에 일라이어스가 복음의 신권 시대를 맡겼으며,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 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하기의 입

으로 이야기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엘리야)가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얼어 맞으리라고 증거한 그 때니라"(교리와 성약 110 : 14-15)

고대의 사람들이 나타나 말일에 구원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열쇠를 준 이 일은 얼마나 영화로운 경험입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신전을 짓고, 조상을 찾고, 계보 기록을 작성하고, 그들 자신과 또 선조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구원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말라기가 말한 대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하라는 책임은 받았습니다. 비공개 원칙에 의하여 우리는 95년 이전에 죽은 사람에 한해서는 가족의 제안이 없어도 현재 신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기 1900년 이전에 죽은 약 60억 명의 인구 통계와 그 명단이 나타나 있는 기록을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상의 총 인구 통계에 나오는 명단은 주후 12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10억 명을 마이크로 필름에 기록하였으며, 약 5,700만 명에 대하여 신전 기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25억 명의 개인 기록을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며 다른 나라에서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하면 다시 25억 명의 개인 기록을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매년 1억 명의 기록을 기록 보관소에 추가로 보관하며 마이크로 필름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지닌 가치와 또 사라지기 쉬운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사업은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크게 공헌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대리 신전 사업을 위

해 명단을 입수하는 일은 가족 및 개인의 계보 탐구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가족이 계보 탐구를 하여 기록을 모으는 것은 느리고 비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는 그의 둘째 증조부에게서 태어난 팔촌 형제가 348명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엔사인, 1978년 11월호, 28페이지 참조) 그들이 모두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를 탐구한다면, 얼마나 많은 노고가 중복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전에 앞서 가신 여러분의 조상을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신앙과 근면은 이 일을 성취시켜 나가는 데 굳건한 초석을 놓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본부가 있는 도시는 세계 계보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쌓아올린 이 명성은 그렇지 않고서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을 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길을 터 주었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탐구에만 계속 의존한다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신전 사업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년에 우리는 컴퓨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급속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신 이 놀라운 기계 문명을 우리가 이용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기록 초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각 스테이크에서는 우리의 기



특 저 장 보관소에 설치된 마이크로 필름으로부터 신전에서 이용할 명단을 초출하기 위한 단위를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훌륭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개발시켜 그에 따르는 경비와 노고를 감소시켜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현재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1. 4 대 가족 기록서와 가계도를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록을 자기의 형제와 자매의 기록과 비교하여 정확한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한 사람이 쓴 한 벌의 양식을 뽑아 맨 첫 칸에 모든 형제 자매의 명단을 적어, 1979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1981년 7월 1일에 마감하는 계보파에 제출하십시오.

2. 규칙적으로 신전 의식을 수행하십시오.
3. 요청이 있을 때에는 스테이크 기록 초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이제, 과거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생긴 것입니다.

4. 개인 및 가족 역사를 기록하십시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방영된 연속극 “뿌리”와 “뿌리 제 2부”는 개인 및 가족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으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최근에 어느 중요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우리에게 이런 견해를 표시하고 우리와 협력하여 이 주제에 대한 도큐멘타리를 필름에 담았습니다. 1980년에 있을 세계 계보 대회는 개인 및 가족 역사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교회 회원과 기타 다른 사람들은 전 세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이것을 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족에 속한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왕족은 그런 영예를 줄 권능

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와 같은 권능을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가정 안에 그러한 품위 있는 명예를 간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베드로 전서 2: 9) 여러분은 가정 안에 이와 같이 거룩한 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왕족은 그 가족이 모두 정직하고, 참되고, 정숙하고, 인정 있고, 유덕하고, 온화하며, 인내하며, 사랑, 겸손, 근면을 갖추고, 많이 알고, 윤법에 충실한 가족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셨느니라”(교성 93: 40)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성 68: 28)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88: 118)

왕족은 잘 수양된 부모와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여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교성 89: 18-19)

왕족은 모범적인 가족입니다. 그들은 다른 가족이 따를 본보기를 보여 줍니다. 구세주는 자신을 충실히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 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밭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려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은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

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4-16)

왕족은 유산을 갖고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가족은 개척 시대의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여러 가족들은 그들이 참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유산은 가족 역사에 의해 가장 훌륭하게 영속됩니다. 가족 역사는 계승하는 세대가 계속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킴벌 대관장님은 개인 일지를 간직하고 계시는데, 개인 역사를 쓴 그 기록은 교회 문학에 귀중한 공헌을 했습니다.

개인 역사 기록은 자손들이 선조의 덕성과 개인적인 인품을 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가족의 보고가 됩니다. 그들의 선조는 그 혈통에 따라 다윗도 되고, 삼손도 되며, 모세와 아브라함이 됩니다. 가족과 개인 역사 기록을 쓰는 것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기분 전환 활동으로 여기에 흥미를 느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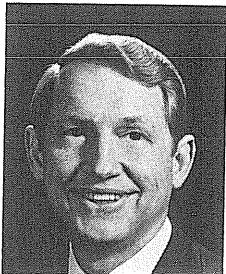
있으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성한 책임입니다. 참으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왕족은 반드시 세계의 여러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국에 국한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왕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부터 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중 이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족의 특성을 이루는 이러한 원리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수양하면 여러분의 생과 가족의 생은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 느끼는 이러한 풍요로움이 앞으로 올 세대에게도 영원히 지속되어, 우리가 참으로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왕족이 되어,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이 베림 받게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그리스도를 본받아 승리함

하트만 렉터 이세
칠십인 제일 정원회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축복을 구하며, 희생하고, 기적을 바라며, 겸손하게 기적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 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은 큰 명예요 특권입니다. 주님의 창조 사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님의 구속 사업은 이 지상에 살았으며 이 지상에 살게 될 모든 인간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지상에서 온전한 생활을 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았으나,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히 4: 15 참조) 이 같이 하여 주님은 죄악과 사방을 다같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의 사명을 이루었는가를 똑바로 알고 그의

본보기를 본받는 길을 추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명과 목적이 우리와 다르므로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구세주이시며, 우리는 구원받는 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인간을 위하여 중재해 주십니다. 주님은 구속주이며, 우리는 구속되는 자입니다. 그 차이를 열거하자면, 끝없이 길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구세주의 말씀은 지상에서의 주님의 사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 1: 39) 주께서 이 미 이루신 이 사명의 불멸의 뜻이 되는 부활은 실재하는 것이며, 누구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영생을 가져오는 일을 돋도록 허락받았고 권고와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물론 주님의 위대한 사명의 지속적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하는 일은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요 14: 12 참조) 하신 약속은 아직도 우리의 깃발을 울리며 경전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을 더해 줍니다.

경전을 연구해 보면, 그리스도의 생애는 위대한 성공의 공식을 풀어주는 것 같아 생각됩니다. 비록 내가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의 의미를 다 깨달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연구하여 알게 된 다섯 가지 기본 원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첫째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막 9: 23 참조) 확실히 우리는 어떤 일을 바라기기에 앞서 믿어야 합니다. 소망이 강하게 되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원리에는 또한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존심은 일을 성취시키는 데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존심은 자만심

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며, 자만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됩니다. 그것은 자만심을 가진 사람을 빼고는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재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길에 들어서 있다면 스스로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떠한 인간이든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순종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나도 역시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항상 시킬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편에 서서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면, 나는 자신에 대하여 좋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존중하고, 긍정적인 존재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말할 때 되도록 부정적인 날말이나 문장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인간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려 한즉.”(잠 23:7)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판론자가 되지 말고 낙천가가 되도록 하십시오. 낙천가와 비판론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전자는 적극적이고 믿는 사람인 반면에, 후자는 부정적인 의심하는 자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속담도 있읍니다만, 낙천가의 생각이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론자는 “나는 내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고 말하나 낙천가는 “내가 믿으면 보게 되겠지.”하고 말합니다.

위기에 처할 때, 낙천가는 행동을 취하나 비판론자는 주저앉아, 사태를 방관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원하지 않는 것임을 내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90:24)

복음의 제일 원리인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품는 생각은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2.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20-21)

우리는 그런 성구를 인용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선 여러 다른 관계자 즉, 행정부, 국가, 가족 또는 친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선교 사업을 할 때, 우리는 회원들이 구도자를 소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게 이런 불평을 털어 놓는 선교사들이 있었읍니다. “회원들이 나에게 한 사람도 소개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르칠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아, 그렇습니까? 회원들이 소개해 주지 않아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내게 말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회원들이 소개해 주지 않을 때는 잊어 버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스스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 시간이라도 아껴 부지런히 전도하십시오. 주께서 모두 해아려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주님은 땅에 충만해 있는 모든 것과 거기 거하는 모든 자를 다 소유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주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시 24:1 참조)

여러분에게 가르칠 구도자가 없다면 시장터나 거리나 아무 데든지 나아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에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행위는 자신감을 넣게 하여, 회원들은 그와

같이 유능한 선교사에게 자기 친구를 가르쳐 달라고 즐거이 소개시켜 줄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구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만난 것이 아니고, 전혀 예기치 않던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나무나 하늘에서 뛰어 내린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께 축복을 구하십시오. 주님만이 각양 각색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약 1:17 참조)

3. 회생을 치르십시오. 주님은 “공짜로 어떤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축복은 정해진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교성 130:21 참조) 주님은 어느 정도의 회생을 요구하십니다. 구세주는 우리에게 “십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십리나 떨어진 곳에 모든 축복을 두셨으니, 우리가 먼저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오리는 우리가 빚진 것으로 당연히 가야 할 곳입니다. 최근에 나는 최소의 것도 행하지 못하는 장로에게 그것을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빚을 지다니요? 나는 빚진 일이 없읍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숨을 쉴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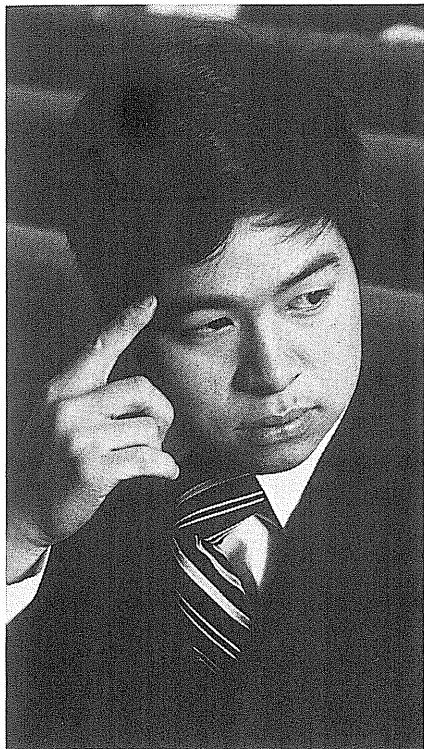
“예.”

“장로님은 그걸 노력하여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베냐민 왕은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매 순간 순간마다 밟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모 2:21 참조) 우리가 숨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린 일이 있읍니까? 사람이 숨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주님을 부릅니다.

회생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끝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생은 하늘 축복 가져” (찬송가, 185장)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주님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모든 일을, 필요하다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교성 123:13) 기꺼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 부동한 신념으로써 전디어 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 (교성 123:17) 려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과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후에 더 하는 행위를 주님은 진실로 소중하게 여기시며, 바로 그럴 때 축복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해 낸 것이라고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왕국에서 봉사하는 것에 관한 모든 경전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로 생각되는 것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는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 되어 누르고 혼들어 넘치도록 하여 저들이(역자 주 : 한글판 성경에는 이 말이 빠져 있음)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누가복음 6 : 38) 구세주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뜻은 받기를 원하면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일조를 바칠 때 받은 것에서 10페센트를 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구세주는 먼저 주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많이 받게 될 것인가?”(언제나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후회 되어 누르고 혼들어 넘치도록 하여...” 얼마나 듣기에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저들이란 누구를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만, 항상 저들이라는 날말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계시를 간구한다면, 주님은 감독에게 응답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감독이 있으니 천사의 방문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을 바치십시오.

4. 기적을 바라십시오. 우리는 대부분이 실제로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지 않으니, 그것이 나타날 때에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국민과 혈족

과 방언과 백성에게”(교성 77 : 8)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여러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부술 기적을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 장벽이 부숴질 때 들어가야 할 젊은이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우리와 이웃집 사이에 쌓인 담을 헐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빌어야 할 도움의 필요성을 간파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이 개종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음에 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어떤 스테이크에서는 최소한 1주에 50내지 100명씩 침례반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데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침례반을 일주일에 하루 저녁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또 회원들이 수수방관하며 선교사들에게 모든 새로운 개종자를 찾고, 가르치고, 우정을 나누는 일을 맡겨 버리고서는 이 일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모든 회원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예언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가장되시는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한 두 가족을 택하여 우정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들 중에서 교회에 소개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월요일이 아닌 다른 날 저녁에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가정의 밥을 갖도록 계획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를 가족이 관심을 보이면,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의 선교책임자와 시간을 조정하여 선교사를 집으로 불러 회복의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스펜서 더블류 킹볼, 친구가 필요하네, 교회의 회원을 위한 우정 증진 지침서, [소책자])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개종의 기적이 일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컴볼 대판장은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자연 발생적인 쉬운 전도 방법으로 당연히 서서히 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 현실적인 면에서 수 천명의 개종자는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쉬운 전도 방법”이라는 의미는 누군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 보기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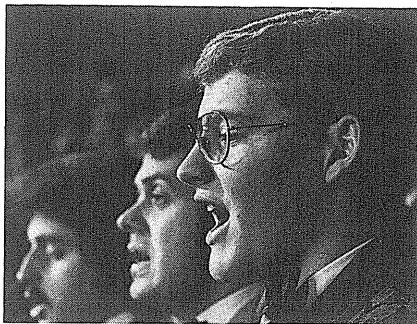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마음 가짐으로 일에 임해야 합니다! (그랜트 폴 해리슨, 선교사 지침서에 인용, 1977년 59페이지) 우리는 선교사와 성도들에게 지금 해야 한다는 정신을 갖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음의 폭을 넓히고, 걸음을 빨리하고, 높이 뛰어 오르고, 시야를 넓히고, 능력을 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기적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5. 겸손하게 기적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모세 4 : 2) 참으로, 겸손은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 하실 것입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교성 112 : 10)

이 달에 성공을 거둔 것은 이제 그만 중지하고 우리의 기록을 영화롭게 장식하는 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다음 달에 더욱 위대하고 고귀한 일을 성취시키는 추진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파이는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 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네이 25 : 23)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인간의 불멸과 영생을 가져오기 위한 구세주의 위대한 성공의 올바-



른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구세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힘이나라.”(마 20 : 28)

둘째,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바라십시오. 다시 구세주가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 : 5)

셋째,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 : 11)

넷째,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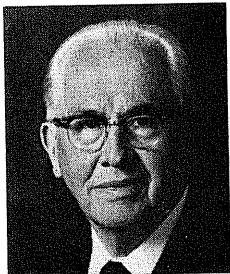
다섯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요 5 :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요 7 : 16)

이러한 올바른 원칙은 주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이며,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해당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지금은 희생의 날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희생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됩니다. 그것은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성약에서 나오는 희생이 포함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희생의 날이니,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되는 희생의 원리를 실천하려는 결의를 굳건하게 해줄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마음속 깊이 갈구하며 나는 결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과제를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1831년 9월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는 오늘이라 부르리니, 진실로 지금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날이라.”(교성 64 : 23)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신앙 강화에서 희생의 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훌륭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이 점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즉 모든 것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과 구원에 필요한 신앙을 냉을 충분한 권능을 결코 갖출 수 없읍니다.”(신앙 강화, 6 : 7)

내가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생각해볼 때면, 나는 선조들이 남긴 신앙과 희생의 유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아들인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선조 아브라함이 있읍니다. 그의 증손자인 요셉은 어린 시절에 크나큰 유혹을 받았지만, 세상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선조 리하이는 이 약속의 땅에 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미합중국을 세운 분들은 생명과 재산과 고귀한 명예를 걸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현대의 요셉은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인품과 명성과, 명예와 찬사, 가문과 가정, 땅과 가족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했습니다. 교회 초기의 개척자들은 땅과 재산과 고향을 버리고 이 산속의 계곡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을 치르시어,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앞서서 간 수만의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해 볼 수 있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하신 다음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와 한가지로 주님께 그만큼의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는 한 혀된 것입니다.”(신앙 강화 6 : 8)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희생의 날이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이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생한다 함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모두 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므로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다같이 적 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의 예언자인 모로 나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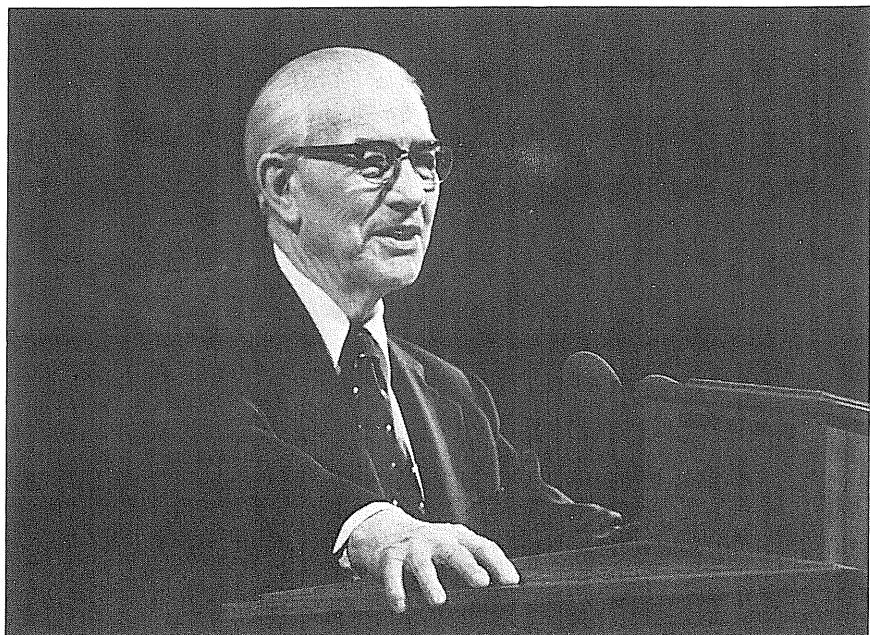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모로나이서 10 : 32)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흉없이 서도록 하라.”(니파이 삼서 27 : 20)

경건하지 아니 한 모든 것을 부인한다 함은 의식과 성약으로 그리스도 앞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윗자리에 모시는 생활을 하여 주님의 영을 막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한다 함

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교성59 : 8)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만드는 나쁜 습관, 흡연, 음주, 신성 모독, 거친 성품, 부도덕 성과 같은 나쁜 습관은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여러 훌륭하고 점잖은 사람들이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번은 이러한 훌륭한 분들 중에서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교회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담배를 손에 든채 나에게, “자네의 구속의 악한 점은 무엇인가?”하고 말한 적이 있었읍니다. 내가 그런 표현을 들은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구속의 한 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미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단계를 아직 밟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물본경에 나오는 고대의 왕이 “하나님이시여…제게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알아…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엘 22 : 18)라고 간구한 이 같은 회생의 감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회생한다 함을 기꺼이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에 관하여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젊은이가 성인이 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창조주를 섬기는 일은 하려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인생의 사업이나 직장을 구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모한 일입니까?”(지역 대표 세미나, 1977년 9월 30일)

2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일을 아직 결심하지 않은 젊은이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종주국이 되어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미국과 카나다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특히 지적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전례없는 번영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주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좋은 상황에 처해있는 지상에 보내신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분의 재능과 학력과 금전을 사용하여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내가 남미에 들려 여러 나라를 헌납하고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서 첫 번 스베이크를 조직하는 동안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훈련원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남미 원주민 청년들은 그때까지 저축해온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며 큰 회생을 치른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선교사 과에서는 각 청년들에게 최소한 여섯 별의 흰 샤쓰를 가져오라고 권합니다만, 대부분이 외국 태생인 이들 리하이의 자손들은 한, 두 별씩만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바치는 봉사 정신과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축복

은 그들이 치르는 어찌한 회생도 능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지게 할 수는 없읍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킴볼 대관장이 하신 다음 말씀은 여러분 각자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모든 말일성도 청년은 선교사를 마쳐야 합니다.”(엔사인 1974년 5월호, 87페이지) 우리는 여러분이 회생 제물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더 홀륭한 이름을 불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투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봉사입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28000명의 선교사 부대에 여러분을 초청하며, 그 수는 날로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회복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셋째, 회생한다 함은 주님의 집에서 엄숙히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남미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성도들이 가족을 영원히 인봉시키기 위해 치른 회생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로 전해 들으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종 어느 스테이크 부장은 폐루의 리마에서 상파울루 신전으로 가족을 데려 오는데 버스를 타고 보통 9일 걸리는 것을 버스 운전사의 스트라이크와 다른 문제가 발생하며 14일간이나 여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파울루에 도착하자, 곧장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하여, 인봉 의식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지체없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신전장은 그들에게 그날 밤을 머무르지 않겠느냐고 물었읍니다. 그 가족의 가장은 하룻밤이라도 더 숙식 할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곧 떠나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가족이 모두 여러 날 동안 밥을 굽어가며 여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 가족은 신전장의 권유를 받아 하룻밤을 지내고 떠나기 전에 조반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의 회생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나는 교회의 젊은 청년 형제, 자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의 결정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자녀와 여러분의 뒤를 이을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는 신전 축복의 성약하에 태어 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성스러운 것에 관하여 말씀드려 볼까요? 마음속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작은 방—어쩌면 아득한 거실과도 같은 방을 그려 보십시오. 중앙에는 벨벳과 레이스로 덮인 제단이 있습니다. 벽쪽에 의자가 놓여 있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의자에 앉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며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가 지켜보는 중에, 여러분은 배우자와 마주보며 제단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축복기도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로 함께 인봉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받은 것과 같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인 면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첫째 부활에 나아오라. … 그리하여 왕위와, 왕국과 주권, 그리고 여러 권능을 상속 받을 것이다. …여러 천사와 신도 옆을 지나가서 …각기 승영에 이르려…그 영광은 완전한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되는 것이리라.”(교성 132 : 19) 신전 결혼은 승영을 위한 복음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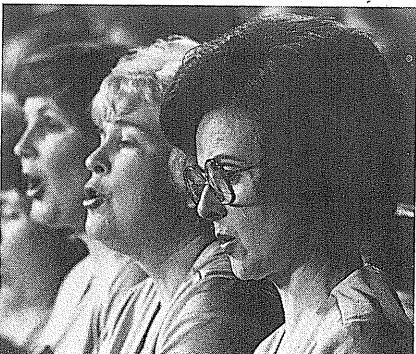
신전에서 합당하게 같이 설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여 행복을 조금이라도 쫓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곳이 바로 여

러분이 결혼할 곳이라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애정이 싹트기에 앞서 운명을 전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이 더욱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애정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러한 것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성약하십시오. 깨끗하고 도덕적인 생활, 그리고 성령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영원한 결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너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신전에 힘들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으며, 편히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서 충실히 복음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방법대로 결혼하려면, 거룩하지 아니한, 세계적인 모든 것을 기꺼이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 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행위로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보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이 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넷째, 회생한다 함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바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복과 발전에 대한 위대한 법칙을 구해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복음 16:24-25)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잃는 기회는 매일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고, 아버지는 그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시간을 내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합당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세속적인 즐거움을 버려야 하며, 자녀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 방문 교육도 하며 도움이 필요 한 사람을 위로해 주며, 교회 부름을 부지 련히 이행하고, 사회와 대중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일하며, 십일조, 금식 기금, 선교사 기금, 복지 기금, 건축 및 안전 사업 기금 등을 위해 현금도 해야 합니다. 참으로 희생의 날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의 하나는 자만입니다. 그것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하여금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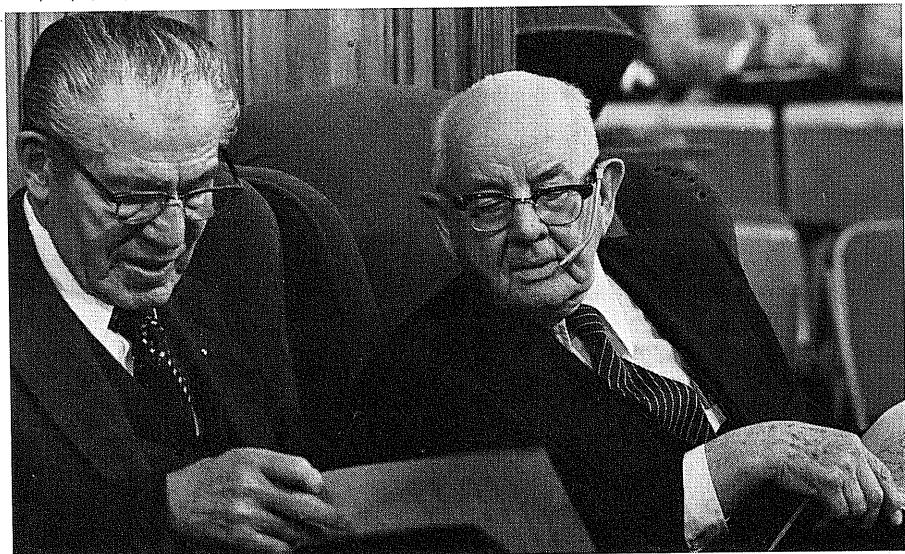
여 창조주나 그와 같은 분들에게는 무감각해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자신을 부인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잊어 버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충만한 생활에 이르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들었읍니다. 주께서 어느 한 자녀를 축복하실 때는, 그 자녀가 큰 희생을 치르어야 할 길에 들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947년 4월, 50페이지)

그렇습니다. 나는 희생이 하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지금은 주님의 백성을 위한 희생의 날입니다.

나는 지금이 희생의 날이며, 그것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시 4:5)라고 권고한 시편 작가의 말대로 행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주님의 군대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장차 선교사가 될 여러분은 이 특별한 시대를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축수할 것은 많습니다. 이 생애에서의 이러한 기회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밤 여기 모이신 형제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신권 소유자 모임 중 가장 큰 모임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기와 아울러 영감을 나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약 24년 전에 나는 이 텁풀 스퀘어 남쪽에 있는 어센블리 홀의 합창대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이곳에는 스테이크 대회가 열리고 있었읍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님과 엘마 소니 장로님은 우리 스테이크부장단을 재조직하라는 지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감독들을 포함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스테이크 대회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었읍니다. 우리 중 감독으로서 봉사했던 자들도 젊은이들과 함께 노래부르고 계셨읍니다. 우리가 첫 꼭복을 다 불렸을 때, 스미스 형제님

은 설교단으로 올라 오셔서 새 스테이크부장단의 명단을 발표하셨읍니다. 부장단의 다른 임원들은 그들의 부름을 알고 있었겠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읍니다. 내 이름을 부른 후, 스미스 형제님은 “몬슨 형제가 이 부름에 응한다면 지금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시다”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설교단에 서서 청중의 시선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막 불렸던 노래를 상기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소년아,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라”였읍니다. 나는 그 노래의 주제를 “소년아, ‘예’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라”로 바꾸었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저녁 갈구하고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읍니다.

보라 당당한 군대 깃발 휘날리며
인생의 전쟁 마당에 돌진해 나가네
단결되고 강하고 대담한 용사들
주 예수 대장 따라 합성도 드높게
이기세 이기세 주 우리 구원했으니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기세
이기세 주 예수 따라서
(찬송가, 69장)

신권 소유자들은 의로운 강한 군대—한 충성스러운 군대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인도를 받았읍니다. 최고 사령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행진 순서는 분명하고도 간결합니다. 마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음 말씀으로 우리의 목표를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초기의 제자들은 이 충성스러운 분부를 이행했읍니까? 마가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읍니다. (막 16:20)

가라는 분부는 지금도 폐지되지 않았읍니다. 오히려, 한층 강조되어 왔읍니다. 오늘 날 28,000명의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고 봉사하고 있읍니다. 수천명의 선교사들이 곧 더 추가될 것입니다. 9개의 새 선교부가 7월에 새로 조직될 예정이므로, 도합 175개의 선교부가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도전적인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읍니까!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존중하는 여러분들은 이 특별한 역사적 시대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애에서의 이러한 기회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최선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덕성을 갖도록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1. 봉사하려는 열망
2. 꾸준한 준비
3. 기꺼이 일하려는 열망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대의 일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가지 덕성들을 하나 하나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봉사하려는 열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는(교성 64:34)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일의 성역자는 다음과 같이 충고하셨습니다.

“자발적인 충동이 의무감보다 더 강해질 때 까지는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기쁘게 말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의무는 훌륭하게 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부른 것도 아니며, 여러분의 양친이 여러분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언과 계시

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읍니다. 여러분의 부름은 교회 대관장님의 서명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스펜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님이 교회 선교사 집행 위원회의 의장으로 계셨을 때, 다년간 그를 보좌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특권이었읍니다.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선교사 지명 회의는 영감으로 충만했고 간간이 유모어가 새어 나오기도 했읍니다. 나는 한 유망한 선교사를 위해 감독이 셨던 추천장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젊은이는 어머니와 매우 친근합니다. 젊은이의 모친은, 자기 아들이 웰리포니아 지방에서 선교 사업을 행하게 되어 그에게 매주 전화를 걸거나 종종 방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큰 소리로 읽은 후에 캠볼 대관장님께서 미리 정하신 임지를 발표하기를 기다렸읍니다. 나는 그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젊은이를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선교부로 가도록 명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입가에 떠오르던 자애로운 미소와 눈의 광채를 보았읍니다.

특별한 부름이 행운을 가져왔던 실례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감이 이런 신성한 임명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교리와 성약에 그토록 간결하게 천명된 진리를 인정합니다. “그려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받나니”(교성 4:3)

둘째, 꾸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 사업을 위한 준비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미칠 수 있는 시간 전부터 선교 사업은 시작되었읍니다. 초등협회, 주일학교, 신학연구원 중동부 안의 모든 밤에서도 선교사 준비를 할 수 있읍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라 한 소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은

장차의 한 사람의 생애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아론 신권 정원회 고문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고문 여러분,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받은 직책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청소년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내가 열 다섯 살의 소년이었을 때, 교사 정원회의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고문되시는 분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톰, 비둘기 기르기를 좋아하지, 그렇지 않니?”

“네”하고 나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는 “버밍엄 둘러 비둘기 한쌍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가졌던 비둘기들은 그랜트 국민학교 지붕 위에 있는 비둘기장에서 사는 보통 비둘기였습니다.

그는 이튿날 저녁 자기 집에 오도록 나를 초대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가장 긴 날처럼 여겨졌습니다. 나는 한 시간 전부터 그의 집에 도착하여 일터에서 돌아오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비둘기장으로 데려갔는데, 그것은 헛뜰에 있는 작은 혀간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비둘기들을 보았을 때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솟놈 하나를 골라봐. 그러면 세상의 어떤 비둘기와도 같지 않은 암놈 한 마리를 네게 줄께.” 나는 그의 말대로 솟놈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손에 자그마한 암비둘기 한 마리를 놓았습니다. 나는 이 작은 암비둘기가 무엇이 그리 다른 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조심

스럽게 봐라, 그러면 그 새가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걸 알게 될테니.”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한눈 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이의 습격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데려다 네 새장에서 키우도록 해라, 한 열흘 간은 안에서 키우다가 밖으로 내보내 봐라”고 그는 권고했습니다.

나는 그의 권고를 따랐습니다. 그들을 날려보내자 솟놈은 새장 지붕 근처를 활기 있게 날더니 벽이를 찾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의눈박이 암놈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고문인 해롤드 형제를 방문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의눈박이 비둘기가 형제님 새장으로 돌아왔지요?”

“이리와 봐, 그러면 알게 될거야”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엌 문을 열고 나와 새장쪽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톰, 너는 교사 정원회 회장이다. 나는 이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그려고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너는 봄을 활동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니?”

“금주에 열리는 정원회 모임에 봄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는 한 특별한 둉우리에 손을 넣더니 의눈박이 비둘기를 꺼내 나에게 건넸습니다. “2, 3일간 잘 키우다가 다시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나 또다시 그 비둘기는 달아났습니다. 전과 똑같은 말이 오고 간 후, 우리가 새장 쪽으로 걸어갈 때, 드디어 내 고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봄이 신권회 모임에 참석한 것을 축하한다. 이제 너와 봄은 빌을 활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니?” “우리는 금주 모임에 그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나는 자진해서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나는 실로 고문인 해롤드 형제가 나에게 한 마리의 특별한 비둘기를 선사했다는 것을 완전

허 깨닫기 전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새 장 속에 있는 그 새만이 풀려날 때마다 되돌아 오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2주마다 교사 정원회 회장과 이상적인 개인 신권 접전을 갖는 그의 영감에 찬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그 외눈박이 비둘기에게 많은 혜택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회 고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기회를 내가 선용하도록 도우려는 인내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일하려는 의지입니다. 선교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전력 투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경주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마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전 9:11)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일을 지속하겠다는 결의를 가지십시오. 많은 사람이 시작이나 끝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명예, 권세, 지위, 칭송은 자신의 일을 완수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일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가지십시오.

또한 그 일에 모든 정성을 쏟고 땀을 흘리며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정성과 땀과 미소를 그 균원으로 하여 잠시 후, 인생의 승리는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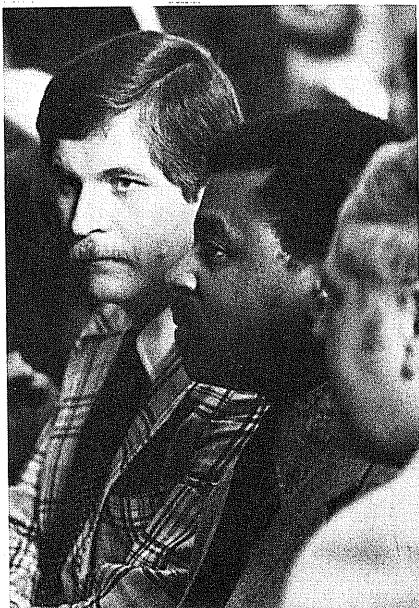
제2차 대전이 끝날 즈음, 나는 열 여덟 살이었고 해군으로 복무하기 위해서 떠나기 한 주일 전에 장로로 성임되었습니다. 우리 와드의 한 회원이 나를 전송하기 위해서 기차역에 나와 있었습니다. 작별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내 손에 책 한권을 쥐어 주었습니다. 내가 오늘밤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인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선교사 지침서였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선교지로 떠나는게 아닌데요.”

“어디로 가든 그것을 휴대하십시오. 아마 유용할 겁니다.”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가 말한대로였습니다. 기초 훈련 과정에서 우리 부대장은 커다란 해상용 가방 속에 우리의 옷가지를 가장 잘 넣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땅딸막한 장방형 물건을 휴대하고 있다면, 가방 맨 밑바닥에 놓아라. 너희의 옷가지가 더욱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다.” 나는 갑자기 장방형 물건인 선교사 지침서를 생각해냈습니다. 따라서 그 책은 12주 동안 내 옷가지들을 잘 보관해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전야에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집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사는 조용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옆 침대에 있는 동료를 의식했습니다. 그는 엘란드 메릴이라는 이름의 몰몬 소년인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메릴?”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병이 났어요. 정말 병이에요.”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위생실로 가라고 충고했읍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크리스마스 휴가에 집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스럽다고 대답했읍니다.

여러 시간이 흘렀읍니다. 그의 신음 소리는 더욱 커졌읍니다. 그때, 그는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읍니다. “몬슨, 당신은 장로가 아닙니까?” 내가 그렇다고 말하자 그는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칭찬했읍니다.

나는 한번도 축복해 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을 받아 본 일이 없었읍니다. 나는 이 같은 축복을 받은 일에 대해서 한번도 간증해 본 일이 없었읍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자 응답이 왔읍니다. “해상용 가방의 밀바닥을 보아라.” 그래서, 새벽 두 시에 나는 갑판 위에서 가방에든 물건을 꺼냈읍니다. 나는 그 채 딱딱한 장방형 물체인 선교사 지침서를 중야등 밑으로 가져다가 병자를 축복하는 방법을 읽었읍니다. 약 60명의 호기심에 찬 해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병자를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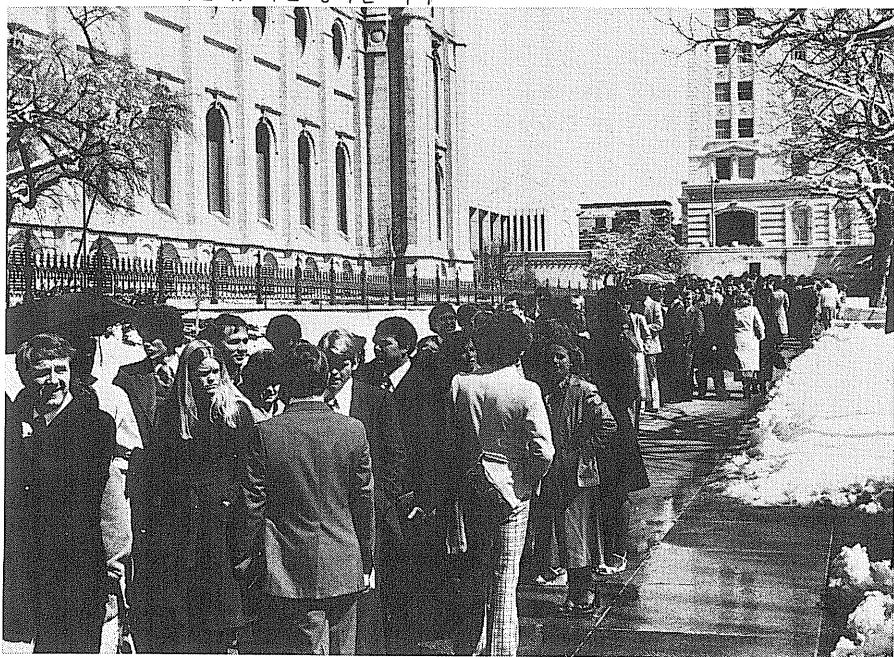
했읍니다. 내가 물건을 쟁겨 넣기 전에, 웰란드 메릴은 어린애처럼 잡들어 있었읍니다.

이튿날 아침 메릴은 미소를 띠우며 나에게 돌아와서 말했읍니다. “몬슨, 나는 형제님이 신권을 가지고 있어 기쁩니다.” 그의 기쁨 못지 않게 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읍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미래의 선교사들인 여러분들을 봉사하려는 열망, 준비를 위한 인내, 일하려는 의지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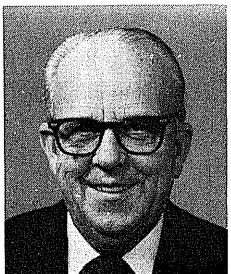
이것이 나의 열렬하고 진지한 기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그것을 간구합니다. 아멘.

*



개인 및 가족 재정 예비 프로그램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세가지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실 일조와 현금을 바치고, 빚을 지지 않고, 여 유 자금을 혁명하게 운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이 신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영을 느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를 갖게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스펠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나의 영이 이 지상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불멸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영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매일 일해야 합니다.

영원한 진보의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철학입니다!

페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특권은 은사이며, 일하는 힘은 축복이며, 일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진실한 신앙, 르웰린 알 맥케이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6년 287페이지.)

다음 몇 분간 나는 특히 아론 신권의 젊은 친구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미처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형성하게 되는 삶의 형태는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 훌륭한 형태를 세우는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나에게 일하는 기쁨과 십일조를 바치며 내가 번 돈보다 적게 써서 학비와 선교사 기금을 위해 얼마간의 돈을 저축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년 시절에 나는 양계를 하여 이웃집에 계란을 팔고, 잔디를 깍고, 벽돌을 쳐기도 했으며, 후에는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일을 해서 나는 내가 쓸 돈을 벌었으며, 그럴 때는 무척 어른과 같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 십일조를 바치고, 학비와 선교사 기금을 위해 저금을 한 다음 남는 돈을 내가 하고 싶은대로 썼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내게 십일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었으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드리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여덟 살 때 받았던 십일조 영수증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교훈은 더 어려서부터 배우게 됐다면, 그만큼 더 많이 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제껏 누려 온 많은 축복은 어려서부터 일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절약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학비와 선교사 기금을 위해 돈을 저축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젊은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거나 학교에서 열마만한 희생을 치르게 되면, 그는 대개의 경우 더욱 열심히 행복하게 그리고 더 성공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나이드신 신권 소유자와 젊은 형제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원으로 크게 축복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지상의 소유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은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교리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개인 및 가족 예비의 여섯 가지 면 즉 교육, 직업, 재정, 보건, 영적인 준비, 가정 생산품 및 비축 등으로 우리 지도자들이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도덕 및 사회 환경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경제 상태가 불안한 것을 감안해볼 때, 나는 개인 및 가족 재정 예비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큰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로 많은 불행이 아기되며 가정의 불행과 이혼에 이르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38 : 30 참조) 재정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는 재정 예비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세가지 기본 법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십일조와 현금을 바치십시오
2. 부채를 청산하고 빚을 지지 마십시오.
3. 잉여 자금은 혼명하게 운용하십시오.

이 법칙은 젊은이나 노인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십일조와 현금을 바치십시오. 주님은 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곧 십일조와 혈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에 들여...그것으로 나를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봇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 : 8, 10)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라.”(교성 64 : 23)고 계시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물질적, 영적인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개인 및 재정 예비 프로그램을 향해 첫 발을 내디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님께 정직해지는 한, 십일조 금액을 얼마나 지불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나 어린이가 바치는 한푼은 부자가 바치는 많은 재물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중요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님께 정직하게 십일조와 혈물을 바치면, 주님은 정직하지 않게 십일조를 바쳐 더 많은 금액을 남겨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풍족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은 영적, 신체적, 정신적 및 물질적인 여러 면에서 축복을 받고 번영하게 됩니다. 나는 이 사실이 참됨을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임증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 : 35)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둘째 법칙은 부채를 청산하고 빚을 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현대 계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같이 명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부채에 관하여 거듭 이르노니, 보라 너희가 부채를 청산함은 나의 뜻이니라.”(교성 104 : 78) “진 빚을 청산하여

속박에서 벗어나라.”(교성 19:35)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청산하고 빛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재정적 영적인 면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대회보고, 1903년 10월, 5페이지)

빛을 청산하고 빛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 및 가족적인 면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의 한도내에서 생활하십시오
2. 단기 및 장기 예산을 세워 활용하십시오.
오.
3. 여러분의 수입에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십시오.
4. 꼭 필요한 경우 이외는 빛을 지지 마십시오. 예를 들자면, 집을 살 때나 교육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금액을 빌리는 것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5. 현명한 세금 및 부동산 계획에 따름으로써 재산을 보존하고 활용하십시오.

이와 같이 간단한 원리에 따름으로써, 부채를 청산하고 빛을 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및 가족에게 무슨 의미를 주겠습니까?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고 가정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수입의 한도내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어지럽히고 실망과 낙담을 주는 한 가지 일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는 빚과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상호부조회지, 1932년 5월, 302페이지)

형제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범죄은 여유 자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살펴볼 때, 인간을 참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지상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는 것입니다. 지상의 재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거스리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이해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브리검 영 대관장은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이 세상의 부를 합당하게 사용할 준비를 한다면 주님은 그러한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가 더욱 근면하고, 신중하며, 경영과 경제 능력을 풍부하게 키워,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바치게 되기를 바랍니다.”(설교집, 11:114-15)

이러한 가르침이 널리 실행되어 재산과 생활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족과 이웃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떻게 그 가르침을 활용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아는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함을 나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은 우리의 영원한 복지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경제적인 면과 마찬가지로 영적, 정신적, 신체적인 면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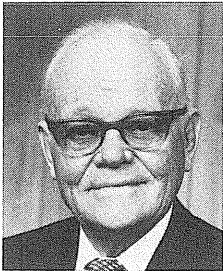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직한 심일조를 내고, 일하는 습관을 기르며, 절약하여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고 또한 우리의 재산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저녁에 이 위대한 원리를 실천하기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속주가 되시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능과 함께, 복음이 완전한 형태로 회복되었으며, 오늘 날에도 이 교회에는 살아 있는 예언자, 사랑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계시다는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의 권고를 받아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의지함

매리온 지 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요”

나는 특히 아론 신권 소유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엘마가 아들에게 긴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요 마지막 날에 높이 들어 올리시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이라”(엘 36 : 3)

우리도 누구나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히 젊은 아론 신권 소유자는 아직 젊은 동안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켜지혜의 말씀에서와 같이 특별한 생활 태도에 대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을 받을 권리리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지금이라도 하

시기를 권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여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وض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 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 : 18-21)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지나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을 석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애굽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출 12 : 29-30)

그러나 사망을 좌우하는 권세를 가진 멸망의 천사도 주께서 지시하신데로,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뿐인 이스라엘인의 집은 그대로 지나쳤읍니다.

지혜의 말씀이나 다른 성우에서 찾아보면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도 지상의 주민들 가운데도 멸망의 천사가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주님은 1831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모든 육체가 주앞에서는 썩었으며, 흑암의 권세가 이 지상을 덮었으므로, 이들 천사들은 “가라지를 모아 태워버리려고 세상을 추수하라는 큰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교성 38 : 12)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1894년에 우드럽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하나님은 여러 해 동안 멸망의 천사를 불들이 두셔서 그들이 가라지와 함께 밀을 거두지 않게 하셨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니와, 그 천사들

이 하늘 문을 떠나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임하여, 지상에 심판이 내려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그들은 이 지상에 내려질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재난과 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곧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프로브먼트 이라, 1914년 10월호, 1165페이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하여 주께서 주신 계시를 알고 이해하여,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켜 순결하게 된 육신을 지니게 되면, 이러한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과 같이 우리를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데 따르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십일조의 법을 지키는 데 따르는 축복은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따르는 약속과 거의 같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땅의 수확에 관한 것입니다. 오래 전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당시 위대한 사도의 한 분이셨던 제임스이 텔매지 장로의 말씀을 듣고서 깊은 감명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은 그 수확의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성결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땅은 신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땅의 요소와 자연력과 인간의 행위에는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대회 보고, 1929년 10월, 68페이지)

이 말씀은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계곡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지구상에서 누구도 이곳에 와서 생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우리도 이 땅에 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땅과 물과 공기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으며, 그리하여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여 많은 수확이 나게 되었습니다.”(설교집, 12:288) 십일조를 바치는 데 따르는 또 하나의 보상은 곡물 보험과 같습니다. 다음 성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만군의 주가 이르시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
도록 봇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주가 이르시노라. 내가 너희를 위
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땅의 소산인 열매
를 떨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
밭의 포도 열매를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니 삼 24 : 10-11)

주께서는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자기
의 가진 것을 후하게 내 놓는 자들을 번성케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랜트 장로의 굳
은 신앙은 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읍니다.
수십년 전에 나는 그 분이 금식 모임에
참석했는 데, 그 모임에서 감독이 현금을 호
소한 일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청년이던 그랜트 대판
장은 주머니에 은행에 예금할 돈 50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독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 50불을 전부다 내놓았읍니다. 감독은 그 중에서 5불만 예고, 5불이면 그의 몫은 충분하다고 말하며 나머지 45불을 돌려 주었읍니다. 그랜트 대판장은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율리 감독님, 감
독님은 무슨 권리로 내가 주님께 축복을 받으려는 것을 막으려 하십니까? 감독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께서 4배로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읍니까? 나의 어머니는 혼자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데 200불이 필요 하십니다.”

“저런” 감독이 잘못했읍니다. “내가 나머지 45불 마저 받는다면 곧 200불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물론입니다.” 하고 그랜트 대판장은 대답 했읍니다.

그것은 감독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신앙의 표현이었읍니다. 그는 나머지 45불도 받았읍니다.

그랜트 대판장은 금식 모임을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발한 착상”이 떠올

라, 그것을 실천하여 그는 218불 50센트를 벌었다고 간증했읍니다. 몇 년 후에 이 사
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 일은 어쩌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
리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의무를 다 이행하면, 주
께서 하늘 문을 여시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축복을 주시는데, 이는 육신적인 것보다 훨
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는 굳게 믿
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
으로도 축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임프로
브먼트 이라, 1939년 8월호, 457페이지)

십일조를 바치는 데 따르는 더욱 큰 보장은 구세주의 재림에 따르는 불길에 타 오르지 않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5편에서, 주님은 그의 백성이 십일조를 내는 목적은 “웅정과 불타는 날에 대비하게 하려는 것”(3절)이라고 설명하시고, 또 64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자가 올 때까지는 오늘이라 부르리니, 진실로 지금은 회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이 십일조의 날이라.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인자가 올 때에 불타게 아니하리라.”(교성 64 : 23)

나는 주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시몬에
보이는 모든 자는 그 법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땅의 주민으로 거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일조가 반드시 시몬의 땅에 거하는 주민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 왔읍니다. (교성 119 : 5 참조)

자, 이제 내가 여러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세번째 특별한 계명은 “잔음하지 말라”(교성 42 : 24)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앤마가 그의 아들 코리엔튼
에게 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 다음으로
가장 가증한 죄라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 39 : 3-5 참조) 또한 바울이 고
린도인에게 보낸 서한 이러한 말씀이 들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전 3 : 16-17)

몇년 전에 대관장단은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깨끗이 죽는 것이 더럽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대회 보고, 1942년 4월, 89페이지)

나는 나의 선친께서 부정한 행실의 가증함을 얼마나 내 마음속 깊이 심어 주셨는가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선친과 함께 1920년 11월 12일 이른 아침에 아이다호 주 렉스 버스의 기차역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적 소리를 들으며 3분 뒤에는 내가 선교사 임무를 수행 하여 호주로 향하는 길에 오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선친은 내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집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구나. 그러나 네 어머니와 나, 네 형제 자매들

은 항상 너를 생각하고 기도하여, 네가 성공하면 우리도 기뻐하겠고, 네가 낙망하면 우리도 슬퍼할 것이다. 네가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는 기쁘게 너를 맞이하겠고, 온 가족이 영접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잊지 말아라. 네가 덕성을 잃고 더러운 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차라리 네 육신이 판에 들려 이 기차에 실려 오는 편을 바라겠다.”

나는 때때로 그 말씀을 음미해 봅니다. 그 당시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결코 그 말씀을 잊어 본 적이 없읍니다.

나는 순결하고 덕 있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여러 종류의 미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보상을 말씀하셨으나, 나는 마음이 순결한 자에게 가장 큰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 : 8)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면전에서 편안한 마음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 지리니,” (교성 121 : 45)

덕성에 대한 보상과 부정한 행실의 결과는 요셉과 다윗의 생활에서 극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으나 아무리 큰 유혹이 닥쳐와도 참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보상으로 그는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으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총애 받은 두 지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대체로 그의 후예로 헤아림을 받게 된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주님의 큰 총애를 받았으나, (사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혹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정한 행실은 살인까지 하게 되어, 그 결과 그는 가족과 승영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성 132 : 39)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부탁을 새로이 하는 이외에 다른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하기 시대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칭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생각했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무력하다 말했습니다. (말 3 : 14-15 참조) 우리는 말하기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면전에서 기여의 책이 쓰여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아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은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나, 주께서 의인에게는 영화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의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 3 : 17~18, 4 : 1~2)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그와 같이 행한다면, 현재는 이 약속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해도 곧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선행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며 다만 온유하여 마음을 낮추기를 가르치리니, 그렇게 하는 자만이 자기 영혼의 안식을 찾을 것임이라.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고 엘마는 말했습니다.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지키기를 배우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구하고 너희 행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합당하도록 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뜻대로 하며 너의 생각하는 것도 주의 뜻을 따르게 해야 할지니 너의 마음의 사랑을 영원토록 주님께 돌리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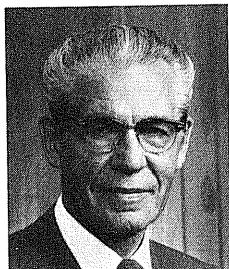
“행하는 모든 일은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시겠음이라, 네가 밤에 누울 때 주님과 함께 하면 잠자고 있을 동안 주께서 너를 살펴 주실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희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할진대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라.” (엘마서 37 : 34-37)

젊은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엔 웰顿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유혹의 순간이 닥치기 오래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 와 같이 많은 남성의 무리가 가장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모인 것을 보니 내 마음은 참으로 영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전 세계에서 1,547곳의 건물에서 함께 모였을 모든 신권 소유자가 생각되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수행하도록 위임 받은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이 신권의 군대는 얼마나 위대한 무리입니까, 이 모임의 목적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싸움끝나는 날까지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가사는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와 일치되는 것

입니다. 우리 신권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몇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싸움끝나는 날까지 다 응모한...
예비된 금관보아라 병사들아
우리 승리하고 곧 쓰세.
급히 달리세 전쟁터로
진리로 투구 방패 삼고
깃발을 높여 당당하게...

우리 대장이 날 부르니
일자일촌들 지체하랴.
구세주 위해 가 싸우세...

천국을 위해 세상이 적 되나니...
임대하여 노래하며 진군하니
승리의 때 멀지 않도다.
두려워할 것 하나 없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격려하니.

(찬송가 99장)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한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파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판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려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쥐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고 의의 홍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11-18)

오늘날 이 세상은 몹시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말씀

한대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죽기를 무릅쓰고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엡 6 : 12) 대 한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에베소인들에게 경고한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인 바, 우리가 주위에 널려있는 악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경전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킴을 뜻하는 그러한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악한 자 또는 적대자를 대적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삼상 17장 참조)

블레셋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여, 블레셋사람 골리앗은 이스라엘측에 자기와 싸울 사람을 보내라고 도전하며, 진 편은 이긴 편의 종이 되기로 제의해 왔습니다.

골리앗은 머리에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갔습니다.

한편, 다윗은 다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그와 싸우게 하려 이스라엘인들이 보낸 이 청년을 보고는, 경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삼상 17 : 44-46)



그런 뒤,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로 끌리앗의 옥신 중에서 가리지 않은 부분인 앞이마에 던져, 끌리앗을 쓸어 뜨렸습니다.

조금 전에, 롬니 부대관장님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약점이 있는 곳과 계명을 지켜 스스로 보호를 하지 못한 곳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보호를 받은 다른 한 예는 애굽으로 팔려 간 요셉의 생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 37, 39-47장 참조) 어려서부터 그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충실하고 참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부친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으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모의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르우벤이 그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고 제의하여 그를 구덩이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구출되어 애굽으로 팔려가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은 곧 요셉의 사람됨을 알아 보고 그에게 자기 소유를 다 위임하여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창 39:6)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의 처가 그를 원하여, 함께 있고자 했으나 요셉은 그녀가 접근해 오는 것을 거절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녀가 그의 옷을 잡으니, 그는 자기 옷을 그녀에게 내버려 두고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그녀는 그를 모함하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거짓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 곳에서 여러 해를 보낸 후에, 그는 바로 왕 앞에 팔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박사와 솔객들을 모두 불러 들였으나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서 요셉이 해몽한 대로

실현되었던 일을 기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꿈꾼 것을 요셉에게 말하니, 그는 그것을 능히 해석하여 애굽 땅에 7년간 풍년이 든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겠다고 말하고, 왕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그 꿈을 통해 바로에게 지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여, 그 직책을 맡아 그는 후에 그 자신의 가족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으며 하나님은 그가 고난받는 중에도 그와 함께 하시어 능히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고 도움과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여,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항상 생각함은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혹의 순간이 닥치기 오래 전에, 우리는 담배, 술, 부도덕한 행위 또는 주님의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물리쳐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종류의 약점과 유혹을 받고 있어,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살펴 보고, 어떠한 약점이 있는가를 찾아 보고, 옳은 일을 행하고 유혹에 굽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인지 늘 점검하고 그 곳을 방비해야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보호를 받은 사람 가운데 다니엘보다 더 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단 1~2, 6 참조.) 그는 몇 명의 이스라엘의 선 백된 자손들과 함께 느브갓네살 왕의 부름을 받아 왕궁에서 생활하며 어떤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왕 앞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를 포함하여 가장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및 아벳느고라 불리운 세 친구는 왕이 먹고 마시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책임맡고 있던 환관장은 왕이 내려주는 산해진미를 먹지 않아서 그들이 혹시 초췌해지고 동료 소년들만 못하게 되면 왕이 매우 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열흘 후에 보니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욱 윤택하고 건강해 보였으므로, 그들은 계속 채식을 할 수 있게 허락되었습니다.

삼년이 지나, 그들이 왕 앞에 서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자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십배나 더 나은 줄을 왕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약속 중에도 이와 같은 위대한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성 89 : 18-21)

이러한 약속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브갓네살 왕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을 풀지 못하여 번민했습니다. 그는 다니엘과 그 친구를 포함하여 모든 박수와 술객들이 그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몽하지 못하므로 모두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잠시 여유를 주면 꿈과 해석을 말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이 주님께 간구하니, 그 비밀이 그에게 시현으로 계시되어 그는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나타내신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그 목적은 왕에게 어떤 사건이 그의 왕국에 발생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은 이 세상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크게 감명을 받고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단 2 : 47)



다니엘은 계속하여 두 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왕의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여 다니엘을 참소할 이유를 찾고자 했읍니다. 그들은 아무런 구실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왕에게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기 한 금령을 정하게 했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겠지요. 이런 금령이 정해졌음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이 눈에 띠어 왕 앞에 끌려 나오니, 다니엘을 염려한 왕은 금령을 정한 것을 탐탁하게 생각지 않고 다니엘을 놓아 주고자 했으나, 그는 예대와 바사의 규례는 어떠한 금령도 바꿀 수 없고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니, 이에 마음이 아픈 왕은 그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아 너를 구원하시리라” (단 6 : 16)고 말했읍니다.

왕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맞이했읍니다. 다니

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의 하나님아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단 6 : 22)

왕은 크게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옮겨내고 그를 참소한 자들을 던져 넣으니, 그들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곧 잡혀 먹혔읍니다.

모든 계명을 지킨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계속하여 계명을 지키고 또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보호받은 것으로 알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읍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대한 지식과 신앙과 간증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전을 연구하고 있읍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합니까? 우리는 악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읍니까? 우리는 지혜의 말을 지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십입조를 바침니까? 우리는 집회에 참석하고 지도자의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신과 행위가 성스럽고 깨끗하고 순수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악한 것들을, 의설물, 담배, 알콜성 음료를 멀리하고 있읍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용기를 가지고 있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참으로 말할 수 있읍니까? 우리는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며, 남의 협답을 하거나 협뜯고 군거없는 소문을 펴뜨리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상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면, 우리의 갑옷은 약하다는 증거가 되며, 공격받기 쉬운 무방비한 틈이 있어,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면 항상 그 틈을 노리는 사탄에게 굴복하고 파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신갑주를 찾아 보십시오. 방비나 보호되지 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빠진 곳이 있으면 지금 곧 더해 넣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아무리 낡아빠지고 빠지는 부분이 있다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능히 그 갑옷을 완전히 보충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위대한 원리를 통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십시오,

이제 신권의 맹세와 성약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니, 그것을 우리가 준수하여 지키면 방패와 보호를 받게 되고, 충실한 자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된 축복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총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



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교성 84 : 3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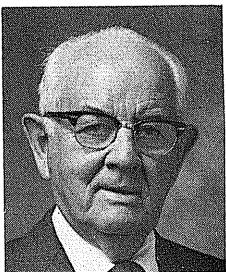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는 그의 영의 자녀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바치시어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니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권을 갖고 있으며, 교회의 발전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니, 우리는 현대의 예언자이신 스펠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우리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를 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함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판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귀감이요 안내자요 친구입니다. 그만 못하지만 사도들과 예언자들도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밤 주님의 종들의 진리와 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밤 경청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님은 교회 대판장 중의 한 분이신 윌포드 우드럽 대판장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내가 읽은 우드럽 대판장의 몇 가지 경험담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모임을 마치기 전에 두세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험담은 모두 그가 아론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기에 겪은 것이었습니다.

우드럽 대판장은 이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었읍니다. 주님은 그에게 많은 꿈과 시현을 보여 주셨읍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천 명의 개종자를 침례하였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우드럽 대판장 보다 성령의 인도를 더 많이 받은 사람도 별로 없읍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고, 전생애 동안 용감하고 진실하였으며, 주님의 섭리에 따라 교회의 제4대 대판장이 되었읍니다. 1893년 솔트레이크 신전을 현남한 분도 바로 그분입니다. 미국 전립 지도자들이 세인트 조지 신전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들을 위해 신전 의식을 집행해 줄 것을 부탁했읍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한 일은 매우 진기한 것이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종류의 기적과 시현과 계시는 참으로 진기한 것이었읍니다. 미국 헌법을 기초한 이들은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으나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의롭고 훌륭한 분들이었읍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경하고 흠토한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하고 그는 그의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 삼 27: 27) 그리스도는 우리의 귀감이요 안내자요 본보기요 친구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되어 항상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만 못하지만 예수님이 생활하신 것처럼 생활하시는 사도들과 예언자들도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다시 이 특별한 시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드럽 대판장은 그곳의 신전 역원들을 통해 이 사람들이 그들의 엔다우멘트와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 보았읍니다. 그들의 아내도 들어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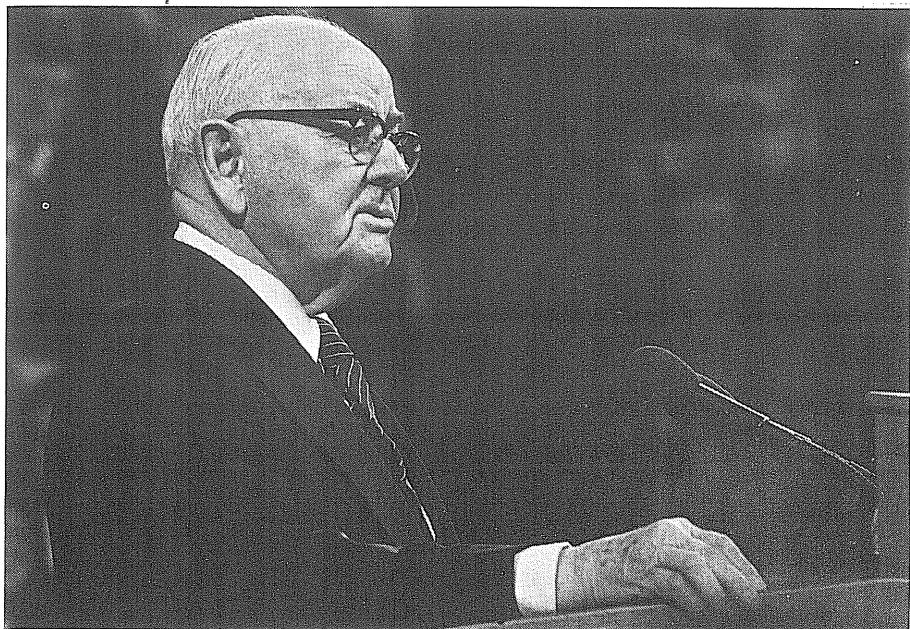
이 일이 행해지기를 열망하는 여인들을 위해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로이든 지 테릭 장로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전 사업에 대해 말씀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영의 세계에는 수백 만명이 이 같은 일이 자신을 위해 행해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자리에 머물려 있음을 깨닫고 있읍니다. 신전 사업이 그들을 위해 행해질 때까지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읍니다.

우드럽 대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 처음 들은 설교는 1833년에 연로한 지려 렐시퍼 형제님이 한 것이었읍니다. 그는 80여년간 살다가 남부에서 세상을 떠났읍니다. 그 설교는 내가 소년 시절부터 잔구하면 것이었읍니다. 나는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의 진실됨을 확신하는 간증을 얻었읍니다. 나는 그 간증을 마음속으로 확실히 느꼈읍니다. 그는 우리가 뉴욕주 오스웨고군에 소유하고 있던 농장에 위치한 학교에서 설교했읍니다. 학교에는 사람들이 꽤

찼읍니다. 나는 무엇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앞에 있는 진의자 위에 서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웃과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들(그들은 두 사람이었읍니다.)과 그들의 간증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에게 진리를 간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내가 소년 시절부터 찾고 있던 원리입니다.

“나는 나아가서 칠판을 받고 교사로 성임 받았읍니다. 나는 먼저 집사가 되지 못한 것을 늘 섭섭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는 내가 나의 합당성에 따라 신권의 여러 직분을 소유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읍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복음을 듣고 싶어하였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나의 이웃에게 전파하는 특권과 권리(?)를 갖기를 원했읍니다. 나는 물방앗간을 경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물방앗간에서 한밤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빛과 진리를 받기 위해 주님께 잔구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윌포드 우드렵, 지 호머 더럼 발췌,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46년, 304페이지)

우드럽 대판장은 1807년 3월 1일에 탄생했습니다. 그는 26세 때인 1833년 12월 31일에 침례 받았으며, 1834년 1월 25일에 교사로 성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진리를 알기 위해 어려서부터 기도하였으며, 청년기에는 많은 밤을 보내며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고,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전파하는 복음을 즉시 믿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이 선교사 부름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젊은이는 선교사로 나가기를 열망하고, 그 부모님은 자녀들을 모두 양육한 후에 선교사 부름을 마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우드럽 대판장의 두번째 경험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1세 때 나는 매우 흥미있는 꿈을 꾸었읍니다. 이 꿈의 일부가 그대로 성취되었읍니다. 이 꿈에서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들어가야 하는 장소인 큰 심연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세상의 재물을 모두 떨어뜨려야 했읍니다. 나는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포플린 천으로 만든 양복을 입은 노인을 보았는데, 그는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았읍니다. 나는 그 노인이 등에 무엇을 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짐을 더미 속에 던져야 했읍니다. 그 당시 나는 소년에 불과했읍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몇년이 지나고 나서 나의 부모는 파밍턴으로 이사했읍니다. 거기서 나는 그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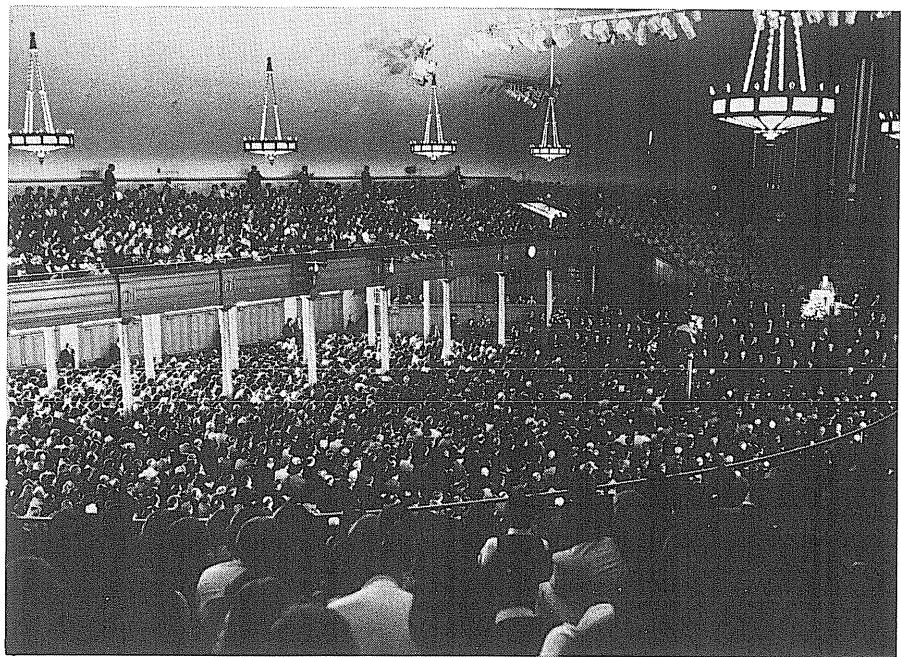
을 보았읍니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그를 알아차렸읍니다. 그의 이름은 촌시 레밍이었읍니다. 그후 몇 년이 지나 그는 병에 걸려 사망했읍니다. 나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읍니다. 그는 진실로 여러분이 수천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는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었읍니다. 판이 무덤 속으로 내려질 때 오래전에 꾼 꿈이 내 머리에 떠올랐읍니다. 그날 밤 그의 사위가 그 노인의 집 지하실에서 10만 달러를 발견했읍니다. 나는 다만 이 꿈에서 진실한 특정한 사실이 나에게 명백히 나타났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주민이 무덤으로 갈 때 그들의 재물을 남겨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면이 내 앞에서 사라진 후 나는 큰 신전에 옮겨졌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 불리였읍니다. 나에게 온 첫번째 사람은 삼촌인 오웬 우드럽이었읍니다. 숙모도 신전에 들어가도록 도와 주었읍니다.

“세월이 흘러 복음을 받아들인 후 테네시 주로 선교 사업을 하려 가면서 나는 패턴 형제에게 나의 꿈에 관해 이야기했읍니다. 그는 나에게 몇 년 안되어 내가 숙부에게 침례를 줄 수 있으리라고 말했읍니다. 그 일은 그대로 성취되었읍니다. 왜냐하면 그후 나는 나의 삼촌과 숙모와 그 의사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나의 부친과 계모와 이복 자매 그리고 감리교 목사인 반 지도자에게 침례를 주었기 때문이었읍니다. 사실상 나는 부친의 집안의 모든 사람을 침례했읍니다. 나는 다만 생활하다 보면 꿈이 실현될 때도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283—84페이지)

엘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천사를 시켜 그의 말씀을 모든 사람, 곧 남자와 여자에게 전해 주시며 이뿐만 아니라 여러 번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어 지혜있는 자와 학식이 있는 자를 당황하게 하시느니라.” (겔 32: 23)고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 경륜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나이는 14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17세가 되었을 때 모로나이는 그를 방문하고 물론경으로 번역된 금판이 묻혀 있는 곳을 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복음을 공부하고 자신을 준비해야 하며, 가능한 한 부지런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세번째 경험담에 대해 생각해 볼시다.

“…내가 교사 직분을 소유하고 있을 동안 나는 시온의 진영에 속해 미주우리주로 갔읍니다. 미주우리주에 도착하여 많은 시련과 환란을 겪고, 콜레라가 퍼져 15명의 형제가 죽어 물히기도 했는데, 그후 우리는 라이먼 와이트 형제의 집에서 머물렀읍니다. 라이먼 와이트 형제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나는 예언자와 테이비드 휘트먼과 올리버 카우

드리와 그 밖에 교회 지도자인 형제들과 함께 평의회 모임에 참석했읍니다. 테이비드 휘트먼 형제가 시온의 스테이크의 스테이크부장이었읍니다. 요셉 형제는 몇몇 다른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를 매우 날카롭게 꾸짖었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읍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읍니다. 나는 어느 일요일 밤에 혼자서 빠져 나와 마을에서 몇 백 야드나 떨어진 히코리 나무 숲속으로 가서 주님께 복음을 전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간구했읍니다. 나는 이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서 복음을 전파하려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나의 입장에 처하여 행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겪지 않으면 안될 모든 일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읍니다. 내가

바란 것은 명예도 부도 아니었으며, 더우기 금도 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권세로 나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소망을 품고 있었읍니다. 나는 주님께 그려한 특권을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으며, 나의 소망은 허락되었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나는 걸이 나 있지 않은 곳을 약 2백 야드쯤 걸었습니다. 내가 걸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저지 히비 형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드럽 형제님, 주께서 형제님의 의무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임받는 것이라고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셨다고요?’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주님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나가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일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라이먼 와이트 형제의 집에서 열린 평의회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나는 부름을 받고 아론 신권의 제사 직분에 성임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형제들은 장로로 성임받았습니다. 나는 패트리지 감독에게 남부지방으로 선교 사업을 하려 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패트리지 감독은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많이 했으며, 나 역시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형제들이 [미주우리주] 잭슨군을 지나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아악산으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잭슨군을 통과해야 곧장 갈 수 있었습-

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갈 동반자는 장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할 신앙을 갖고 있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신앙이 없읍니다.’

“나는 감독의 말이 호기심을 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주님은 우리가 전대나 돈지갑을 갖지 않고 여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윤법입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할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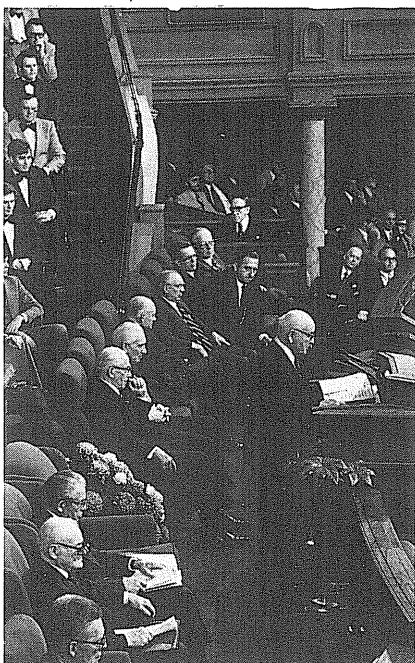
“그는 자기에게는 잭슨군으로 들어갈 신앙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발하였고 잭슨군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어버릴 뻔하였지만 기적으로 간신히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악산과 다른 지방에 까지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에 관해 길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순히 내가 제사로서 나갔고, 나의 동반자는 장로였으며, 우리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누구든지 자기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면 그가 제사인가 또는 사도인가 하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제사는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내가 제사 직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 사도나 칠십인이나 장로의 직분으로서 주님의 보호를 더 많이 받은 적이 나의 생애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시현과 계시와 성령으로써 내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298-300)

우드럽 대판장은 교사였을 때 선교사로 나갈 특권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사였을

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주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셨으며, 그에게 많은 시현과 계시를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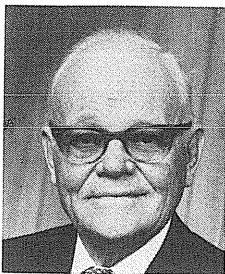
나는 끝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신권을 소유한 형제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나는 오늘밤 이곳에 참석한 모든 성인 남자와 소년이 자기들에게 부여된 신권과 특권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끝마치면서 이 세상의 온 땅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와 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어머니에게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간증을 지키고 혼신적이며 충실한 자가 되도록 당부합니다. 나는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이 일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임

매리온 지 룬니 부대판장
대판장단 제 2 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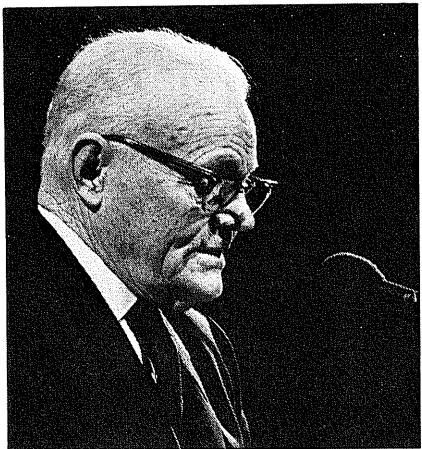


주님의 계시는 이 교회가 “온 땅 위에 세워진 참된 살아 있는 교회임”을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친구되시는 비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흔히 물론 교회라고 불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4월 연차 대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이라는 칭호는 우리가 물론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회원에게 붙여진 것입니다. 이 책은 금판에 새겨진 고대 기록을 번역한 것입니다. 1827년 9월 한 천사가 21세의 청년인 요셉 스미스에게 이 금판을 넘겨 주었습니다.

천사가 처음에 금판에 관해 요셉에게 충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요셉 스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신 천사 모



모로나이 임을 밝히고...

“그분은 이 대륙에 먼저 살았던 백성들의 기사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관한 기사가 금판에 기록된 책이 묻혀 있다고 전하면서 이 책에 온전한 복음이 또한 적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또한 읍내에 우림과 둑밈이라 불리우는 보석이 가슴판에 연결되어 금판과 함께 감추어졌다고 하시며 고대에는 이 보석들을 친히 사용하는 사람이 선견자가 되었으며, 책을 번역하는데 쓰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 33-35)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은 기록을 번역했으며, 1830년에 번역된 기록에 물본경이라는 제목을 붙여 이를 출판했습니다.

기록에는 물본이 모로나이의 부친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었읍니다. 그는 그 시대의 유능한 군 지휘관이요 박식한 역사가요 위대한 예언자였읍니다. 그는 주후 4세기의 후반기에 미대륙에 살았읍니다. 책명에 그의 이름이 붙여진 것을 그가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편집하고 요약했기 때문이었읍니다. 그가 요약한 기록은 요셉 스미스가 금판으로부터 번역한 것의 대부분이었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모로나이로부터 금판을 받았는데 모로나이는 주후 421년경에 서부 뉴욕주

에 위치한 구모라 언덕에 그 기록들을 묻어 두었읍니다.

교회 회원은 물본이라고 부르는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며 교회도 물본 교회라고 불리는 것을 그리 나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교회의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확한 명칭은 이미 설명한 대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교성 115 : 4)입니다.

1838년 4월 26일, 미주우리주 파웨스트에서 교회 관리 역원들에게 주신 계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명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셨읍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르노라. 너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여...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장호와 교회 회원들아,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교성 115 : 1, 3-4)

주님의 이와 같은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직후 미대륙의 제자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에 관한 물본경의 기록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저들이 보고 들은 대로 가르쳐 전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으며 모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할 때,

“예수께서(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이는 저들이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서시어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내려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는지라.

“저들이 예수께 아뢰기를, 주여 백성들 가운데 이 교회를 어찌 부르느냐 하는 일로 다툼이 있어온즉 저희가 이 교회를 어찌 일컬어야 하는지 당신께서 일려 주시옵소서.

“이에 주가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백성들이 어찌 이 일로 서로 논난하며 다투느냐?

“경전에 그리스도라는 나의 이름을 쥐하라 한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어지리로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받들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인즉,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나의 이름으로 하며 교회도 나의 이름으로 부르라. 또한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교회를 축복하시게 하라.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가 되겠느냐? 만일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면 이는 모세의 교회요,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면 이는 사람의 교회라. 그러므로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가 내 복음 위에 세워진 바 꼳나의 교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 복음 위에 세워졌는지라 너희가 무엇을 일컬든지 나의 이름으로 하며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할 때에 나의 이름으로 행할진대 아버지께서 너희를 들어 주시리라.

“교회가 나의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아버지께서 그곳에 아버지의 위엄을 보이실 것이다,

“나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고 사람이나 악마의 역사 위에 세워졌을진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잠시 기꺼워 할지라도 차차 마지막이 이르매 베어져 다시 들이킬 수 없는 불길 속에 던져지리라.

“이는 저들이 행한 일의 보상이 저들의 뒤를 쫓음이요, 저들이 베어짐은 저의 행위로 말미암음이니, 너희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기억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

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여 내가 사람들 손에 달렸던 것 같이 저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달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선악 간에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들린 것이며 아버지의 권세로 내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저들이 각각 행한 대로 심판받게 하리라.

“누구든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자는 흡족할 것이요, 저가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저가 죄없다 할 것이다.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베어불속에 던져지리니, 아버지의 공의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로다,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모두 이루사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여 끝까지 충실히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이는 계명이라. [부활하신 구속주가 고대 미대륙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고 지금도 주님의 계명입니다.] 회개하라, 너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라. (니파이 삼서 27 : 1-20)

물론 교회라고도 불리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명칭과 기본 교리는 위에 인용한 바와 같습니다.

구속주께서는 친히 그의 교회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명명하셨을 뿐 아니라

“온 땅 위에 세워진 참된 살아 있는 교회이며”,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1 : 30)

이와 같은 주님의 선언에 관련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1830년 4월 6일에 이르기 까지 6년 이상의 기간동안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을 자주 받았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일하던 예언자는 1830년 여름부터 그때까지 받은 계시를 책으로 출판하기 위하여 기록 정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1831년 11월 1일 오하이오주 하이 랍에서 열린 장로 대회에서 계시 출판에 대한 확실한 조처가 취해졌고 편집된 책은 계명의 책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주께서는 서문으로 알려져 있는〔교리와 성약〕제1편에 실려 있는 계시를 주심으로써 이 일을 용납하신다는 뜻을 밝히셨다. (교리와 성약, 해설, 1페이지 : 교회 정사, 1: 222 및 교리와 성약 1편 소개 참조)

이 계시의 내용이 전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계시 중에서 일부를 인용해 드리고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 즉 교회 회원이 아니라 진실로 모든 인간의 주의를 환기 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계시의 서두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데 거하여 모든 사람을 굽어 보시는 이의 음성이 말하노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 지어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폐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복음을 배반하는 자는 많은 슬픔으로 젤림을 받으리니, 저들의 죄악이 지붕에서 이야기 되고 저들의 은밀한 행위가 드러날 것임이니라.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저들이 나아갈 것이 악을 자는 한 사

람도 없으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

“오, 세상의 주민들아, 불지어다. 이것은 나의 권리요 내 종들의 권리요, 나의 계명의 책에 부치는 서문이니, 내가 저희에게 명하여 너희에게 출판케 한 책이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백성들아, 두려워 떨지어다. 이는 나 주가 여기에 명한 것은 다 성취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땅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십이다.

“또한 주께서 진노하시고 주의 검이 하늘에 쟁기웠은즉 땅의 주민 위에 떨어지고,

“주의 팔이 나타나리니,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멸망할 때 바빌론 처럼 파멸하리라.

“그러므로 땅의 주님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나니…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이 계명은 나의 것이요, 미약한 나의 종들에게 저희의 말로 준 것이니, 이는 저들로 이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가 너

파이인의 기록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써 물론경을 번역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합이요,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이 이 교회의 기초를 닦아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어두운데서 이끌어 내어 온 땅위에 세울 권능을 갖게 하려 합이니,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느니라. 기뻐한다 함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함이 아니요, 교회 회원 전체를 가리켜 말함이니,

“나 주는 털끝 만큼의 죄도 둑파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 받으리라.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받았던 빛마저 빼앗기리니, 이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 함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 사는 주민들아, 나 주는 이 일을 기꺼이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는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

며 모든 자로 하여금 그 날이 속히 임하는 줄 알게 하려는 자인 연고라.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작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가 임박하였도다.

“그러나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아이두 미아 곧 세상을 심판하려 오시리라.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참되고 진실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임이니라.

“나 주가 이야기 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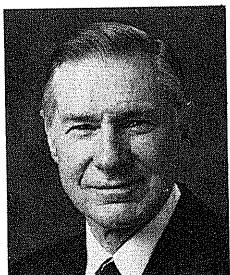
“보라, 주는 하나님이시요. 성신은 증언하시나니; 기록은 참되며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하느니라. 아멘.”(교리와 성약 1:1-7, 11-18, 24, 29-39)

나는 이 위대한 계시가 진실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연단하는 자의 불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삶의 시련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목자인 주님의 고요한 속삭임에 더욱 귀기울이게 됩니다.”

나는 이 설교단에 서게 되면 더욱 겸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영의 인도를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표현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충성하게 전달되어 여러분도 그와 같은 특별한 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모든 사람에게, 특히 감당하기 벅찬 시련과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역경에 처하여 슬픔의 강물에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메시지는 회망과 힘과 구원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나는 “연단하는 자의 불”(말 3:2)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판장은 이 설교단에서 마틴 손수례 부대의 일행 가운데 몇 사람들이 겪은 경험에 관해 말했습니다. 초기에 개종한 이들은 대개 유럽에서 이민한 자들이었으므로 너무 가난하여 소나 말이나 마차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물을 실은 손수례를 있는 힘을 다해 끌며 평원을 횡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맥케이 대판장은 “그들의 영웅적인 서부 이동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반 교사는 그들이 [마틴 손수례 부대] 그러한 상태에서 평원을 횡단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반원의 말에 따르면] 일단의 개종자들이 겨우 1개의 손수례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일용품이나 보호용 장비를 갖고 평원을 횡단하는 모험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오고 갔습니다.”

“구석에 한 노인이… 아무 말 없이 귀 기울이며 듣고 있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낯빛은 하얗게 질렸으나, 그는 침착하고, 신중하고 열성있는 진지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이런 식의 비평을 중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냉혹한 역사적인 사실은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은 복잡한 질문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늦은 철에 손수례 부대를 보내는 것부터 잘못이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손수례 부대에 끼여 있었고. 나의 아내도 그려졌으며, 여러분이 조금 전에 언급한 넬리 언센크 자매도 그 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겪었으

며, 많은 사람이 헐벗고 굶주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손수레 부대의 생존자가 비평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손수레 부대의 대원 중에 배도 하였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확고한 지식을 갖고 고난을 극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병에 걸리고 게다가 먹을 것도 없어 힘이 다 빠지고 지쳐 있으면서도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한 발자욱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앞에 경사가 진 모래 언덕이 있는 것을 보고는 내가 도저히 짐을 끌고 그곳을 지나갈 수 없으므로 그곳까지만 가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 모래 언덕까지 갔습니다. 내가 그곳에 도착하자 손수레가 나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가 나의 손수레를 밀어 주고 있는가를 알아 보려고 자꾸 뒤를 돌아보았으나 내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손수레를 끌고 오기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였을까요?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나 물론 이제껏 생활해 오는 동안 어느 때에도 결코 후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마틴 손수레 부대와 함께 오는 특권을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상호부조회지, 1948년 1월호, 8페이지)

위대한 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애 동안 고통과 고뇌를 겪고 용기를 갖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는 연단하는자의 불을 통과하며, 우리의 생애에서 무가치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은 불순물과 같이 녹여 버려 우리의 신앙을 훌륭하고 완전하며 굳건하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룩한 형상은 영혼으로

부터 반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바쳐야 할 희생의 일부입니다. 삶의 시련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성스러운 목자인 주님의 고요한 속삭임에 귀를 더 잘 기울이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 나가자면 여러 가지 역경과 고뇌에 휩싸이게 되고 고통과 절망의 날을 당하게 됩니다. 열심히 의를 행하고 충실히 생활하고자 하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많은 고뇌와 슬픔과 때로는 비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통을 안겨 주고 육체를 괴롭히며 상처를 입히는 고난은 종종 의미와 희망이 빼앗긴 것 같이 여겨지는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때로는 냉혹하고 고된 것처럼 보이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생깁니다. 이같이 하여 인간의 영혼은 신앙있고 유익하며 아름답고 힘찬 생활을 해 나감으로써, 구세주께서 빚어내시는 부드러운 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단하는자의 불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전지에서 앞을 내다보는 자들은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완전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해서도 새로 거듭나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군중속에 끼어 밀려 다니지 말고, 오히려,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사 40:31)이라고 이사야가 약속한 것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험을 받아야만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도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라야 증거를 얻겠음이라.”(이데 12:6)고 간증한 바 있습니다. 신앙의 시련은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 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 1:7) 시련과 역경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경에서의 거듭남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모사이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 모든 인류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변화되고 구속받으며 들리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 27: 24-27 참조)

매리온 지 룸니 부대관장은 주님을 변호하면서 이 기이한 권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인의 삶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이 비슷합니다.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빛을 받은 영혼을 가진 자는 죄와 짙은 암흑의 이 세상을 다만 수동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읍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많은 의를 이루고 인간의 삶과 마음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역제할 수 없는 마음의 충동을 받아 스스로 준비하게 됩니다.” (대회 보고, 1941년 10월 4일, 89페이지)

팔리 피프랫 형제는 거듭남에 관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고, 산을 파내려 가며, 지구의 끝까지 가고, 아라비아의 사막을 횡단하라는 임무가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신권이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휴식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읍니다. 나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읍니다. 나는 적을 남김 없이 무찌르고, 사망이 멀망당하며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결코 가만히 앉아서 휴식할 수 없읍니다.” (설교집, 1: 15)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과연 악함의 결과로 또는 우리의 부주의나 범법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큰 시련을 받을 때도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도를 다시 찾고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한 회개의 각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원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온전하게 그리고 보다 진보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읍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읍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어야 할까요?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는 다

음과 같이 질문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비통과 절망의 날에 누구에게 의지하여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하겠읍니까? 그들은 바로 이미 고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동정과 위로를 풍성히 베풀어 줄 수 있읍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와 같이 행할 수 있겠읍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좀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어떠한 인간이 받은 혹은 앞으로 그 누가 받을 고난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동정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위대한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임프로브먼트 이라, 1918년 11월호, 7페이지)

이사야는 구세주께서 탄생하기도 전에 구세주가 “잔고를 많이 겪은”(사 53: 3)자라고 말했읍니다. 교리와 성약에 보면 구세주께서는 자신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 고난은 하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쏟은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 18)

자신의 고난이 곧 형벌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읍니다. 로이 독시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도들이 말일의 모든 심판, 즉 질병과 역병과 전쟁 등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헛된 생각이며, 따라서 이러한 역경이 범법으로 인해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하지 않은 원리라고 가르쳤읍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우리에게 오는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비나 노여움 때문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가르쳤읍니다.” (교리와 성약의 말씀 솔트레

이크시티 : 베쳐넷 출판사, 1970년, 제2권, 373페이지)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구세주에 관해 언급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브리서 5:8-9)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스틸먼 폰드 형제는 나부 제2칠십인 정월 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초기에 개종해 들어 왔는데, 매사추세츠주의 허버드 스턴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아내인 마리아와 자녀들과 함께 고난을 겪었으며, 나부에서 쫓겨 났습니다. 1846년 9월에 그들은 대서부 이주민에 끼였습니다. 그해 초겨울에는 각종 열병과 결핵을 포함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여려 가지 천염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는 결핵에 걸렸으며, 자녀들은 열병을 앓았습니다. 첫눈이 쌓여 다녹기도 전에 세 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스틸먼 형제는 평원에 그들을 묻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상태는 아이를 잃은 슬픔과 고통과 열병을 앓는 아이들을 돌보기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병으로 허약한 중에서 그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의 이름은 요셉과 하이람으로 지어 주었으나 둘다 2, 3일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스틸먼 폰드 형제의 가족은 원터 쿼터스에 도착하였으며, 다른 많은 가족과 마찬가지로 천막 생활을 하는 동안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평원을 지나 원터 쿼터스에 이를 때까지 다섯 자녀가 죽었으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러스 케이 휘트니와 그의 아내 헬렌 마의 일지는 스틸먼 폰드 형제의 4명의 자녀가 더

죽은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증해 줍니다.

“1846년 12월 2일 수요일 14세이던 로리제인 폰드는 오한과 열병으로 죽었다.” 2일 후 “1846년 12월 4일 금요일 11세이던 해리엣 엘 폰드가... 오한으로 죽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1846년 12월 7일 월요일 18세이던 애비게일 에이 폰드가... 오한으로 죽었다.” 그후 5주가 지난 후 “1847년 1월 15일 금요일 6살 먹은 라이먼 폰드가... 오한과 열병으로 죽고 말았다.” 4개월이 지난 뒤 1847년 5월 17일에 그 아내인 마리아 테이비스 폰드 자매가 죽었다. 스틸먼 폰드 형제는 9명이 자녀와 아내를 잃었다. 그는 유타주에서 타월한 개척자가 되었으며, 또한 제35 칠십인 정월회 선임 회장이 되었다. (리언 와이 폰드와 에이치 토마스 폰드편, “스틸먼 폰드, 야력 소개”, 스터얼링 포사이드 역사집, 타자기로 작성된 기록, 교회 역사과 기록 동굴 보관소, 4-5페이지)

평원을 횡단하는 동안 9명의 자녀와 아내를 잃었지만 스틸먼 폰드 형제는 신앙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나 이제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그만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목자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과 힘과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계십니다. 만약 밤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낮을 감사히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무수한 별과 광대한 하늘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 것과 함께 쓴 것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당면하는 역경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경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깨끗이 해주며, 순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역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장미를 꺾을 때는 종종 같은 줄기에서 솟아나와 있는 가지에 절리는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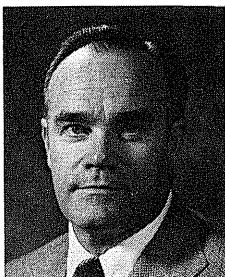
연단하는 자의 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귀하고 영원한

개인적인 현신

제임스 웬 패러모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거듭님이 될 수 있읍니다. 하나님과 진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치르는 대가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성스러운 평안이 내릴 수 있읍니다. 정지되어 있는 내면의 자원이 다시 일깨워질 것입니다. 편안한 의의 외투가 우리를 보호하고 영적으로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우리를 감싸 줄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해야려질 때 자기 연민은 사라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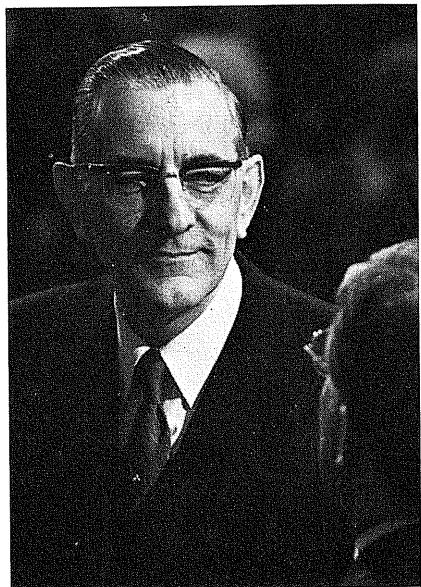
이제 나는 그리스도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드립으로써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사업은 그의 거룩한 사업이요 영광입니다. 이 교회는 그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나는 이 성스러운 지식을 얻은 것을 무엇보다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 사실을 내가 간증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나는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현신이란 꼭 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서 행하는자의 생활에 화평과 힘을 불어 넣어 줍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이 과거 2년 동안 나에게 보여 주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현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과 기도로써 저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나는 매우 특별한 디너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읍니다. 이 파티는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던 나의 어떤 친구를 위한 것이었읍니다. 나는 그에게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들과 그를 열싸안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읍니다. 그날 밤



그가 수백 명의 군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이 짧은 시일에 그와 같은 일을 성취했을까?”

그리고 그가 이 사람들에게 행한 수많은 헌신적인 행동과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직면했을 때 격려했던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 가정, 금전, 기술을 희생했습니다. 즉 그들을 돋기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행하여 완전히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임은 간증회와 흡사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그분의 생애에 감사하면서 한 인간의 헌신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에 헌신은 누구나 행할 수 있지만 보통으로 행하지 않는 평범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와 같이 자신을 헌신할 때 큰 저수지의 수문을 여는 것 같은 강한 힘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에 관해서 생각할 때 나는 구세주의 생애에 있어서의 숭고한 날들을 헌신의 생 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귀는 방금 칼에 맞아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 거기서 조통과 결박과 눈가림과 매질을 당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공회 앞에 불려나가 다시 매맞고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송사하는 자들 앞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인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인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결국 살아 있는 모든 영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피로와 배고픔과 고통과 실망 때문에 몇 번이나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포기하려 했겠습니까!

구세주의 헌신은 확실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분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분과 우리 가족과 남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신을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사후의 승영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실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1831년 8월 1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러한 원리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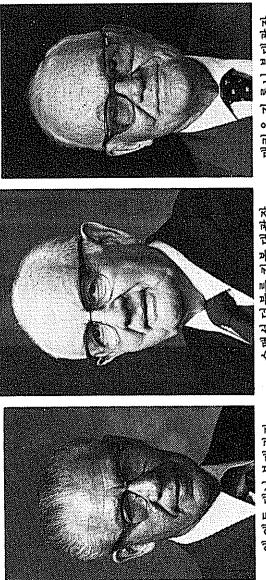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 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교성 58 : 27-28)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헌신하는 것은 선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써 노력하”는 것이며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며, “자유의 사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많은 의를 행”하려는 욕망에 의하여 행해야 합니다. 헌신은 고백이 아니며 실천인 것입니다. 이것은 편리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모범이며 자기 의무에 대하여 구속적이면서도 행복하게 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적이면서도 강제적인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행동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선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며 또한 행동을 지켜보는 훌륭한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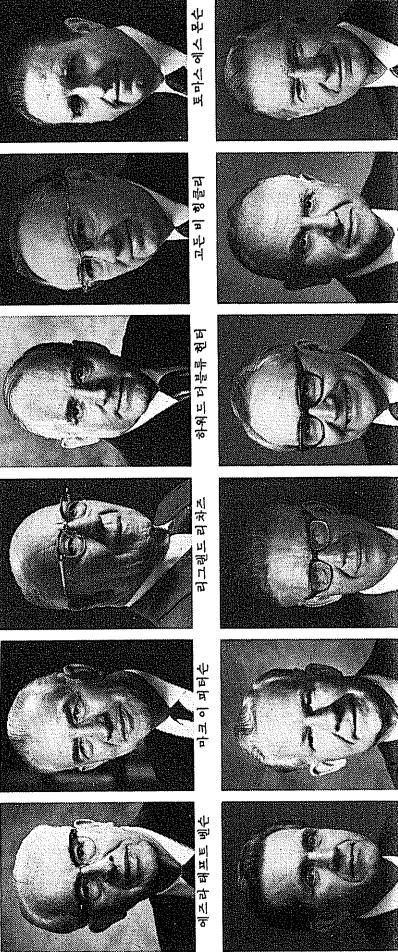
내가 수년 전에 선교 지역에서 일할 때 언제나 가르치고 침례받게 할 사람이 있는 선교사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헌신과 행복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지역으로 다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통하여 잠시라도 이 특별한 청년을 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어에 특별한 소질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강한 간증을 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혁원 대관장단



스탠서 아울리 키링은 대변장
마리온 저 토마스 퍼시
제 2 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 축복사



제스 스미스 스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도 나의 친구처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으나 보통으로 행하지 않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헌신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속적인 원리로 이해하면 헌신하는 사람은 하늘의 권리와 병고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저수지에 담겨 있는 물과 같이 이런 힘은 자신의 개인적인 세계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고대 미대록의 한 예언자는 우리의 헌신이 구세주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총고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어다. 그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내며 회오리 바람을 불어치게 하고, 그의 우박과 강한 폭풍으로 너희를 휘몰아칠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비참하고 끝없는 저주의 구렁으로 쓸어 넣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가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이라. 이 토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헬라맨서 5:12)

그분께 헌신할 때, 우리는 내적인 화평과 안전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27) 그분께 헌신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줄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그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으나” 반대로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10).

어떤 신문사는 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뉴스는 무엇이겠습니까? 편집자는 깊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

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회복하셨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신권과 복음의 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헌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 들었을 때 그것이 참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에 대한 헌신

주님과 그분의 원리를 위하여 헌신하려면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면 족장의 반차에 따라 영원히 함께 하도록 인봉됩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성스럽고 중요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모든 자녀는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가정은 배움과 사랑의 도장이며 회원들 각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도록 능력을 기르는 곳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영원하며 불변한 것임을 간증합니다.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은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인 안전을 가져다 주는데 있어서 자기 가족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이고 사업가이며 교회 지도자인 매우 바쁜 어떤 형제가 수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주 몇 일 밤과 토요일 저녁을 가족과 함께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랐습니다. 복음으로부터 이 우선 순위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피로와 사업과 교회 일, 기타 필수적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는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 약속은 취소할 수

없는 의무라고 여기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모든 가정들이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때때로 보통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일을 행했습니다.

어느 시대의 예언자든지 가족들에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일하며 함께 놀고 거룩한 가운데서 서로 결속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평화와 단합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혼신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혼신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발표한 것을 다시 말씀드려도 좋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축복을 의로운 자의 기도와 개인적인 혼신에 의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 혼신할 때 우리는 보다 큰 내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더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제 폐리 장로가 아들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받은 열성적인 예언자인 아버지 엘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혼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행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어느 날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다가 홀에서 어떤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손가락을 다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소독제와 붕대를 꺼내서 상처를 묶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친절히 대해 주는가 하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론입니다. 물론은 이러한 일을 즐겨 행합니다.” 이 사람은 가능하면 언제든지 남을 도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대회에서 많은 연사들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모임이 끝난 후 총 관리 역원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50명 이상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정의 경계와 가족과 행복을 지키는 방법과 이웃에 대한 선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그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알려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접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자들의 집회에 참석하기 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서 도움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영은 도



움을 찾고 있읍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을 돋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구세주가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사랑 가운데 이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구속하도록 도울 수 있읍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고백하는 것 이상의 무한한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와 가정 복음 교사는 도와 줄 특별한 기회를 갖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과 모임과 신앙과 기도의 목적은 각 개인과 가족을 돋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개종한 프랑스의 어떤 자매는 전에 속했던 교회의 목사로부터 어떻게 이 교회로 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받고 너무나 확고하고 훌륭하게 대답했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돋겠다는 우리의 집중적인 결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줍니다. 그녀는 교회 지도자나 회원이 적어도 매달 한번씩 자기를 방문했다고 말했읍니다. 그들은 그녀의 영적이며 세상적인 필요를 돌봐주었읍니다. 그녀는 그 목사에게 그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후 한번 밖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 그것도 그녀의 회원 자격에 관해 문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읍니다.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는 적대자의 많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음에 대한 굳은 헌신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이 확장되며 모든 훌륭한 일들을 향한 이해력이 커지며 하나님과 그의 놀라운 창조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1831년 5월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했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성 50 : 24)

형제 자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선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는 빛과 권리를 받아들일 때 내적인 확신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자기 욕망을 주님과 그의 자녀들을 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는 굳건한 헌신으로 변형시킨 오늘날 우리의 예언자인 스페서 더블류 컴볼데관장님을 점점 더닮고 있읍니다.

우리도 오늘 자기 소신을 밝히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도록 헌신하기로 결심할 수 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



내 양을 먹이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십이사도 평의회



“주님께 봉사하려는 열의가 있는 부부는 감독이 부르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감독을 찾아가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창단이 “동트니 날이 밝는다”를 부를 때 나는 영적인 감동을 받아 내 가슴 속이 뛰었음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교회의 찬송가 가운데 위대하고 감동을 주는 찬송가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에서의 선교 사업을 개척하는 데 돋기 위해 요셉 스미스가 영국에 과경했던 십이사도 중 한분인 팔리 피 프랫 장로가 이 노래를 지었음을 알 것입니다. 이 노래는 세상에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트니 날이 밝는다.

보라 시온 기 날린다.

찬란한 아침이 온다.

하루의 시작 장엄하게
아침해 솟아 오르네”
(찬송가 222장)

복음의 아침해는 온 세상에 비치고 있습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장엄한 하나님의 사업이 널리 펴집니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는 당시 칠레 오소노 선교부를 관장한 레스터 헤이모어 선교부장과 함께 칠레 해안을 따라 차를 몰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도시 저도시를 방문하고 이마을 저마을을 돌아보며 여러 선교사가 뿌려놓은 노력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새로운 회원을 만나 보았으며, 그들의 신앙과 복음에 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열의에 가득차 있음을 보고 큰 감명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불어나는 새로운 회원이 외인이나 손과 같은 느낌을 갖지 않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이 쇠막대를 붙잡고 계속해서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곳의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와 주일학교 각 빙에서 복음에 관해 훈련을 받고 또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테이크에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성적이기도 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회원을 강화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새로 침례받은 수 천명의 회원들은 다소 생소하고 낯선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침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안일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들을 격려하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이 있고 잘 준비된 부부를 선교사로 내보내 그들의 생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의 하나를 쌓게 한다면

얼마나 유익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앱울레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백성을 구원하리니.”(엘11:40). 우리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도와 그들이 재림을 준비하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우리는 복음 선교사는 단지 젊은 이들과 미혼의 남녀만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인 양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몸담아온 직장이나 전문직에서 퇴직하는 수많은 남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킴볼 대관장이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는 벌써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친구가 내게 질문하는 편지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교직에서 퇴직했으며, 유타주로 돌아왔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그 곳에 돌아가면 교회를 위해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장을 적어 보았습니다. “유타에 오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에서 형제님이 봉사해 주심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선교사로 봉사했을 당시 배웠던 늘웨이어를 다시 공부하십시오.” 아마 그들은 곧 선교사로 떠날 것입니다. 그는 두번째로 갖는 선교사의 기회를 기뻐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는 일생의 배우자를 선교사의 동반자로 하는 축복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며 감독과 접견하여 선교사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감독은 여러 가지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지만 그들을 간파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 봉사하려는 열의가 있는 부부는 감독이 부를 때 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감독을 찾아가서 “우리는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는 멕시코에서 훌륭한 노부부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존 포섬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

요한 것은 훈련 받은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갖춘 부부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부 지도자를 양성할 기구조차 없이 22개의 지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새로 조직되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경험 있는 지도자가 부족합니다.”

포섬 부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와 일한 결과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담없이 봉사할 때는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늙어 쇠약해지면 침대나 혼들의 자에 앓아 죽을 때만 기다립니다. 우리는 퇴직한 후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고자 원하는 사실을 아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한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우리의 스테이크 부장은 우리를 선교사로 성별할 때,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 가족을 돌봐주실 것과 선교사를 마칠 때까지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만한 나이에 선교사의 규칙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일이며 그만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후 포섬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 전에 나는 하와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원주민의 언어를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드니 선교사 언어 훈련원에 들어가 스페인어를 배우기가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해냈으며 이러한 것은 훌륭한 배움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보화는 오직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포섬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6명의 손자를 둔 할머니가 그들의 결을 떠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을 잘 해내고 있읍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잘 참아내고 있읍니다. 이들 헌신적인 부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선교사의 경험을 하는 것은 풍요롭고 가치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퇴직후에도 단지 존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의미깊은 삶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꺼이 봉사하며 언제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태도로 자발적으로 일하며 이와 같은 훌륭한 봉사를 함으로써 노년기를 보람있게 보내는 포션 부부와 같은 분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초기에 주님의 사업은 성도들의 회생과 최선의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1831년 그들의 가족을 떠나 미주리로 가도록 명령을 받은 형제들의 일단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적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친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이 말일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벅으리라.”(교리와 성약 64 : 33-34)

노부부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정년 퇴직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곧 출발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경험을 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각력과 경험을 넓히기 위해 지금이라도 곧 시작해서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고 외국어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스페인어나 독일어를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킴벌 대관장은 중국어를 배우기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내는 학교를 떠난지 50년이 지난 지금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 대학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물론입니다.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합니다. 요리는 누가 하시느냐고요? 내가 할 때도 있읍니

다.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아내가 아르헨티나 또는 멕시코의 회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겸손한 간증을 할 때 나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주님의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킴벌 대관장은 보다 많은 노부부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필요로 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 가족의 유대를 가진 경험 있는 회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업에 헌신할 때 영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더 높은 차원을 갖게 될 것이며 경전을 보다 깊게 살피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신은 보다 분명히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의 사랑의 폭은 보다 넓어지고 가정에 있는 가족들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들은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심없는 봉사를 사랑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의 모로나이는 그 당시 새로 침례 받은 자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침례를 받은 뒤에는 성신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헤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키며 깨어서 항상 기도하여 저들의 신앙을 이루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나니”(모로나이서 6 : 4)

세상의 많은 지역에는 모로나이가 말한 것처럼 관심과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며 격려 받고 올바른 방법으로 지켜져야 할 개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 있는 부부들이 다른 곳에서도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훈련과 격려와 무엇보다도 자선 봉사를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교회 회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과 헌신으로 무엇을 성취 할 수 있는가는 포션 부부의 말을 다시 인용

하여 알아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맡은 지부 중에서 한 곳을 방문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벽 4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포샘 자매는 신권회가 시작되는 시간에 자매들과 함께 음악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음악 지휘법의 기본을 가르쳤는데, 그 반에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13세 소녀도 참석하였으며, 그 소녀는 이제 성찬식에서 음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부에는 음악 지휘자가 한 사람 생겼습니다.”

포샘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부장단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몇 달 전만해도 이 지부에는 방문 교육과 개정 복음 교육은 이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조의 개정 복음 교사가 활약하고 있으며 곧 방문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적인 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봉사와 우리가 새로운 회원에게 느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때 주어지는 보상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또한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된 자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신앙으로 새로운 회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올바른 길을 지켜 나가도록 도우며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저들의 신앙을 이루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지에 끌어올린 그물에 가득 찬 생선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려하의다”라고 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번쩨 가라사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려하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는 세번쩨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번쩨 물으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요 21:15-17)

그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 곧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권고는 영원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강하며 신앙이 견고합니다. 새로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그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충분히 준비되고 축복을 받기 위해 원하는 많은 분들이 세상일을 제쳐두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어 그들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든 비 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베드로처럼 곤경에 빠져있을 때 주를 부인했던 많은 사람들도 또한 베드로처럼 “회개하여 보다 강한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감에 가득찬 아침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을 잠시동안 예수루렐에서 최후의 만찬을 끝낸 후에 일어났던 가장 두려운 저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예수와 그의 사도는 성을 떠나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호된 시련이 앞에 다가왔음을 안 그는 그가 사랑했던 자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찌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밤 밟을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마 26:

31, 33, 35)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무서운 면민이 있은 직후에 배신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정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뜰까지 가서…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마 26 : 58)

조통과 유품거리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를 고소한 자들은 그에게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 때 한 비자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담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담을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마 26 : 69-75)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비애를 느낍니다. 베드로는 그의 충성과 결의와 결심을 확인하면서 그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두렵고 자신의 연약한 육신과 고소자들의 압력으로 인해 그의 결심은 허무려졌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내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베드로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너무나 그와 흡사합니다. 우리는

충성을 맹세하고 용기를 갖기를 결심하고 또 한 그것을 의를 행하고 의로운 대의를 위해 일어서며 우리 자신과 남에게 진실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압력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압력일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허망한 애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의 의지는 약해지며 기강이 해이해지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드는 것은 후회와 자책과 쓰라린 회오의 눈물뿐입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목격하게 되는 큰 비극 중의 하나는 목표는 높은 테 있으나 실제로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고상합니다. 그들의 대망은 친양할만 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강은 나약합니다. 그들은 태만에 빠지며 욕망으로 자신의 의지를 잃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교회 회원은 아닙니다. 그는 유명한 대학 출신이었고 그의 잠재력은 무한했습니다. 훌륭한 교육과 놀라운 기회를 잡은 이 젊은이는 정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곧장 승진의 길을 걸게 되었으며 수년이 지나자 그 회사의 최고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승진하게 되자 그는 교제를 위해 파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알콜 중독자가 되었으며 욕망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했습니다만, 너무나 거만하여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멀어지는 별과 같이 비극적으로 불타 오르다가 어둠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수소문해 본 결과 드디어 그의 비극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높은 목표와 놀라운 재능을 가진 그가 이 대도시에서도 비참한 빈민

가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베드로와 같이 그는 힘과 능력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실패의 며구름에 둘러싸여 베드로와 같이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나는 또 하나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나는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영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을 당시에 교회에 들어 왔습니다. 그는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이 습관을 극복하기 위한 힘을 간구하였으며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하였으므로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족과 사회적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표준을 지키지 못하고 그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타오르는 담배 연기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나는 몇 년 후에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지난날의 추억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베드로와 같이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이것 저것을 후회했습니다. 나는 캐시어스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귀한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내리막길을 걸은 자 즉 시작은 훌륭했으나 용두사미 격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경주에서 훌륭하게 출발했으나 절반 또는 3분의 2쯤 가다가는 중지하여 결국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하고 마는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며, 판대한 본능을 부인하고, 소유욕에 휘말리며, 자기 중심적이며 영감받지 않는 삶을 영위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재능이나 신앙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분노하시는 날에 애통하며 울부짖기를 추수는 끝나고 여름이 지났으나 나는

구원받지 못하였도다 하리라”(교성 56 : 16)

그러나 특별히 나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그의 사업에 사랑을 고백했으나 후에는 공공연히 또는 말없이 그를 부인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위대한 신앙심을 지니고 크게 헌신을 한 젊은이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친구였으며 내가 한창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에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생활하고 봉사하여 주님과 교회의 일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함께 일하면 동료들이 그를 이용하여 그들 자신의 발전의 수단을 삼고 그러는 동안 그들의 폐임에 빠져 그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신앙과 행동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이 그들의 유혹에 서서히 넘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생활해 온 신앙에 대한 것은 조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뒤바뀐 생활 태도는 그가 신앙을 버렸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환상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와 힘없는 눈초리로 그는 자신이 한때 신앙의 보화의 뒷으로부터 풀려나와 표류했던 일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말을 마치고 베드로처럼 울었습니다.

어느날 나는 어느 친구와 함께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직업 분야에서 상당히 성공한 듯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의 활동은 어떠했습니까?”라고 내가 물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지만 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고 그 표준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가 현재 속해있는 사회 조직에서 벼림을 받을까봐 두려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확신

하고 있든 지식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이 사람은 얼마 후에 시간을 내어 조용히 생각해 보면 그의 생득권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았음을 인식하여 (창 25 : 30-34) 희오와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생에서 주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의지할 신앙없이 자란 자녀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리라”(막 8 : 38)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했던 베드로에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소리 높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선임 사도인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망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 여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무리들은 성신의 능력으로 마음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주님에게서 받은 신권의 권능으로 요한과 그는 절름발이를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는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을 때 그는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 변론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지시하는 시련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를 부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쇠사슬과 감옥과 무서운 순교자의 죽음을 겪었던 것입니다. (마 4 : 19참조). 그는 끝까지 충실히 남아 부활하신 주께서 열 한 명의 사도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죽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마 28 : 19)라는 최후의 지시를 주시자, 그 명령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는 또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성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 지상에 다시 왔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권능아래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말일에 조직되었고 지금도 그 권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일과 그의 많은 일들은 한때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했으나 후에 그러한 후회를 딛고 일어선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는 승천하고 나서도 구제주를 위한 사업을 열심히 행했으며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그 사업의 회복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오늘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행동이나 말로 신앙을 부인한 자가 있다면 한때 예수와 매일 동행했으나 곤경의 시간에는 주와 자신이 간직했던 간증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의 예에서 큰 위로와 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서 그는 위대한 신앙의 수호자가 되었고 강한 응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자란 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자, 야망에 불타 올라 신앙을 부인하기 시작했읍니다. 그의 생활의 태도는 오로지 명성을 쫓는 것 뿐이었읍니다. 다행히도 그는 더 타락하기 전에 조용하고 작은 속삭임을 듣게 되었읍니다. 그는 후회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그는 마음을 돌이켜 지금은 시온의 위대한 스테이크의부장이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읍니다. 그는 또한 세계 굴지의 회사 중역이 되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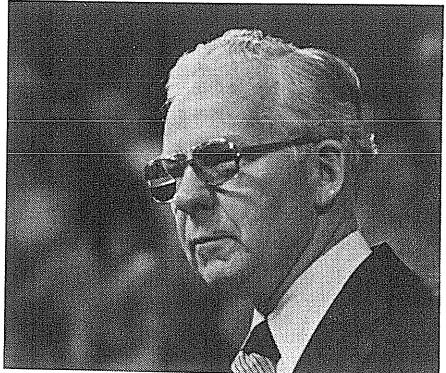
방황의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좀더 이해력을 넓히기 위해 여러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도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

게 해줄 사람도 있으며 비통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자들이 있읍니다. 주께서 성령의 권세로 여러분을 감동케 하시어 소망을 키워 주시고 결심을 굳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에 마음을 돌이켜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한없는 화평과 만족감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간증의 말씀을 우리가 섭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



발전의 장애물

마빈 제이 애쉬튼
십이사도 평의회



개인적으로 상한 감정을 기억하고 슬픔에 절고, 비행을 저지하고, 비행과 두려움에 떨게 되면 인간은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남편을 잃고 세 자녀를 자신이 부양해야 할 불행한 어머니가 앞으로 교회에 다닐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나는 이 아파트에 4개월 동안 살고 있는 데 아무도 우리를 방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감독님을 만나 자매님의 가정에 즉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매님은 새로운 동네로 이사한 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방문했습니까? 라고 물자 그녀는 놀라는 듯한 표정이었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방문하여 도움을 줄 것을 원하여 자신의 발전을 막고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소극적인 태도는 침체와 불행과 내일의 비참함을 초래 합니다. 풍요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개인적

인 상처를 생각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곤경이나 상황에는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그의 양을 쳐야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플 때나 현재 편치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잘 인도할 수도 있읍니다. 굶주린 자와 의지 할 곳이 없는 자와 추위에 떠는 자들은 동일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도와 줄 수 있읍니다. 나약한 자나 지쳐있는 자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는 향상되기를 기대할 수 없읍니다. 한면에 우리의 정력을 행동과 봉사와 다른 사람을 돋는 일에 사용할 때 치료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미국의 교육가인 부커 티 와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인생에 있어서 그가 도달한 위치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그가 극복한 장애물에 의해 측정된다”(영언집, 존 피브래드리 편 시카코; 퍼거슨 출판사, 1969년 698페이지) 인생에 있어서의 승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을 오르려 노력하는 중에 더 강해집니다.

“하늘에서 쓰여진 가장 홀륭한 면류관은 환란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제련되고 다듬어지고 영화롭게 된다.”라고 토마스 칼라일은 말했습니다. (세계 명언 인용집, 로이 웨스트 편, 솔트레이크시 : 북크래프트사, 1968년 312페이지)

우리의 개인적인 발전과 교회 활동을 저해하는 네가지 기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인적으로 상처 받은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잊지 못함 (2) 비극과 슬픔에 빠짐 (3) 습관적으로 또는 실수로 비행을 저지름 (4) 두려움에 질려 발전하지 못함 등입니다.

영원한 발전을 막는 이러한 적들에 관해 생각해 보고, 그러한 것을 격퇴시킬 수 있

는 용기를 찾아 봅시다.

개인적으로 상처받은 일을 끊임없이 생각함.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뱉는 말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분나쁜 말을 들어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으로 쓸데 없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처가 생기면 즉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하기 보다는 부스럼이 나고 끓어 터지도록 내버려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경지를 포기함으로써 적대자에게 복수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안 가겠어”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나약하고, 파괴적이며 용줄한 것이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감정을 상하고 무시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생각없이 한 말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가장 훌륭한 농구 선수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픔을 참아가며 농구를 연습했습니까. 상처가 나고 멍이 들어도 나는 결코 편히 쉬며 연습을 계울리 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사와 지도자인 예수는 갖은 욕설과 잔혹한 행동의 희생자가 된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행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 34)

예수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에도 그에게 대항해 오는 파괴적이고 상처와 불만을 야기시키는 여러 경우를 오히려 유익한 경험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는 결코 반항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오

래 참고, 인내하고, 왕과 같았으며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는데 조금도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도 그의 위대성을 나타냈습니다. 그에게 아무리 모욕적인 언사를 쓰고 잔혹한 행위를 해도 그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는 전혀 장애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명한 자는 상처로 받아 생기는 기분 나쁘고 증오스러운 감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의롭지 못한 것에서 야기되는 이러한 장애물로 인하여 받지 않고 구세주의 길을 추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밀고 나아가며 혼동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녀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무시당하고 있다거나, 아무 짹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흔히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굴레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감정을 상할 시간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까! 확실히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또는 우리에 관해 누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극과 슬픔에 빠짐. 때때로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어머니 아버지 또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픈 일이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전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고 극히 해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아프지만 그 유대 관계를 끊고 우리가 그 큰 시련을 헤치고 굳굳이 일어서도록 도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낙망의 순간에 힘과 위안과 화평

의 따스한 손길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암흑의 시간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하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의문에 파묻히는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시련을 받을만한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유타주 오僚시에 사는 루실 에프 존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기를 원하는 어느 회사에 매력적인 부인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삶과 사람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늘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한마디 날말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은 무엇입니까?”라고 나는 질문했습니다.

“악성 종양입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악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내려주고 내가 살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비참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즐겁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무릎을 끊고 기도하다가 내가 전에는 한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생이 단 하루든 일년이든 그것은 내가 받을 선물이며 나는 그 선물을 최대로 향유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병을 고치는 데나 용기를 발휘하는 데나 또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받아들인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만유를 이해하시는 분의 절대적인 지혜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비극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삶을 영위하고 더욱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선하고 큰

힘이 되어 줍니까?

배 한 척은 동쪽으로

다른 한 척은 서쪽으로 떠나 가네

어디서나 똑같은 바람이 부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결정짓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 아니라

듯의 방향인 것이다.

인생은 바닷 바람과 같으니,

긴 인생 여로에서

목표를 결정하는 것은

평온이나 투쟁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결심인 것이다.

(엘라 휠러 월콕스 “운명의 바람” 종교시
결작선, 제임스 달튼 모리슨 편, 뉴욕 : 하
퍼앤드 브라더스 출판사, 1948년, 314페이지)
습관적으로 또는 실수로 비행을 저지르는 것.

최근 수개월 동안에 목적있는 삶을 향하여 거보를 내디디고 교회 활동에 열중하게 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와 인생 경험을 한 자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비활동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스스로 변화되며 보다는 개인과 기존 사회 질서를 가만히 앉아 비난하는 것이 보다 쉬운 일일세.

변화되기란 힘든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극복하고 잘못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비활동을 변명하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발견이란 우리가 보다 나은 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회생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정직하고 매일 매일 바람직하고 가능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후 각 목표의 가격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가격표는 변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도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회개의 과정이 완

전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다시는 기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같이 행 할진대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으며, 습관은 고칠 수 있고 장애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로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보다 나은 자기 관리를 위한 개인적인 단계를 취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보게 될 때 그 실망감은 참으로 큩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그들의 잘못을 고치고 거기서 교훈을 받아 진보와 성장을 가져오는 행동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의미하기만 한다면 그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행동과 성취의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끌어 올리실 것임을 알게 되면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방향을 깨닫고 대가를 치르고 주님의 길로 걸게 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적인 승리입니다.

두려움에 질려 발전하지 못함. 두려움은 우리의 영원한 발전을 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실패나 거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있는 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까 두려워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봉사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딛후 1: 7) 우리가 노력하기를 두려워하고 결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판단에서 실수를 두려워할 때 우리의 생활에 주어지는 비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던 위대한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려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신 물 위로 오라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불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마태복음 14 : 2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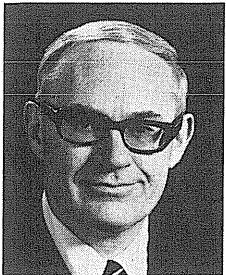
우리의 생에 있어서 두려움은 우리가 단지 신앙을 갖고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개인적으로 상한 감정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결단을 못내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비극과 슬픔에 빠지는 것은 자기 발전을 저해하고 장애물을 제거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습관적으로 또는 실수로 비행을 저지르면 스스로 실수의 희생자가 되게 합니다. 발전을 저해 받게 되면 실패하거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노력하려는 의욕조차 갖게 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발전에의 장애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할 때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러한 저식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로렌 시던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우리는 계명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영적인 상태에 있게 해주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의 하나는 구세주께서 성령의 속삭임과 지시를 통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영감을 구하게 됩니다. 교회가 지상에 세워져 있는 때에는 항상 안내자인 성령에 관한 이와 같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관한 2명의 전형적인 본보기는 신약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인 바울과 교회의 제2대 대관장이었던 브리검 영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가발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산헤드린, 즉 공회의 일원

이었읍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인과 학자의 신임장을 갖고 그의 사업에 차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심한 후에 바울은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의 차이점을 끌어내기 위해 매우 주의를 기울였읍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린도전서 2: 12-13)

브리검 영은 실용주의자로서 양식을 갖춘 현실주의자였읍니다. 유리 장수였던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사망한 후에 교회의 제2대 대관장이 되었읍니다. 그는 성도들을 길이 없는 항구지로 인도하여 그들이 사막을 장미같이 피어 나게 함으로써(사 35:1 참조) 새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멀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읍니다. 그는 종교적인 생활과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실제적인 면을 인식했읍니다. 그러나 실용주의자인 이 분별력 있는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눈과 귀와 손 그리고 모든 감각 기관은 미혹당할 수 없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을 받을 때 전진한 사람은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며, 또한 그는 영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인간의 권리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암니다.”(설교집, 16:46)

우리는 이 두 명의 위대한 예언자를 통해서 말을 능가하는 것을 구하고 영으로부터 올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암니다.

우리는 성령에 관해 말할 때 성신의 은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빛”(교성 88:7)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교화시키지만 성신의 영은 한층 더 특별한 것입니다. 성신은 신회의 세번째 구성원입니다.

그는 영체로서 자기 자신을 대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인간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합니다. (요 16:13-15 참조) 그는 인간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영적인 은사의 균원이 됩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도 하나이요 신앙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엡 4:5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성신의 은사는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만 올 수 있습니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의 부여를 위해서는 합당한 권능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여행하여 합당한 권능으로 침례받지 않은 자들을 다시 침례한 후 그들에게 성신을 부여하였을 때 이 사실은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행 19장 참조)

성신의 영은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임임을 증거해 주지만 성신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침례받고 교회에 속한 후에라야 옵니다. 성신의 은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오는 평안의 느낌과 확신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교성 8:2)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교성 9:8)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과 보상은 우리가 많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가 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가에 기초를 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같은 견해가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이기보다 넓은 견지의 영적인 목적을 강파한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농구를 위주로 한 생활을 했습니다. 농구에 관한 생각은 항상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해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시

간을 보내며 연습했습니다. 나는 동작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지만 점점 자동적으로 동작을 완전히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는 본능으로 특정한 일들을 행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까지 그러한 일들을 연습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영적인 상태에 있도록 하기 위해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과 가르침을 지키고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는가 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킵니다. 그것은 계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영적인 상태에 있게 해주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성결케 하며 우리를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왕국에서 살도록 준비시킵니다. 따라서 경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곧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하여 성별되지 아니한 자도 다른 왕국을 상속받아야만 하나니,” (교성 88:21) 성령을 다스리는 율법은 교회를 다스리는 율법 이상의 것도 아니며 그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예언자와 기타 판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충성되고 기꺼이 저들을 반들려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활에서 권세를 지닐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과 관련된 확실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단지 율법과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위대하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도록” (교성 20:79) 신앙의 기도와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 예로서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레이맨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영의 일부가 저들과 함께 가서 저들에게 거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 해답은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을 저들에게 보내어 이르시기를, 평강이 있을 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마음에 위로를 받더라.”

(엘마서 17 : 10) 여러분은 만일 주님이 그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경험을 주신다면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언자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노니, 너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네 몸에 지녀 보았느냐?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 보았느냐?”(엘마서 5 : 14)

엘마는 교회 회원들이 성신의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확

실히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마치 영적으로 거듭난 것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과 태도는 참되게 홀륭한 것을 향하여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 자체를 닮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신의 은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권세 있는 동반자 입니까! 구세주께 의지하며 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고침을 받으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니 삼 9 : 13 참조) 저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이며(고전 2 : 16 참조) 저들은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벧후 1 : 4)가 될 것이며 저들의 용모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엘 5 : 14 참조) 참으로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며 마음을 넓히는 성령의 권세로 옵니다. (살전 1 : 5)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죽은 후에 브리감 영은 요셉 스미스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확신에 대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진이 저들에게 올 때 그를 반아들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라고 말하십시오. 저들은 다른 모든 영과 주님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들의 영혼에 화평과 기쁨을 속삭일 것입니다. 그는 저들의 마음으로부터 악의, 증오, 투쟁 및 모든 악을 제거할 것이며 저들의 모든 욕망은 선을 행하는 것과 의를 냉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주님의 영을 따르려면 옳은 길로 가라고 말하십시오. 반드시 사람들에게 성령을 지니라고 말하십시오”라고 요셉 스미스가 말했다. (엘던 제이 워드슨 평, 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46—1847, 솔트레이크시티, 1971년, 529—30페이지)

그리고 교리와 성약으로부터 이 마지막 말씀을 발췌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여 주시리라.” (교리와 성약 88 : 68)

그리하여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보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에 충성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성령의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광범위한 성령의 영향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영적인 상태로 만들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주 이야기 하듯이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며 그의 왕국 곧 해의 왕국에서 살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아는 자들이 전하는 성신의 증거가 나를 내 영혼의 아버지인 당신에게 다시 들어올렸나이다.

저들의 간증을 듣는 동안 성령이 내 마음을 채워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고 의를 확인해 주나이다. 그것은 참된 진리를 알려 주나이다. 나는 당신께서 당신의 하늘에 계심을 아오며 구세주가 다스리심을 아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득을 위하여 예언자가 우리에게 말함을 아나이다.

성령이 모든 의심을 없애고 인간의 마음을 비추나이다.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오라”고 말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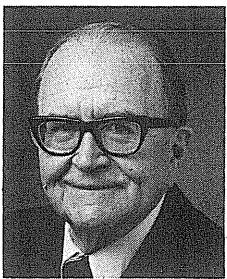
나의 눈은 젖고 마음은 가득하나니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나의 가슴에 머무소서.

내 마음에 간증이 가득차매 매일매일의 고통을 덜어 지나이다. 이는 일순간에 본 하늘의 모습이 내 눈 앞에 고정되어 있음이니이다.

우리가 생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 위대한 영을 불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사랑의 필요성

디어도어 엠 버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현대인은 사랑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 하셨듯이, 이 병폐가 말일의 주요한 특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나는 대관장단으로부터 이 대회에서 말씀해 달라는 지명을 받고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장 듣고자 원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이겠는가?” 이 대회의 메시지는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므로, 곧 그들에게 말씀을 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일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욕구는 사람들이 참된 사랑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란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리는데 정의로 정의합니다. 참된 사랑은 현재 이 세상을 훔쓸고 있는 이기적인 사상과는 정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해관계는 인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인간적인 접촉에 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참된 사랑은 인간의 혼신적인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것이지만, 현대 세계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사랑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일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 점점 시들어 가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요셉 스미스 1:10, 마 24:12 참조)고 예수는 말씀했읍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하신 불법은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유로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일에 불법이 매우 커질 것이므로, “성약에 따라 택하신 자 바로 그 참된 택하신 자도 미혹케 하리라.”(요셉 스미스 1:22, 마 24:24 참조)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에는 주님의 가장 충실한 성약된 성도라도 현대의 사조에 물들어 위험받게 되리라는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주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러한 조류에 휘말리지 않고 견디어 멀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는 세계적으로 인간이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직업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직업을 구할 때,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어여한 봉사의 기회를 주는가를 알아보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이 일은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출장을 자주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책장에 매달려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시간동안 일하기도 원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물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안정하기만을 원합니다.

젊은 분들에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녀 교제를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데이트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과 사귀어 보아 그 사람이 자신과 어울리는 배우자가 될 것인가를 알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것은 다른 사람의 성품이나 관심, 재능 및 능력을 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데이트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치침이 되는 것은 구세주의 말씀에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교성 38:25)

교제기간 중에 혼신적인 사랑을 쌓는 것은 결혼 생활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낭만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의 현실성에 곧 카다란 시련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나 잡지에서는 낭만과 폐락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광고문에는 이러한 것이 공공연히 실리고 있습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는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설 문학이 판을 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공공연히 대하게 되므로 성장해감에 따라 결혼 생활에서 개인적인 만족만을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기심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와같이 개인적인 만족을 바라는 것은 결혼 생활의 부조화를 초래합니다. 그들 스스로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부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부족하게 되면 참된 사랑을 발전시키는 데서 장애물이 됩니다.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부부의 심리는 이기

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임신 중절의 큰 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당시의 우상 숭배자들이 물록신을 만들기 위해 쇠를 녹일 때 그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음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임신 중절에까지 이르는 개인적인 이기주의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으로, 임신 중절을 통해서 자녀를 이기적인 물질주의라는 우상에 그들의 자녀를 바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이미 자녀를 둘 이상 기르는 부부는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제외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떤 유럽 국가는 산아 제한이나 인공 유산이 자연스럽고도 평범한 일이 되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 주부들은 집이나 차를 사고 텔레비전을 사거나 휴가 여행을 계획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란 바라지 않는 귀찮은 존재이며 쓸데없는 경비만 들게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녀를 원하거나 바라지 않는다면 왜 성가시게 결혼하려 합니까? 서로 숨증이 나면 다른 배우자를 구해도 될 것인데 무엇때문에 결혼하여 집을 지려 합니까? 추구하는 목적이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것 뿐이라면 무엇때문에 정절을 요구하겠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폐락과 자기 만족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회복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것을 보노라면, 나는 왜 예수께서 사랑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셨는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생활은 특히 들어내 놓고 이웃과 또한 가정 안에서도 불화와 반목이 그치지 않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 나갈 때는 생활에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일이 많았던 사람은 계속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들은 주

위에 단단히 빙어선을 치고 타인이 깨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화는 아내와 자녀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반 사회에서는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교회에서는 조차 조금씩 스며들어 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해감에 따라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사랑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복음 교사들에게 그들의 가족을 돌보도록 계속 주의를 주십니다.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는지, 거짓말 하는 일, 혐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들이 없는지 살피며.”(교성 20:53-54)

순수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즈음 사람들처럼 이기적이었다면, 대속이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쫓겨나 독적이고 감정적이며 악마와 같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의 행복과 인생의 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주님의 방법으로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왜 주님은 논쟁과 분쟁을 하지 않도록 항상 강력하게 역설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논쟁은 악마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현대 예언자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진리와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내려 노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교회에 속해 있거나 속해 있지 않은 모



든 분들은 우리가 말일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 귀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를 파고 있는 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온 정신과 능력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자에게만 오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참됨을 알고 있는 거룩하게 부름받으신 예언자를 통한 유일한 방법으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주께서 날 부르심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월회 회장단



“주님께서 약속하신 위안과 용서의 축복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
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슬픈 현상입니다.”

오늘 제가 간증드리려는 것은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칠 전에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라는 사실을 이
야기했읍니다.

그날밤 나는 각 세대가 서로 얼마나 은
혜를 입고 있으며 우리가 서로 얼마나 많이
배우며,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
는가를 생각했읍니다. 어머니의 손자 중의 한
명은 자기의 어린 딸이 아빠가 책을 읽을 때
본 대로 엄지 손가락에 침을 빨라가며 이야
기책을 넘기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
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실상 그 아기는 침
은 왼쪽 손가락에 바르고 책은 오른쪽 손가
락으로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만으로도 모범의 힘과 그 아기도 우리 모두

와 같이 무언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강조하기에 축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예쁘게 성장한 두 딸아이를 보
다가 마음속에 과거의 일이 문득 떠올라서
오늘 그것을 주제로 하여 간단히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울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어린 소
녀가 우리 가족과 함께 살게 되어 물론 매
우 사랑해 주었읍니다. 때때로 나는 그 아
이의 언니를 “공주”라고 불렀는데, 둘째 딸
도 그와 같은 왕실의 대우를 받을 만한 똑
같은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그녀에게도 그
칭호로 불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둘째 딸에게, “공주님, 이
리 오시지, 상점에 가서 엄마가 쓸 물건을
사기로 하자.”고 말했읍니다. 딸 아이는 못
들은 체했읍니다. “아빠가 널 부르시는데”하
고 아내가 말했읍니다.

“아,” 그 딸아이가 슬픈 빛을 띠고 조용
히 대답한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읍니다.
“아빠는 날 부르신 게 아니예요.”

천진스런 어린 아이의 얼굴에 나타난 체
념의 표정과 아버지가 자기를 부른 것이 아
니라고 생각했던 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읍
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며
결코 그 사랑을 그치지 않으실 것이며, 우
리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을 그치지 않을 것
임을 믿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에
는 이렇게 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
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이요 일어나시리
니 이는 너희를 궁휼히 여기려 하십이라”
(사 30:18)

나는 이 지상의 여러 곳에서 여러 해에 걸
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많이 만나
보았는데 그들 중에는 주님께서 진실로 자
신을 부르셨음을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는 사
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위안과
용서와 평안의 균원이 되시므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문을 열고 그의 사랑을 받

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그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음은 믿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 사람이 열심히 회개하고서도 장벽에 부딪쳐 자기 자신을 용서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리라고 믿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뼈로는 이상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진실로 용서하고, 잊고, 기뻐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약속은 경전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합창단이 감동적으로 들려 준 경전 구절에 그 계획의 본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십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이라.”(요한복음 3: 16-17)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철저히 이해한 어느 예언자는 그것을 “구속의 계획” “자비의 계획” “행복의 계획”(엘 42: 13, 15-16)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율법에 적힌 것 이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젖어버린 양, 젖어버린 동전과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셨으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시어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집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가엾이 여기고 뛰어나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본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눅 15: 3-32)이 가르침과 다른 많은 가르침에서 주님은 그의 강한 사랑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데 있어서 또한 주님께 대한 책임에 있어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한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쥐시고 머리털로 씻으며 향유를 부었던 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눅 7: 37-39) 구세주는 이를 못마땅하게 보고 비판하는 시몬에게 빚 주는 자와 두 명의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셨습니다. “하나는 오백 테니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테니리온을 졌는데,

“깊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누가복음 7: 41-43)

그런 다음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의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누가복음 7: 47~48, 50)

물론 여기에는 죄를 조장시키거나 깊은 것은 없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에 의하여 개심하고 깊이 회개하였으므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풍자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기뻐하심이 있겠고 땅에서도 그려 할 것입니다.

물론경의 예언자인 엘마의 이야기는 어제도 어느 분이 말씀드린 바 있으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용기와 통정심으로 이러한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예언자의 아들인 그와 몇몇 젊은 친구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천사의 중재를 통하여 그들은 나쁜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엘마는 회개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 주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다.”(엘 41: 10)고 외쳤으며, 또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는 자비의 계획에 대하여 간증했

옵니다. (엘 42 : 15 참조) 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의를 위해서는 조금도 물려서지 않았으며, 회개하여 불의의 길에서 돌아서 나온 사람들을 따뜻이 맞아 주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면에서 큰 죄를 저지른 한 아들을 포함하여 자기 자녀들과 함께 범죄에 따르는 고통과 회개하고 용서하는 데 따르는 말 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고통보다 더 쓰며 괴로운 고통은 없었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 말하노니, 나의 아들아 그 후에 느낀 나의 기쁨보다 더 감미롭고 아름다운 기쁨도 없으리라. (엘마서 36 : 21)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허영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 사람은 처음으로 백성의 대판사가 되고 교회의 대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비를 구하여 “심한 영육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지냈으며… 영육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엘 38 : 8)으며, 그후 사람들에게 그려 한 힘과 사랑을 가르쳐, 그중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 “자비는 회개한 자 위에”(엘 42 : 23) 내려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경전의 어느 곳에서나 일관된 것입니다. 고귀한 깊은 예언자이며 지도자인 니파이는 회개와 신앙에 대하여 극히 감동적이며 교훈적인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니파이에서 제 4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궁휼히 여기사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부르짖기를, 오 나는 불쌍한 인간이로다. 나의 육신이 나를 슬프게 하며, 나의 죄가 다른 비탄케 하는도다 하고 밀하니라.

“이는 나를 섭사리 뒤엎어 버리는 유혹과 죄 가운데 묻혀 있음이라.

“내가 의지하여 온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면서도, 내가 기뻐하고자 할 때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신음하게 되는도다.”(니파이에서 4 : 17-19)

니파이는 참된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 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참된 뉘우침에는 근심과 고난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중대하고 전설적이며, 깨끗케 하는 것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고후 7 : 10 참조)

예언자 에스겔을 통하여 주님은 인간이 죄의 기다림을 받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면 그가 “영혼을 보전”받게 될 것이라고 그런 경우에 기뻐하십니다. (겔 18 : 23, 27~28 참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행위에 실망하여 꾸짖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 중에 그가 큰 위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후 7 : 9)

엘마는 그의 방탕한 아들 코리앤톤에게 들려준 홀륭한 가르침을 모두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는 그 홀륭한 교훈에 이러한 뜻깊은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이러한 일로 다시는 염려하지 않기 바라노니, 오직 죄가 너를 괴롭히게 하고 그 괴로움으로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엘 42 : 29)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회개한 죄는 용서하시고, 잊으시며,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뉘우침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려한 것을 전설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며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를 변경하려 하지 말지니라. 다만 하나님의 공의심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너의 심령이 가득차게 하

라. 또한 이로하여 너희 마음이 낮아져서 티끌처럼 겸손하게 되도록 하라.”(엡 42:30)

코리앤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지도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섬세한 창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사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할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대파멸은 원자 폭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창피를 당하게 되면 언제든지 대파멸이 발생하게 됩니다.”(아브라함 조수아 히첼)

오래 전에 요셉 스미스가 외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을 상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포도원에 나가 일할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잠시 시간을 내어 애통하는 자,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뒤에 처진 자를 이끌어 주고, 일 할 수 있는 동안 열심히 일

하도록 권고하여 다시 하늘 왕국에 들어가 쫓겨 나지 않도록 하고, 의로운 일을 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축복받게 될 훌륭한 약속의 땅인 시온을 되찾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언제나 변함없이 고귀한 것이니, 복음을 전하는 장로들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회개하도록 권하여,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 정사, 2:229)

내 딸아이는 처음에는 내가 부른 호칭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날 부르신게 아니예요.” 오늘 나의 말씀을 들으신 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위해 회개를 은의시며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증드립니다. 아멘. *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모든 사람이 그의 영원한 진보의 어떤 시점에서 이런 질문에 대답하게 될 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 는 여러분에게 영국 제도에 있는 성 도들과 선교사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나의 사랑하는 동반자 메어리와 내가 봉사하고 있는 영국 런던 선교부에 근무하는 자들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한 선교사로서, 그리고 이 위대한 회복된 교회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간증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은유하고 친절한 태도로 친구와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권리이자 의무를 가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그의 영원한 진보의 한 시점에서, 다가올 진리의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마 22: 42)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진보의 한 시점에서, 우리들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모든 눈이

볼 것이요, 모든 귀가 들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끓을 것이요,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 2: 10-11 참조) 또 “만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저가 하나님께 심을 고백하여”(도 27: 31, 롬 14: 11, 교성 76: 110 참조) 라고도 기록되어 있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마 22: 41-42, 45-46)

다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요 12: 34, 37)

그러나 또 다른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혹, 달리 말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님이 아들이시니이다”(마 16: 13-16.)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요 4:19, 25-26)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장자이심을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교훈 중의 일부를 따르기는 원하지만, 그의 교훈이 내포하고 있는 거룩하고 영원한 목적과, 전 인류에 대한 그의 생애의 의미를 인식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와 같은 물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주신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려 했고,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며, 성약을 맺고, 그를 따르며, 그가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위대한 교사 이상의 분입니다. 그는 메시야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이런 성서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나는 주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노니, 곧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거나 나의 율법이 되는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 아버지께 올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성 132:1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서에서 그에 관한 더욱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사람 속에 있습니다. 모

든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함은 그리스도의 빛인 양심의 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로 7:12-19)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구약의 여호와시며 신약의 구세주입니다. (아브라함 2:7-8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셨으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 1:1-5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시험을 받고, 모든 일에 상대를 갖게 됩니다. 자유의지의 영원한 원리를 통해, 우리는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만약 의롭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자유가 있으며, 속박과 영적 죽음을 택할 자유도 또한 있습니다. (모세서 4:1-4, 니이 2:27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지시 아래 땅 위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모세서 1:33, 엠 3:9 참조)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요 3:16, 17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눅 1:26-35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으며,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성령”으로 증거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1:10-11)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조직하셨으며, 열두 사도와 선지자와 철십인과 복음 전하는 자를 뽑으셨습니다. (엡 4:11, 뉘 6:13, 10:1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독특합니다. 그는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는 중보자이십니다. (교성 76:41-43, 요

3:17 참조)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이며 우리의 구주 이십니다. 육신의 어머니와 불멸의 아버지를 가진 그분만이 대속을 이룰 수 있읍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 26:39, 막 14:34-36, 뉘 22:41-42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 부활 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 20:11-18, 24:30; 뉘 24:13-44 참조) 그는 우리에게 부활한 존재의 신체적 특징들을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가 그의 뒤를 따를 수 있고, 발전하여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같은 방법으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수반하고 있읍니다. (행 1:9-11 참조) 바로 이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나타나셨으며, 자신이 성역을 베푸실 때 세웠던 것과 똑같은 조직을 이 말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성경에 추가해서 몰몬경이, 그의 거룩한 사명과 성역에 대해 중언하기 위한 또 다른 간증으로 세상에 계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과, 대관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시를 주심으로써, 그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세우셨던 것과 똑같은 조직인 교회를 이끌고 인도해 가십니다. (교성 102:9, 23; 신앙개조 9 참조)

“와서 나를 따르라”(뉴 18:22)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요 21:22)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는, 우리들 각자에게 그가 주셨던 목표입니다. 그는 전세에 영의 세계에서 사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읍

니다. 우리는 상태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맛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인해 부활될 것입니다. 그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도 합당한 자격을 갖춘다면 똑같은 영광 곧 해의 왕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영원히 살 수 있읍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깊게 생각 하십시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혹은 선교사를 만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전에 이 메시지를 들었고, 성령이 이의 참됨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활동 회원으로 돌아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의 유대 관계를 지속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청년 남녀 혹은 은퇴한 부부이며,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선교사로 가야 할 것이라고 증거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성약을 맺으십시오. 나의 부모님은 은퇴 후에 선교사로 나가셨으며, 2남 1녀와 일곱 명의 손자들과 4명의 증손들을 위해 지금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부활절기 동안, 이것이 나의 개인적 증이며 증언입니다. 오, 만일 내가 천사의 음성과 나팔을 가졌다라면, 온 인류에게 그가 부활하셨으며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약속된 메시야이며, 우리의 구속주요 구주이시며, 본보기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사명은, 그가 계신 곳에 도달하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인계되었으며, 그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은 그의 이름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행 4:12; 교성 132:12; 요 14:6).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소문으로 전해지는 어떤 교회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 흔들리게 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권고

나는 우리 중의 누구에게나 관련될 수 있는 신앙의 시험에 빠져있는 교회 회원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런 사람의 팔을 부축하여 그의 신앙이 위기에 처할 때 그를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주저하지 않고 잠시동안 여러분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문으로 전해지는 어떤 교회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려서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예로서 어떤 젊은이는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동료들로부터 늘 조소당하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사업에서 속임수를 쓴 감독 혹은 계약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하여 거짓되게 설명한 스테이크부장 또는 허위의 사

실을 제공하고 돈을 벌린 선교부장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읍니다.

또는 어떤 회원을 차별 대우 해서 신전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추천서에는 서명해 주어서 호의를 보이는 감독에 대해 그들은 말했읍니다.

소문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건은 복음이 참되지 않고 교회가 거룩한 영감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인도되고 있는 증거로서 설명됩니다.

그는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만족한 대답을 얻지 못했읍니다. 그는 방어할 수 없고 자신을 바보처럼 느끼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들에게 휘말리고 있었읍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모두 믿었을까요? 아마 그는 확신할 수는 없었읍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근거가 있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시험에 당면하게 되면 그에게 던져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님은 일생 동안 신전회, 성찬식, 상호부조회, 주일학교, 대회, 노변의 모임, 신학연구원 중등부반, 신전 모임 또는 기타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부정적 하라든지 사업에서 속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라고 권고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읍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었읍니다.

형제님은 교회의 서적, 경전, 교재, 교회 잡지나 기타 어떤 종류의 교회 출판물이든지 거짓말하라거나 훔치라거나 그릇되게 설명하라거나 사취하라거나 부도덕하거나 비천하게 되라거나 야비하게 되라거나 살아있는 영혼을 학대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다시 그는 한참 생각해 본 후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읍니다.

훈련 모임이나 지도자 모임이나 접견시에 형제님은 범법하거나 잘못 행하라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형제님은 극단적이 되거나 부당하게 되거나 무절제하게 되라는 말을 들어 보았습니까?

그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감독이나 상호부조회 회장이나 고등 평의원이나 스테이크 부장이나 총판리 역원의 행동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교회에 속해 있읍니다. 그런 행위가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읍니까?

그는 그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활동적이며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읍니다. 만일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권장한다면 여러분은 유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런 것에 대하여 관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되느냐고 물었읍니다.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리에는 어떤 회원에게 부정직하라거나 부도덕하라거나 무책임하게 되라거나 심지어는 무관심하게 되라고 하는 규정이 없읍니다.

여러분은 전 생애를 통하여 어떤 교회 회원, 특히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회원이 어떤 면에서 합당하지 못하면 교회의 표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와一致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신앙은 소문으로 전해지는 나쁜 행동에 관한 이와 같은 기사로 인해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잘못 설명되었거나 거짓된 사실로 인해 혼들려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낙담하면 교회에 그 원인이 있음을 틀림없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또한 이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교회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기타 여러 가지 경우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어떤 심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 관한 일이 발표될 때 만약 그가 우리 교회 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러나 침례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천주교 신자가 강도질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횡령했거나 살인했거나 자살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읍니까? 아마 그런 것을 읽은 적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 불행한 사람이 물론인 경우에는 그것에 관하여 언급할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요?

사실상 그것은 간접적인 칭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 회원들이 더 잘 알고 더 훌륭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은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쟁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는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니 삼 11: 29)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여러분의 신앙을 훼들리게 하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공정합니까? 그들이 교회의 높은 표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빗대어 말하며 소문으로 전해지는 나쁜 행동을 비난할 수 있읍니까? 거기에 대하여 주의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회에서 중책을 맡은 자가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일이 있읍니까?

그 대답은 물론 있읍니다. 그것은 예외에 속하지만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스테이크 부장이나 감독으로 부를 때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있읍니다. 형제님은 그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유혹을 받게 되며 형제님은 그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이기심을 갖지 않고 헌신하십시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형제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형제님에게도 시련과 유혹이 닥칠 것입니다. 사실상 형제님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과 유혹은 더 많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형제님 자신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만약 지도자가 함당하지 못하게 행동하면 그의 행위는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는 해임되어야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 불법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로 죄를 진 지도자를 교회로부터 파문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슬픈 의무가 되어왔는데,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나 교회에 대한 비회원의 신뢰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화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 세 목격자가 교회를 떠난 것보다 더 나의 신앙을 시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외모로 인하여 또한 교회가 교회의 원리를 고수하지 못할 유혹이 있었다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의 신앙이 혼들리게 했던 것이 어느날 내가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뒷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혼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관련된 자와 모두 접견을 갖고 모든 증거를 들을 때 까지는 참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마태복음 7:1-2)

몇 년 전에 나는 비판에 관하여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브리감시티의 시의회에서 직책을 맡

고 있었고 또한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밤 늦게 나는 고등 평의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빨간 불빛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시속 55킬로 미터로 가야하는 곳에서 시속 70킬로 미터로 달렸기 때문에 교통 법규 위반 징지를 베어야 했습니다. 나는 속도에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고 징지를 베었습니다.

시판사는 언제나 매우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으므로 나는 다음날 신학연구원 중등부 반 공과를 가르치려 가기 전에 이 일을 해결하려 갔습니다.

그 판사는 얼마 전에 몇 가지 새로운 가구



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때 그 신청을 승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시의원인 나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 땀지를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생각으로는 그가 나를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취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 못해 응낙했습니다.

“벌금은 1.6킬로 미터당 1달러입니다. 15 달러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벌금을 냈습니다.

이틀 밤이 지나고 나서 시의회 모임에서 시의원인 반디씨는 자기가 순경 한 명을 해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것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의원인 반디씨는 그 도시에 파괴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늦게 어떤 사람이 오락용 자동차를 타고 포리스트 스트리트로 내려가서 어린 나무를 풍랑 부려뜨렸던 것입니다. 또한 묘지도 파손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그들이 간판 뒤에 숨어서 방심한 운전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의원인 반디씨는 그들이 밤에 그 도시를 순찰하게 만들려고 일주일 이상 노력했습니다. 한 명의 젊은 순경이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해고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의원에게 교통 법규 위반 땀지를 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뒤에 해고당했습니다.

몇 사람의 대표가 중인으로 선 가운데 시의회 모임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언제나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자기를 해고당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런 일이 나타나기가 무섭게 그가 해고당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방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견상으로 보면 내가 영향력을 합당하지 못하게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의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사가 악식 절차에 따라 해고당했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그의 동료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대표가 교장 선생님의 사무실에 가서 그를 복권시켜 덜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대표는 교장 선생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단정지었는데, 이는 그 교장 선생님이 해고당한 교사와 사고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사는 (흔히 있는 경우이지만) 자기가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동료들은 항의하는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 교육 기구 임원들은 그 교사가 몇 가지 중대한 비행으로 인하여 해고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공표하면 그가 다시 교사로 고용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장 선생님은 어느 정도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공표되지 않는다면 그 교사는 회개와 보상을 통하여 다시 가르치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으며, 아마 교회 학교에서 다시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오랫동안 많은 비판과 심지어는 욕설까지도 판대히 참았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교육자로서의 평판보다는 한 가족의 유익과 그 교사의 재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예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의 여러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천 번 이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 및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전제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감독이나 그가 비판하는 회원이 우리에게 털어놓고 이야기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은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할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든지 분명히 우리가 관계할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자기 감독에게 문제를 상의하려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총판리 역원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는 감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와드의 어떤 사람이 감독에게 간 후에 곧 모든 사람이 그 문제에 관하

여 안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이 경우에 잘 살펴보면 여러분도 그 자매가 자기 이웃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 이웃은 그 자매에게 어떤 병고의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매는 다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다음에는 자매에게 이야기해서 서로 상충되는 충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매의 남편이 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감독을 만난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리하여 이야기가 퍼진 것이며, 감독이 말을 펴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독들은 비밀을 지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요한복음 7:24)

자, 이제 굳게 서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됨을 진증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의 사업을 지시하십니다. 이 교회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계획된 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언자에 의해서 올바르게 인도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지금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어느 날 곧 여러분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나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방해나 비판이나 박해를 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으로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믿하여 너희를 욕하고 펁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펁박하였느니라”(마태복음 5: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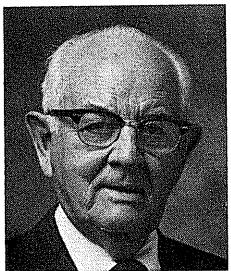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 이 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위를 향해 전진합시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



“마침내 우리가 대대적으로 전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이 교회가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는 매우 홀륭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자기 역할을 맡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말씀과 합창으로 나는 큰 감명을 받고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또한 많은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마침내 우리가 대대적으로 전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교회가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 있는가 하면, 미결 상태로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체계있게 길을 밝혀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근본적인 결정

은 교회의 회원이 차자 내려야 합니다. 교회가 내딛어야 하는 큰 걸음의 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디더는 큰 걸음의 폭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지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다시 위를 향해 계속 여행합시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이나 와드나 이웃에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기를 싫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개인으로서나 백성으로서 전진하기 위하여 이제 그 점을 맞추어야 하는 근본으로부터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리고 있었읍니다.

각 회원이 생활에서 기울이는 작은 노력은 교회가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정도로 전진하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음 4월 대회 이전 까지 활동적인 각 가족이 다른 가족이나 개인을 교회로 인도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십만 명의 새로운 교회 회원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각 와드에서 한 쌍의 성인 부부가 복음 선교사로 더 부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교사는 27,500에서 40,000을 넘어설 것입니다. 각 가족이 지금부터 다음 4월 대회 사이에 비활동 회원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을 활동화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수만 명의 사람들과 사귐으로써 얼마나 큰 기쁨을 얻겠습니까.

신전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이 다음에 한번만 더 엔다우먼트를 받는다면 현세뿐만 아니라 장막 저쪽에서 받을 축복에 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차자가 10월 대회 이전에 비회원인 이웃과 친구들을 위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조용히 봉사 활동을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교회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매달 몇 분씩만 더 개인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의 가족 생활이 얼마나 더 풍요롭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큰 축복이 따르

게 될 이 작게 보이는 것을 행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는 우리가 준비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 왕국의 커다란 성장의 열쇠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몇 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성취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회원으로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백성들은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망설이거나 회피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다음 단계를 밟도록 합시다. 그는 우리가 얼마나 합당하게 준비를 갖추었는지 측정하면서 우리의 친절한 교사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지금 모든 것을 감당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임이니”(교리와 성악 78 : 18)

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라고 명하시거나 우리가 준비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기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준비를 갖추었을 때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퇴보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무관심이나 정지나 죄의식을 낳는 죄, 둘째, 교회의 훌륭한 회원들이 그들의 모범의 능력을 보이는 데 너무 느리거나 그들의 빛을 비추이는데 너무 부끄러워 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에서 조금 더 결음의 폭을 넓히려는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로 합쳐질 때 교회의 큰 발전을 가져 올 작은 발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매우 큰 목표는 급격히 증

가하는 회원을 위하여 또한 그 회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킬 수 있도록 훈련된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활을 매우 위협적으로 침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로 노력하는 것은 회원들이 그들의 의를 통하여 성결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백성들이 “거룩한 곳에”(교성 87 : 8) 서도록 권고합니다.

세상의 상태와 악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 : 30)

복음은 우리 인생에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개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우리의 성공은 주로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가정에서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각 개인의 책임과 가족 및 가정의 역할을 분명히 알 때에만 우리는 신권 정원 회와 각 보조 조직, 나아가서는 와드나 스테이크까지도 본질적으로는 각 회원이 가정에서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돋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프로그램은 언제나 복음을 중심으로 한 가족 활동을 도와야 하며 이것을 존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각 회원은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과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돋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이 우리가 겨하고 싶은 장소가 되고 경청하고 배우는 장소가 되며, 각 구성원이 상호간의 사랑, 지지, 감사, 격려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운을”(교성 78 : 18) 내도록

합시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때 더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진실로 더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봉사함에 따라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이 들을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6:12; 막 4:33 참조)

주님은 우리가 크게 발전할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총판리 역원들이 그들의 영혼을 다해 우리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침에 따라 그들의 말씀으로부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하게 정의를 내리고 훌륭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모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성구에 대하여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마태복음 16:13-16)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하려 하는 것이며, 모든 나라, 왕국, 방언, 백성 및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를 참되고 중요한 방법으로 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인용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마 16:17, 19)

또한 이 경전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를 따르는 방법을 가르치며, 우리가 그들에게 줄 권능을 하늘로부터 받은 이런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축음이 가까왔을 때 남긴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 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신지를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좋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셋 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베드로후서 1:14-20)

이제 또 현대의 성구를 첨가하고 싶습니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잔증

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합이니라.” 여러분은 이 대회를 통하여 참된 마음을 가진 총판리 역원들로부터 강한 간증과 함께 이에 관해 전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냉으신 아들 팔이라는 간증을 들었읍이니라.”(교리와 성약 76: 22-24)

성구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두 눈은 하나님을 보았거니와 나의 육안으로 써가 아니요, 영 안으로 보았도다. 이는 나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연고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서 나는 말라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음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도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이 변하였읍이니라.”(모세서 1: 11)

또 다른 성구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려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 15-17)

이제 주님은 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

과 그의 교회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에게 보이라. 나에게 보이고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기쁘고 훌륭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는 항상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양을 먹이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헤이트 형제가 말씀하신 성인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관하여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은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한 우리 노인들은 이것을 잊고 캠핑하기에 좋은 장소나 기타 다른 편안한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애들을 내보내겠다고 말함으로써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헤이트 장로가 말씀하신 생각이 몹시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행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말일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대로 복음을 훌륭한 방법으로 주의 깊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과 힘과 영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양을 치라 내 어린양을 치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는 해야 할 어린양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자기 집을 지키는 것과 일지를 작성하라는 등의 우리가 제언한 것을 행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누구나 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깨워 주는 것이 되며, 가족에게 큰 축복

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오늘 회개하고 자신의 생활을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우리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여러분이 행하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좀더 행하시기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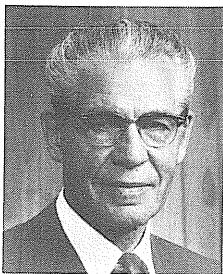
우리는 축복이 필요한 이웃에게 축복을 줄 능력과 세상에서 지금 그런 축복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다음 대회까지 또한 그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노니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지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고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교회 평의회의 새로운 중요성

엔 월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교회의 종무와 세상적인 실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구, 복합 지역, 지역 평의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김 볼 대관장님은 지구 및 지역 단위에서 교회 일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의 확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국제화 되며, 전세계를 통한 종무와 실무를 증진시킬 책임이 커지므로 우리는 교회 행정에서 평의회의 역할의 새로운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모든 관리 조직의 단위에서 행해지는 교회 활동은 질서정연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과 교회 관리 감독인 빅터 엘 브라운 감독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으로 교회의 여러분야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교회는 초창기부터 지도자 평의회가 관리해 왔습니다. 교리와 성 약에 되풀이하여 설명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권 평의회가 교회의 기본적인 조직입니다.

이러한 평의회는 때때로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감독과 엘기세비 신권 지도자들에게 와드의 일에 관하여 조언하는 와드 평의회처럼 자문 기관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평의회는 1977년에 대관장단에서 발표한 교회 최고 조정 평의회처럼 조정하는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이 평의회는 대관장단, 십이사도 평의회,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의회에서 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며, 교회의 사업을 조정하고 협의합니다.

교회 최고 조정 평의회는 십사숙고한 후에 교회 전체를 통털어 지구 및 지역 단위로 평의회를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합 지역 평의회를 조직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평의회는 교회의 모든 일을 좀더 잘 조정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지역 및 지구 지도자들은 필요 사항과 관심사와 활동 기회에 대해 충분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해줄 토론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평의회는 관리 감독단의 지시 아래 세상적인 일을 처리하도록 설립된 조직이 현지에서 봉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더 훌륭한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과 지역 평의회의 지역 대표가 교회의 각 관리 조직 단위의 여러 가지 활동이 확실히 조정되고 통제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합당하게 조직되어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이러한 평의회는 각 개인과 가족이 축복을 받기를 위해 통일된 방법으로 교회의 종무와 실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권 평의회가 확장됨으로써 능률화 조화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수준도 높아지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잘 말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엡 4 : 12, 13)

이제 나는 바울의 서한에서 우리가 늘 인용하지는 않지만 새로 발표한 이 신권 평의회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다음의 두 구절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태

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에베소서 4 : 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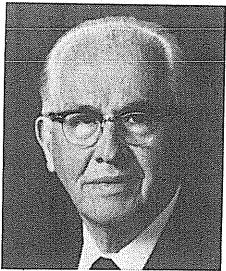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온 몸이 각 마디 혹은 평의회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종무와 실무에 관하여 모두 다 신권의 사슬을 결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이 각 지역 단위에서 신권 평의회에 참여하여 힘을 주고 유익을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온을 전설하는 이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평의회를 통한 교회 행정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오늘 우리는 통일과 조화와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왕국에 유익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 당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태너 부대 관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오늘 지역의 교회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발전에 대하여 발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게 될 것은 수개월간에 걸쳐 연구하고 심의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교회 평의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전과 전통적인 교회 행정 절차에 의한 원리를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준비 모임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발표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자료에 의존하여 필요에 따라 시각 자료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나는 이 발표 내용이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 관리 감독단이 온 마음을 다하여 승인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하는 것이 교회의 여러 지역에서 의사 소통과 단합을 매우 손쉽게 하고 왕국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발전의 의미를 더 완전히 이해하는 데 몇 가지 배경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종무는 주로 십이사도 정원회가 집행하고 실무는 관리 감독단이 집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이 관례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지역 관리자, 지역 대표, 스테이크부장 및 감독으로부터 지역 역원까지의 관리에 관한 전통적인 권능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권능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역의 실무를 신중히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어떤 나라에서는 관리 감독단 지역 관리자를 두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총관리 역원 지역 관리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해 왔으며 실무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관리 감독단에게 보고했고 관리 감독단은 대관장단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강조하고 싶어 하는 원리는 베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제1보좌인 스티엘 리차즈 장로의 다음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행정의 특성은 평의회를 통한 행정입니다. 대관장단 평의회, 십이사도 평의회, 스테이크부장단 평의회...감독단 평의회... 나는 평의회의 중요성을 알기에 충분한 경험을 했습니다...나는 지혜를 압니다. 나는 평의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압니다. 영으로써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견해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도 단합할 수 있읍니다. 영의 영 향력을 받아 서로 권고함으로써 그들은 일치할 수 있읍니다.”(1953년 10월 대회 보고, 86페이지)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및 관리 감독단은 교회 본부, 지구, 지역 단위로 평의회를 조직하도록 결정했읍니다. 이러한 평의회는 교회 최고 조정 평의회(본부), 지구 평의회 복합 지역 평의회(필요한 경우에만), 지역 평의회 현재 있는 스테이크 및 와드 협의 평의회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의회가 효율적인 것이 되기 위해 각 단위 조직에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계획하고 해결하는 조직이 있도록 포괄적으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의회가 올바르게 조직되어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통일된 방법으로 일을 관리할 수 있읍니다.

또한 총관리 역원 지역 관리자의 칭호를 집행 관리자로 바꾸고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관리 감독단 지역 관리자의 칭호를 실무 책임자로 바꾸기로 결정했읍니다. 칭호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지금부터 당장 효력을 발휘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관리 감독단이 교회 본부나 지역으로부터 실무를 처리하고 관리할 사람을 지명할 것입니다.

이제 지구, 지역 및 기타 지역 단위에서 이러한 평의회의 행정에 참여할 모든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이사도는 계속해서 종무에 관심을 가지며 관리 감독단은 계속해서 실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나누는 것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있어서는 영적인 것입니다. (교성29 : 34)

이제 나는 이러한 평의회에 관해서 각 단위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교회 최고 조정 평의회

이 평의회는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및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장들도 이 평의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청하며, 또한 본부 복지 봉사 위원회에도 참석하도록 초청 할 것입니다.

교회 최고 조정 평의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대한 예의를 설정하며, 수행할 권능을 주며, 지구 평의회가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 최고 조정 평의회와 지역 행정 기구간의 연락은 종무에 관한 계통과 실무에 관한 계통을 통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최고 조정 평의회는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이며(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한) 따라서 지구 및 지역 평의회는 그 지침 안에서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시간과 돈 모두)의 분배에 균형을 취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해결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 예로서 교회의 모든 지구 평의회가 제출한 신청서에 1년 동안에 800개의 건물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으나 교회에서는 600개의 건물을 지을 시간과 돈의 자원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교회 최고 조정 평의회는 어디에서 그 자원이 가장 필요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 평의회에서는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모든 종무와 실무를 검토하고 승인할 것입니다.

둘째 : 지구 평의회

협의하고 조정하고 계획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지의 첫째가는 평의회는 지구 평의회입니다. 이 평의회는 집행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구 평의회는 해당 지역의 관심사를 다루고 본부에서 승인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모든 지역 사무실과 스테이크 사무실에 전하게 됩니다. 지구 평의회는 최소한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여야 합니다.

지역 대표는 지구 평의회 모임에 참석하

며, 집행 관리자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일하게 됩니다. 지역 대표는 주의를 기울여 온 몇 가지 특정한 예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스테이크 부장을 위해 병과 장교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평의회 체제에 있어서 지역 대표는 관리자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제 그는 지역 단위에서 교회의 일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구 평의회는 지구의 정체적인 계획, 즉 중요한 활동과 목적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실무에 관하여 상세하게 계획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역 대표와 선교부장(초청할 경우), 스테이크 부장(초청 할 경우)은 종무에 관하여 상세하게 계획합니다. 집행 관리자와 실무를 맡도록 지명받은 사람은 모든 계획을 실행하기 이전에 지구 평의회에 제출하여 검토하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전세계에서 지구 평의회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피고 나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펴봅시다.

가.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구 평의회.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구 평의회 회원으로는 집행 관리자, 실무 책임자 및 지구 내의 모든 지역 대표가 포함됩니다.

기타 그들의 책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토의할 때 참석하도록 초청할 사람은 지구 복지 사업 책임자, 지구 시설 책임자, 지구 재정 책임자, 지구 물자 관리 책임자, 지구 자료 관리 책임자, 지구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 지구 교회 공보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필요하면 집행 관리자가 선교부장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집행 관리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에서 종무에 관한 일을 관리하고 지시함.
2. 모든 지구 평의회 모임을 관리함.
3. 우선 순위를 정함.
4.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감독함.
5. 정체의 범위 안에서 통제함.

6. 훈련시킴.

실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게 됩니다.

1. 종무에 관한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는 운영 업무를 관리함.
2. 계획하는 것을 도움.
3.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함.
4. 훈련시키는 것을 도움.

집행 관리자(총관리 역원)와 실무 책임자(관리 감독단을 대표함)는 각기 독립된 청지기 직분을 갖고 있지만 공동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지구의 모든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집행 관리자와 실무 책임자로 구성되는 평의회의 집행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평의회 의제를 정하고, 지침을 계획하며, 각 계간 평의회 모임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실무를 결정합니다. 서기가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 노력으로 통해 각기 별도로 보고하는 그들의 관계가 존경되면서 공동 목표도 달성됩니다. 이 집행 위원회는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모이거나 필요에 따라 자주 모이게 됩니다.

이제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의 지구 평의회를 살펴봅시다.

나.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지구 평의회 집행 관리자와 지구 내의 모든 지역 대표가 지구 평의회 회원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 관리자가 선교부장을 초청할 수 있음을니다.

그들의 책임에 관련되는 것에 관하여 토론할 때 초청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 복지 사업 책임자, 지구 교회 공보 책임자, 지구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 및 기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구 복지 사업 책임자가 참석해서 참여하지 않고 서는 복지 사업에 관한 것을 토론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는 실무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지구 평의회가 수행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평의회가

수행하는 것과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부의 여러 과는 집행 관리자와 협의하여 지명된 사람에게 복지 사업 및 시설에 관한 직무를 맡길 것입니다. 이들은 집행 관리자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일하며, 필요에 따라 지구 평의회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관리 감독단은 실무를 맡을 사람을 지명하거나 정기적인 지구 평의회 모임에 본부 직원이 참석하도록 초청하는 것을 승인할 것입니다. 관리 감독단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1. 종무에 관한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는 운영 업무를 관리함.
2. 계획하는 것을 도움.
3.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함.
4. 훈련시키는 것을 도움.

셋째 : 복합 지역 및 지역 평의회

복합 지역 단위에서의 복지 사업 활동에는 평의회가 필요합니다. 이제 복합 지역 평의회를 살펴봅시다.

가. 복합 지역 평의회 복지 사업 활동을 위하여 복합 지역 평의회를 승인했습니다. 집행 관리자가 이러한 평의회를 관리하며 절차는 지구 평의회와 같습니다. 복합 지역 평의회는 집행 관리자, 지구 복지 사업 책임자(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포함되어 있는 여러 지역의 대표, 복합 지역 복지 사업 책임자로 구성됩니다. 복지 사업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토론할 때 집행 관리자가 지명한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 의장과 여러 지역 평의회 중의 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도 회원으로서 봉사합니다. 복합 지역 평의회는 “필요에 따라” 모입니다.

이제 지역 평의회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지역 평의회. 지역 평의회는 지역 대표와 여러 스테이크 부장으로 구성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에 관련된 것에 관하여 토론할 때 지역 복지 사업 대표, 지역 공보 책임자, 지역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 및 필요에 따라 기타 종무와 실무에 관한 프로그램의 대표가 참석하도록 초청하게 됩니다. 복지 사업에 관한 것을 토론할 때 지역 대표가 지명한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 의장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이 참석해야 합니다. 집행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교부장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평의회는 교회 본부, 지구 혹은 복합 지역 평의회의 모든 활동을 전하고 수행하는 동시에 여러 스테이크에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성질의 문제를 다루고 협의합니다. 지역 평의회 모임은 적어도 3개월에 한번씩 가져야 합니다. 간단하게 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기 위하여 평의회 준비 모임을 계속 할 수 있으며, 이 준비 모임이 지역 평의회 모임으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 대표는 지구 평의회에서 집행 관리자가 행하는 것과 같은 의무를 수행합니다.

지역 평의회의 사업을 돋기 위하여 지역에서 복지 사업 운영을 맡고 있는 교회 복지 사업 대표를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 스테이크 평의회

스테이크 협의 평의회와 스테이크 복지 봉사 위원회의 구성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섯째 : 와드 평의회

교회 평의회에 관한 이 같은 중요성은 와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와드 협의 평의회와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의 회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단위의 평의회 체계에 관한 개요가 설명한 대로 소개될 것입니다.

마지막 : 가족 평의회

우리가 계속해서 가족의 단합과 결속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족 평의회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이 가족 평의회를 갖도록 권고하여 우리는 자신의 가정에서 하늘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테이크 부장되시는 분들에게 말

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이전에 스테이크 부장이 다루던 복지 사업 및 공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 중 많은 것들을 이제 지역 대표가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도기에 현재 진행중인 활동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스테이크 부장 및 다른 사람들은 집행 관리자가 정식으로 해임 시킬 때까지는 자기 지역, 복합 지역 또는 지구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도기 동안 집행 관리자는 이 사업의 모든 면(교회 봉사 역할을 부르고 해임하는 것을 포함)에 대하여 주의깊게 생각하기 위해 교회 교육 기구 대표, 공보 대표 및 특히 복지 사업과 대표를 만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구체적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정원회에 관하여 지시하고 있지만 교회 조직 내의 모든 평의회에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나는 107편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이상의 어느 정원회가 내린 결정은 다른 정원회의 만장 일치로 이루어져야 하나니, 각 정원회의 모든 회원은 그 결의에 찬성해야 하느니라...

“이들 정원회...가 내리는 결의는 참으로 정의와 거룩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신앙과 유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애와 인내로써 이루어져야 하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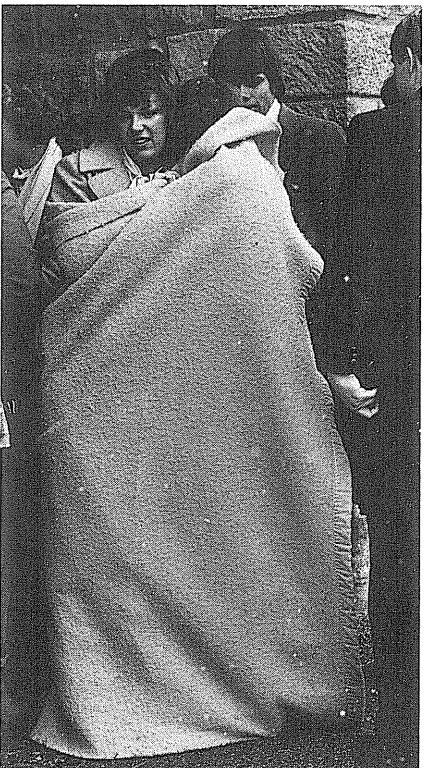
“이는 만일 저들이 이것들을 풍성히 지니면 주에 관한 지식이 결코 궁핍하게 되지 아니하리라한 약속이 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07: 27, 30, 31)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 행정의 모든 단위 조직에서 우리가 신권 평의회를 통하여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종무나 실무에 관한 이 사업의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교회의 일을 관리하는 데 통일성을 국대화하기 위해 내딛는 거대한 걸음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방금 인용한 계시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전념하여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왕국의 유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향을 입어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통일과 조화와 능률을 국대화하기 위해 이 신권 평의회 방식대로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실무 계획의 개발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교회의 설비, 재정, 복지 사업, 물자 관리, 및 자료 관리에 관계하는 평의회를 재강조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벤슨 회장님의 말씀하신 요지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발걸음을 내어 린는 것으로서 교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성장할 것에 대비하여 신권 소유자가 준비를 갖추도록 도움이 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의 종들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역, 복합 지역, 지구에 평의회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관리 감독단에서는 이제까지 말씀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열렬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리 감

독단에서는 대관장단의 지시를 받아 교회의 많은 실무를 집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에는 시설, 재정, 복지 사업, 물자 관리, 자료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전세계를 통하여 신권 사업에 필요한 것과 교회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실무에 관한 이 조직 기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우리 본부 관리 책임자들과 그 관리 직원이 관리합니다. 이러한 여러 곳 중에서 일부 인원은 운영 및 관리계 등으로 분산시켰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런 기능이 모두 분산되어 있으며 세계 각 지역은 실무 책임자가 관리합니다. 각 지역 사무소는 위에 말씀드린 이런 모든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게 되어 있는 4가지 주된 책임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책임 중에서 몇몇은 특히 복지 사업은 이때까지 스테이크 부장과 각 지역의 위원회 등에서 수행해 왔으므로 여러분이 이점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의 종무에 필요한 것을 도와 주는 일을 합니다. 이 말은 실무 직원은 대지 구입, 건축, 토목 산업의 운영, 창고, 직업 소개소, 사회 사업 기관, 교회 물자의 분배 등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복지 생산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부의 다섯 파의 각 관리 직원과 실무 책임자는 각자 예산을 마련하고, 활동을 조절 하며, 업무 감사, 법적 및 세무 관계 해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대한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는 지구 평의회를 통하여 기획에 참여합니다. 주요 기획은 종무 및 실무 지도자가 상호 기안해내고 집행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때로는 조정 기획이라고도 말하는 세부적인 일은 실무 직원이 주로 행하게 됩니다. 이는 각 파나 직무에 적합한 관계 자

료를 입수하여, 실무 자료를 뽑아내고 필요한 출판 자료를 미리 계획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고 복지 사업 종합 계획서의 실무 부분을 준비하는 등의 일이 포함됩니다.

셋째 우리는 광범위한 기술적인 면에서 광범위한 서비스를 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집회소의 설계, 복지 농장에 관한 운영 결산 관리, 회원 배치 조직 등이 포함됩니다.

넷째 우리는 연수 작업을 지원해 주는데,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로 연수시키는가는 지구 평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연수 지원으로 품을 수 있는 사항은 자료 준비와 기술적인 면을 교육시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책임은 가능한 한 가장 저렴한 비용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참된 원리입니다.

교회의 몇몇 선정 지역에서는 우리 직원이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무 담당 직원이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종무 담당 지도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의회에서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온 여러 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작년 한 해 동안 복합 지역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서 자급 자족하는 복지 사업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자라는 수확물의 숫자를 7에서 26으로 세배이상 증가시켰습니다. 통조림 제품은 3에서 7로 늘어났으며 추징금은 거의 다 없앴습니다. 추징금은 76,000달러에서 3,000달러 이하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1980년에는 18가지 종목을 더 추가하여 생산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즉 감독의 지시에 포함되어 있는 44가지의 기본 식품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농장끼리 수확물의 유통 과정을 통합하여 상당히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 프로그램에서

낙농업을 하는 곳에서는 전초를 생산한 다른 복지 농장으로부터 전초를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에 내다파는 종목이 점점 줄어지고 감독의 창고 제도에 의하여 생산하는 것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시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이 실무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로 계획을 수행하여 전부터 바라온 자급 자족을 향해 상당히 진전할 수 있었읍니다.

벤슨 회장님의 이 평의회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내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지구 평의회 조직간에도 핵심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국제 지역의 조직간에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단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는 실무 책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지역 환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 봉사 등과 같이 분리된 본부의 기능적인 과나 시설과 등과 같이 중요한 실무 활동을 맡고 있는 곳에서는 집행 관리자와 함께 일선에 나서서 일 할 관리 책임자나 기타 관리 감독단이 지명한 사람과 지구 책임자를 지명하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실무 책임자가 맡은 직무에 따르는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광범위한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복지 사업 지구 책임자를 모두 임명하는 것만해도 수주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각 분야의 실무 직원들은 지구 평의회 모임과 관련되는 모든 새로운 조직이 설립될 때까지 현재의 보고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임에서 여러분은 이런 변화가 자기 지역과 직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들게 될 것입니다.

복합 지역 및 지역 평의회는 지구 평의회의 결정을 전달하고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지역이나 스테이크가 관련된 활동을 집행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조직됩니다. 복합 지역 및 지역 평의회의 조직 구조는 미국과 캐나다 및 전세계가 똑같습니다.

지구 평의회와 복합 지역 평의회의 중요한 차이점은 복합 지역과 지역의 회원은 현재의 복지 사업 평의회 또는 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복지 사업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스테이크 임무 평의회 회장과 지명 받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이 가결권을 지닌 회원으로서 평의회 모임에 참석할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실무 책임자는 실무를 담당한 대표들이 특별한 기능에 관계되는 안건을 토론할 때 복합 지역 및 지역 평의회 모임에 참석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 평의회 방식에서 가장 의미 깊게 생각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우선 순위와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 집행 관리자는 종무 계열의 지시를 받아 각 지역의 필요성에 적합한 우선 순위를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 실무 직원들은 대개 이 우선 순위에 따라 일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의 복지 사업에 관한 일을 할 때 이 점은 중요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지역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것을 수차 들었습니다. “우리는 와드와 스테이크나,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복지 사업에서 어떤 면을 추진시켜 나가야 합니까?” 나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신권 지도자들이 적어도 한번 이상은 스스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복지 사업이 사십년 이상 계속된 미국 서부에 속하지 않는 스테이크 지도자들이 특히 그런 것입니다.

복지 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특히 창고 자원 제도의 운영에는 주님께 우리가 제안한 계획이 올바른 것인지 여쭙고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추어 주님으로부터 그 타당성

에 대한 인정을 받도록 상당히 연구해야 합니다.

대관장단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세밀히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의 교회가 자급 자족할 수 있게 해 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인간의 필요 사항이 수시로 변하며,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현대의 불확실성, 지난한 회원을 돌보아야 하는 교회의 의무 독립하라는 주님의 계명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떼에 맞춰 행해야 합니다.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 위원들은 전세계에 퍼져있는 여러분의 지역을 방문하여 그 동안에 우리는 지역 지도자들이 좀 더 광범하게 복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열의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는 각 지역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곳 웨스트 산에서 시행되는 보다 발전된 복지 사업을 보고 그들이 목격한 대로 각자의 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획을 합당하게 수립하지 못하면,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실망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서도 지도자와 회원들이 다같이 실패감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따라 필요 사항과 적절한 시기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여러가지 계획 방법과 과정을 개발해 왔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기본 계획과 둘째, 종합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 비공식적인 것이며 대개 와드 단위로 행해집니다. 감독은 정규적으로 자연스럽게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 모임을 가져 이것을 행합니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계획은 기본적인 것만을 다루어 복지 사업 위원회와 평의회를 조직하고 복지 사업에 관련된 복음 원리를 가르치며,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육성

하는 것과 금식 헌물 기금으로 회원을 돋는
것이 포함됩니다.

어떤 지역이나 지구가 충분히 성장하여 창고 자원 제도를 설립할 준비를 갖추게 되면 더 광범위하고 깊이있는 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계획은 복지 사업 종합 계획으로 불립니다.

복지 사업 종합 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이 포함됩니다.

1. 복지 사업의 원리를 가르치는 계획을 개발함.

2. 가난하고 궁핍하며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알아냄.

3. 그런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자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함.

종합 계획이 완전히 수행되면, 그 지역 내에는 주님의 불쌍하고 빈곤한 사람을 보살피는 감독을 둘기 위하여 창고 자원 제도의 첫 결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52 : 40)

단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종합 계획의 목적을 훌륭하게 할 수 있읍니다. 제 1 단계는 조정 또는 일반적인 일에 관한 것입니다. 제 1 단계 계획의 성과는 그 지역에 현존해 있는 교회 복지 사업을 설명하고, 앞으로 나타날 결과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읍니다. 제 2 단계 기술 또는 운영상의 문제와 관계가 있읍니다. 그 지역이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적시에 창고 자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이 제 2 단계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종합 계획 과정에는 일곱 단계가 있읍니다. 지구 평의회를 통하여 종무 및 실무 직원들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원리와 프로그램을 가르치기 위한 공식적인 지구 계획을 작성해서 수행함.

2. 필요 사항과 자원 조사를 끝냅

3. 감독의 저장 목록을 검토하고 조정함.

4. 법률, 세법, 농업적인 면에서 지역 조건과 장애를 조사함.

5. 종무 구역과 서비스와 사업의 배치에 관

하여 전의를 나타내는 지도를 준비함.

6. 필요한 사업과 서비스를 추천함.

7.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음.

종합 계획 과정은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각 지역 대표와 스테이크 부장은 담당 접행 관리자의 지도를 받아 복지 사업 종합 계획에 필요한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완전하게 계획할수록, 여러분 지역의 복지 사업을 좀더 합당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공동의 힘을 모을 수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 사업 위원들은 응분의 역할을 다할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그들이 쌓아 온 경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지역적인 필요 사항을 훤히 알고 있는 여러분의 영감과 함께 힘을 합쳐게 되면, 다음 해에는 복지 사업을 무리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얻게 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기본 계획과 종합 계획에 관한 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지난 10월에 베시코의 베어메이힐로에 있는 교회의 지부에 관하여 보고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부장과 그의 복지 사업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지부내에서 교회의 기본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계획을 수행했읍니다. 그 일로 교회 회원들의 생활은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었읍니다. 그들은 집에 페인트 칠을 하고 가축을 울타리로 둘러 쌌으며 보건 위생 습관을 강조하면서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요점을 가르쳤읍니다.

그 결과 현재 짓고 있는 건축 중에 벽돌을 쳓는 것부터 건축 공사의 대부분이 회원들이 하고 있읍니다. 루돌포 월리엄 모레슨 선교부장님은 그 지부가 지금은 와드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정원을 갖고 있으며 어떤 가정에서는 벌을 쳐서 꿀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일년 치 양식을 저장하기 시작했읍니다. 지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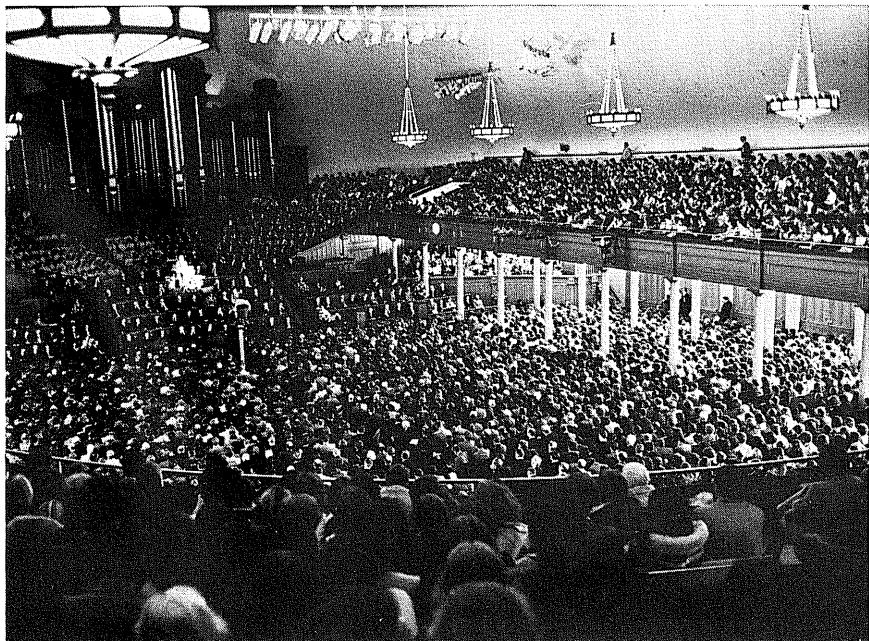
에 개종하여 침례받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읍니다. 이런 모든 일은 8년 전에 개종한 카스타네이다 감독님이 베어메이힐로에서 회원들이 복음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회원들의 부지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게 된 기본 계획으로 이 와드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정도로 높이 향상하게 되었읍니다.

이제 나는 조건이 꽤 어려운 이곳 미국에서 발생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조오지아-엘라배마 복합 지역에서는 종합 계획의 7단계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본부로부터 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복지 사업 책임자 및 그 대표자들이 스테이크 복지 사업 위원회와 이 복합 지역을 구성하는 두 지역의 평의회와 함께 이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15개 월 동안에 그들은 23종의 생산물을 거두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가지도 생산하지 못했읍니다. 그들은 창고를 짓기 위한 기금을 모아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데 늦

여름까지는 개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일성도 사회 사업 사무소도 개관했읍니다. 여러 감독은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더 잘 훈련받았으며 성도들은 이런 일에 참여하여 월션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그들은 15개월 전과 같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읍니다.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30)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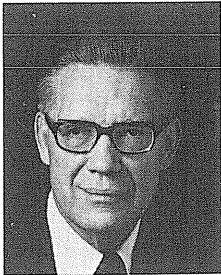
신권 지도자들과 실무 담당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알고, 그 후에 합당한 평의회에서 일하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한 결과를 직접 보게 되면 고대의 예언자 뿐만 아니라 현대의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성취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하여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교성 107:99) 하려는 열의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하라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그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재능과 힘과 정력과 능력과 재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 회원들 앞에 서서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바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음성인데 이는 내가 오늘날에 관하여 사도와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것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람산의 예수님 말씀이며 빛모섬의 요한의 말씀이며 미주리주에서 폭도들에게 살해되는 요셉 스미스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쏟아질 측량할 수 없는 고난과 황폐에 대비할 것을 명하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잠시동안 화평과 번영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항상 그렇게 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앞에는 커다란 시련이 놓여 있읍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위기는 앞으로 있을 일의 전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준비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날 때, 천국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고, 해의 왕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영예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령을 안내자로 삼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육적인 준비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방법대로 유용한 지구를 선용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지만 주님 자신의 방법대로 행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성 104 : 14-18 참조)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식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현세적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종교는 영적으로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세적인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음 세상에서 영적인 일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현세적인 것 즉 땅과 집과 수확물과 땀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것과,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리고야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창 3 : 19 참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해의 영광의 세계에 있을 곳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요구한 바를 수행하므로써 스스로 준비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78 : 7)

그리고 교회와 그 회원들이 모두 그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저들의 현세적인 문제에 대하여 “자신을 준비하고 조직”하도록 명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닥칠지라도 나의 섭리를 통하여 교회 회원이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마련된 면류관을 얻고 많은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교성 78:11, 14-15)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주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현세적이며 영적인—을 이룸으로써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독립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는 시련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물결은 한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퍼져갈 것이며, 마침내는 모든 나라가 전쟁의 도가니속에 휘말려 2억의 군대가 아파게돈에 모여서 대전투를 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평화는 거두어질 것이며, 멸망의 천사들이 저들의 일을 시작하여, 평화의 왕자가 악한 자를 멀하고 위대한 복천년으로 인도할 때까지, 칼을 휘두르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진과 홍수와 기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국경을 넘어 범람할 것이며, 구름은 비를 거두어 가서 지상의 작물은 말라 죽어 버릴 것입니다.

역병과 질병과 죽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재앙에 둘러싸일 것이며 황폐화하는 질병이 땅을 훑을 것입니다. 파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달라붙을 것이며 구더기가 달려들 것입니다. (교성 29:14-20 참조) “저들의 살은 그 뼈에서 떨어지며, 저들의 눈은 안과에서 빠지리라.”(교성 29:19)

개다이엔톤 강도들의 무리가 모든 나라에 출몰할 것이며, 부도덕과 살인과 범죄가 증가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손을 드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더이상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읍니다. 이런 일에 대해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 성서를 연구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으며, 이런 일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외교관들의 협상과 조약에 의해 평화를 얻게 되리라는 희망이나, 교육에 의해서 평화와 질서가 유지됨으로써 인류가 복천년으로 인도되리라는 희망, 또 말일에 질병과 황폐

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과 확약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으리라는 속단은 오늘날의 서글픈 이단의 교리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주장하고, 전쟁을 피하며, 질병을 고치고, 자연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하지만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닥칠 것은 닥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식별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에 대한 밝은 이해를 갖고 있으므로, 교회와 마찬가지로 개인도 자신과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그에 대비하여 재능과 힘과 정력과 능력과 재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이 세상의 끝날까지 세상이 악 가운데 거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살겠지만 주님의 도움을 얻어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육과 더불어 온갖 세속성을 탈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탈출하여 우리와 한 성도가 되어서 생활하도록 권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로서 우리는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립”(교성 78:14)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암흑의 사슬을 풀며, 세상 위로 솟아 올라 거룩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차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와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 있읍니다. 힘들고 긴 시간을 꾸준히 일해서 우리의 등이 끊이고 피로한 근육에 마디가 생길 때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매일매일 일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의 시험 시간은 우리가 온 흙으로 되돌아 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는 가운데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생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우리 육신에 힘이 남아있는 한 우리 자신을 부양하는 책임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불로 소득에는 악이 개재되기 쉽습니다. 근면, 절약, 그리고 자궁심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정원을 가꾸며, 식량을 저장해야 하며, 일상사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자신을 연단시키야 합니다. 다른 어느 누가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읍니다.

우리는 또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있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형제 상호간에 친척지간에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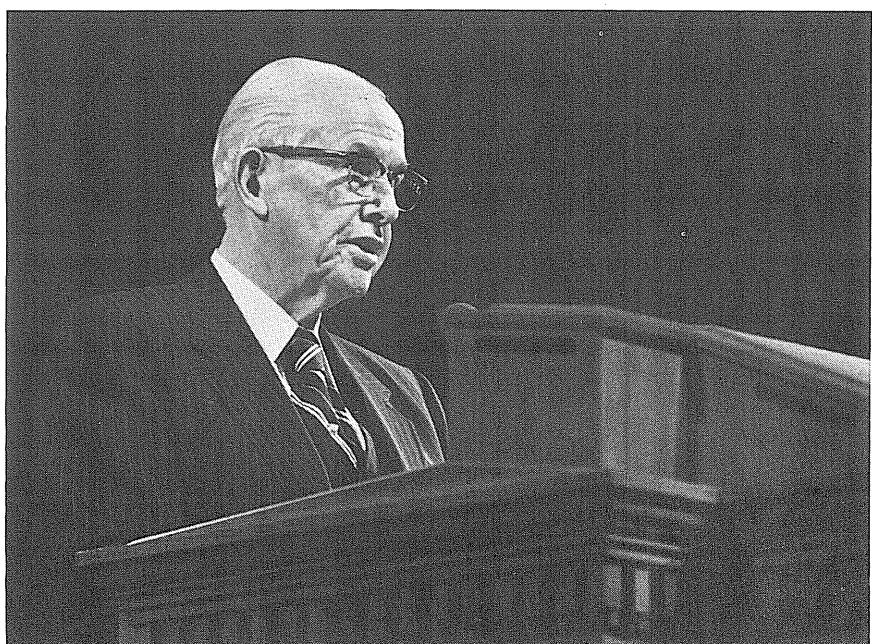
성도들이 바벨론의 무상 배급과 사악한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립을 돋고, 필요시

에는 음식이나 의류·기타 생활 필수품을 이용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회의 시책입니다. 가난한 회원들을 돋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농장을 운영하고, 포도원을 가꾸며, 목축을 하고 공장을 가동하며, 기타 필요한 일들을 이 세상의 악의 권세에서 독립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일의 참화나 재난이 우리 종의 어느 누구—곧 개인이나 성도의 집단에—언제 떨어질는지를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신중히 보류하고 계시며, 재림에 앞서 있을 시련의 날도 보류하고 계시는데, 이런 모든 것은 이 펄펄의 세계 속에서 겪는 시험의 일부입니다. 그는 단지 깨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 있을지라도, 그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을 경주했다면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도와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굽주림으로 죽지



않도록 매주 6일 동안 40년 간을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나안의 봄은 육수수를 먹은 다음날부터는 만나가 끊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들은 자신의 식량을 스스로 조달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6:3-4, 35)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과 신발은 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주님은 저들이 입어야 할 것을 스스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9:5)

엘리야가 살던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주님께서 다시 지상에 비를 내리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많은 과부들 중 단 한 명의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있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10-16 참조)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황폐의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안전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앙의 권세와 신권의 권능을 제외한 그 어느 것도, 반드시 닥칠 핵무기에 의한 대량 학살로부터 개인이나 회중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의 음성을 높여 이야기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순종과 순응과 의의 길이 아닌 어떤 길에도 안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채찍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스쳐갈 것이요, 그 소문이 모든 백성을 괴롭히리니, 참으로 주께서 오시기 전에는 멈추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시온이 내가 명한 일을 무엇이든지 다 행하여 지키면 이를 모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명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지

키지 아니하면 나는 저희 행위에 따라 혹심한 환난과 전염병과 재앙과 겹과 보복과 맹렬한 불길을 시온에 보내리라”(교리와 성약 97:23, 25-26)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지상에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재난의 날에 우리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허락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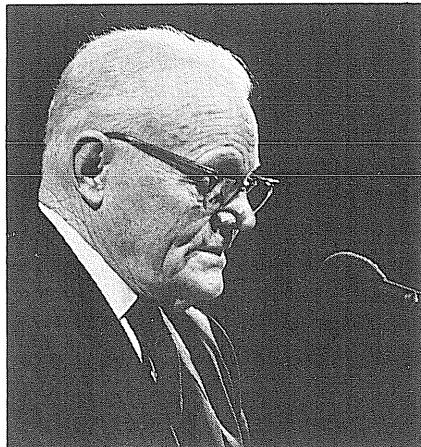
악의 권세를 멀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저희들 앞에 길을 여사 개인으로서나 교회로서나 해의 영광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언제까지나 저희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팔을 펼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와 구원에 저희들도 참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나이다. 아멘. *



근본적인 복지 사업

매리온 지 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주님께서는, 커다란 보상이 따르는 금식 헌물을 바침에 있어, 우리가 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모임에서 내가 말씀드릴 것은 교회 복지의 근본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맥콩키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근본 원칙을 더 잘 이해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교회 복지의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이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맨처음 조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 3 : 19)

우리가 현대 세계의 복지 제도를 창작할 때, 정부가 우리에게 생활 필수품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태도를 버립시다. 이 방법을 전적으로 채택하게 된 다

면, 어떤 사회든지 자유로운 사회에서 노예의 사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노동을 중시하는 복음을 응호합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립합시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집단적인 구원이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엡 2 : 8, 9)라는 바울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여 일이 필요없다는 그릇된 결론을 내립니다.

진리는 니파이의 다음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하히 노력 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 (니파이이서 25 : 23)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거하려면 최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를 진주문 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정부의 조력이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그 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치고 정작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복지의 유품가는 행동 원리는, 가능한 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호 의지하는 한 가족으로서 함께 결속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라는 거룩한 명령을 받고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를 봉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자립이 불가능하고, 가족의 보살핌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복지의 세번째 원리에 따라서 보살펴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교회 회원들이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성도들이 이 원리를 준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어 익히 알고 계신 자신을 돌보는 문제에 관하여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

대보다도 지금 여러분은 이 자원 고갈의 시대에 대처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준비의 필요성은 어느 때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때가 너무 빨리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내 생전에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날은 조만간에 올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몇년 전만큼 이 문제에 관하여 더욱 많은 강조를 받지 않는다면 할지라도, 자립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강도를 낮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들이 이 산맥의 계곡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온 근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추수기에 다음과 추수기까지 지탱할 수 있는 양식을 비롯 하라는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곧 그렇게 하십시오. 궁핍한 시기에 당황치 않도록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십시오.

일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년치 양식을 우리는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다면 하루만에 다 없어 질 텐데요. 글쎄요, 우리의 비축으로 지탱할 수 있는 기간에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한다면 그는 반드시 우리를 둘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명을 받들어 애굽땅을 떠난 것을 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 왔습니다. 그들은 애굽 군대의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애굽인의 추격을 받고 무척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때가 이르자 주님은 모세에게 간단하게 “지팡이를 들고...”(출 14: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행했고 홍해는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

엘 백성 중 한 명도 잊지 않고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주님의 명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처럼 보호를 받아 구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고 그를 신뢰합시다. 그는 우리를 돌볼 수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처를 취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것 들 중의 하나는 금식 헌물을 바칠 때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대로 행할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효력은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아량에 달려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를 돌아보면 때 그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이니까?”(이사야 58:3) 주님은 이런 불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속이고 굽은 베와 재를 뿌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이사야 58:5)



우리가 행하는 것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우리는 금식할 때 골치가 아파지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끓어 죽을 것 같은 시늉을 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겠느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리하면 네 빚이 아침 같이 비출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빚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이사야 58 : 6-10)

이 비길 데 없는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한 사람을 위해 후하게 현금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축복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맨 동산 같았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이사야 58 : 11)

물론경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 애울레크의 가르침을 보면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온정의 과다에 따라 기도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예언자는 앤마의 선교 사업 동반자였습니다. 물론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선교 중의 하나는 앤마서 34장에 나오는 애울레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하여 먼저 설명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하시며, 너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노라.”(엘마서 34 : 17)

그는 기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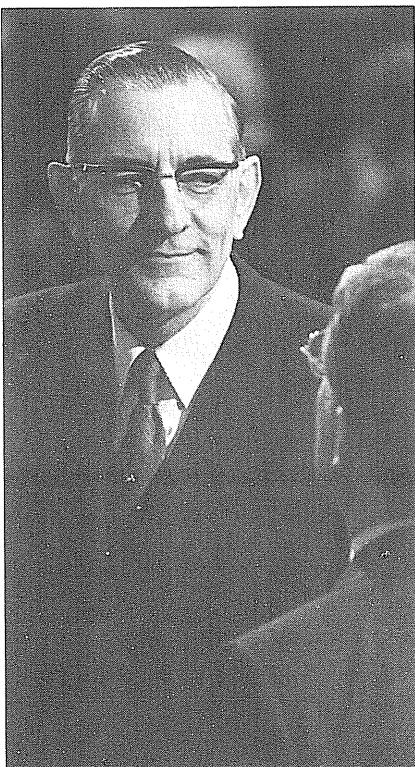
“너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낮 밤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의 원수, 악마를 막아 주시도록 간구하라”

“수학이 풍성하도록 너희 들에 있는 곡식을 위해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너희 골방이나, 온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소리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엘마서 34 : 21, 23-24, 26-27)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앤율레크는 또 다른 자질을 첨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까지 말한 대로 기도하는 것으로 죽하다 생자지 말라. 너희가 이 모두를 행한 뒤에도, 궁핍하고 혈벗은 자를 위하여,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 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이라도 가졌을 때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코 너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올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된 것이라.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믿음을 거역하는 위선자 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자애롭기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제하는 자가 쓸모가 없어 털어 내버리는 찌꺼기와 같으리니, 뜻사람들의 발 아래 밟히게 되리라.”(엘마서 34 : 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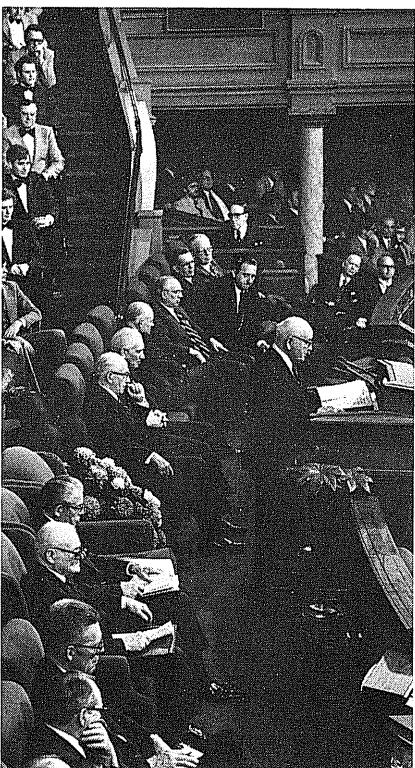
불쌍한 사람에게 후한 인정을 베풀 때 이런 엄청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구약과 둘론경에 나오는 말씀 외에도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이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4편에 있는 해당 구절을 읽기 전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해 지구가 인간의 자의대로 소유되거나 관리되어서는 안될 성질의 것이며 지구는 주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자와 증서와 땅과 기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인간이 받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으며, 그 축복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께 책임을 지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도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원

하는 방법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가지지 못할 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현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도 불쌍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현금하기를 꺼린다면 그가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인지를 계시를 통해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산 자를 위하여 만들고 마련하여 준 세상의 축복을 관할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모든 사람에게 지우게 함은 필요한 일임이니라.

“나 주는 하늘을 펼치고 땅 곧 나의 손의 창조물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있는 만물은 나의 것이니라.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만물이 나의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니, 보라,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로 선포한 방법이니라.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으나니,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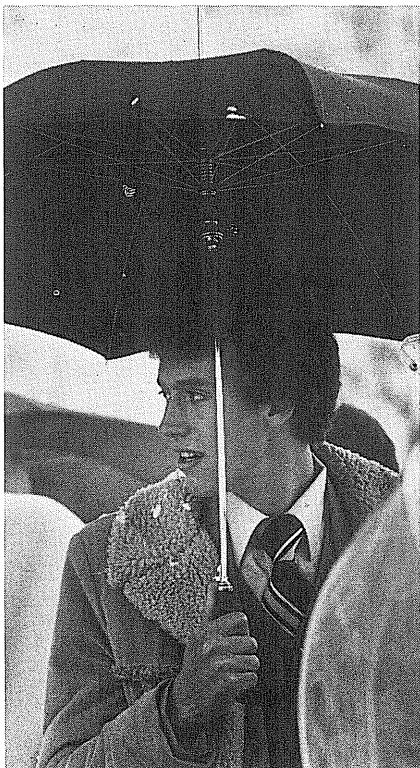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자기의 뜻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교리와 성약 104 : 13-18)

이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 경륜의 시대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일이며, 이 일을 외면하고도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허황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받습니다.

나는 이 시간 교회 복지의 원리와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신권 지도자들의 책임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행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침 신권 평의회에 관한 몇 가지 간단한 개념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것은 없으며 단지 그 적용범위가 스테이크 단위 이상과 본부 단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나는 몇년 동안 모든 교회를 여행할 특권과 지역 복지 모임에서 여러 스테이크부장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지역과 복합 지역 단위에



집행 관리자의 역할

우리는 총관리 집행 관리자 되시는 여러분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복지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강조되도록, 정책에 영감을 주고 계획하고 통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복지 사업의 원리와 실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담당하는 지역의 대표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관리 감독단과 복지 사업과의 지원을 끌어들임으로써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 설명한 대로 모든 평의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서 만나고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복지 부문에서 행해 온 것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복지 사업을 해 왔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지역, 복합 지역 및 지구 평의회가 복지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에 관한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영적인 부문 혹은 실생활적인 부문으로 대관장단에 의해 규정된 반면, 복지 사업은 이 두 부문 중 어느 곳에도 독자적으로 속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였다는 것을 먼저 설명함으로써 말씀을 시작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관리 감독단, 본부 상호부조 회 회장 및 복지 사업 관리 책임자로 구성되는 교회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입니다. 복지 사업 프로그램은 관리 감독단의 지시 아래 실질적인 수단을 통해 실시되기 때문에, 복지 사업과는 관리 감독단을 통하여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복지 사업은 영적이고도 물질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는 복지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와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집행 관리자가 관리하는 모든 지역에서 크게 향상된 복지 사업이 성취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의 역할

지역 대표 여러분은 복지 사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추진력을 제공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선, 특히 여러분의 집행 관리자를 통하여 교회 복지 사업의 원리를 가르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운영할 책임은 없지만, 지역 및 복합 지역 복

지 사업 임원과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최초의 공식적인 지역 평의회 모임을 소집함과 동시에 자기 지역에서 복지 사업 위원장이 됩니다. 복지 사업 지역 대리인과 함께 여러분은 집행 관리자가 지시하는데로 복지 사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봉사를 함으로써 위대한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복지 사업에서 여러분이 점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여하에 따라 책임진 스테이크 단위에서 복지 사업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은 자기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복지 사업의 근본 원리를 가르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주된 책임을 맡았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에서 소개한 새로운 조직 체계를 통하여 복지 사업은 크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감독들이 다가오는 여러 달 여러 해 동안에 이 사업에 대폭적인 성장을 가져오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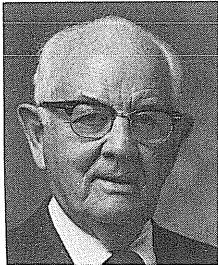
우리 모두가 교회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온 정열을 다 해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복지 사업의 원리를 적용함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이러한 평의회는 “근본적으로 스테이크, 와드, 특히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의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협체 자매 여러분, 대회 동안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
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영을 느끼고 또한 여러분의 영과 힘을 느끼며 여러분의 업적과 성취를 알 수 있는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교회의 큰 발전을 지켜 보아 왔습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를 계속 축복해 주시며, 이 발전은 앞으로 가속화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모임에서 총판리 역원들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복합 지역이나 지역 단위로 신권 평의회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은 첫째로 이러한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변화와 발전에 대처하도록 계시로

써 교회의 신권 조직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중요한 단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사 중에서 오늘의 모임에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십이사도가 모여 회의를 열고 모두가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곧 헤어질 때가 임박했고 그런 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요 선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에게 부탁하여 그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가 헤어져 있을 때 따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 받을 수 있게 계시를 염도록…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고, 역경에 처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흑암의 권세에 에워싸여 있으나 우리의 희망을 밝게 해줄 위대한 계시를 염도록 하였다.”(교회 정사, 2 : 209-10)

이 요청에 따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께 간구하여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에서 나는 몇 구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십이사도회는 순회 고등 평의원회(평의회)로서 교회의 대관장단의 지시 아래 하늘의 법도에 일치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직무를 집행하나니, 교회를 설립하며 모든 국민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를 정리할 자라. 첫째는 이 방인에게요, 다음으로는 유대인에게니라.

“칠십인은 십이사도회 곧 순회 고등 평의원회(평의회)의 지시 아래 교회를 설립하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를 정리함에 주의 이름으로 행 할 자니, 첫째는 이 방인에게요, 다음으로는 유대인에게니라.”(교리와 성약 107 : 33-34)

우리는 십이사도가 교회 대관장단의 지시 아래 주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집행하고, 칠십인은 십이사도의 지시아래 자기의 직책에 따른 임무를 행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계시에는 성역의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

대표와 다른 역원들을 위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십이사도회나 칠십인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회의 다른 역원에게는 모든 나라를 순회할 책임은 없느니라. 그러나 교회에서 높고 책임이 중한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모든 나라를 순회하라.” (교리와 성약 107 : 98)

주님의 교회의 신권 관리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관리) 감독단이 수행해야 할 모든 일을 처리하는”(교성 82 : 12) 방법과 왕국의 세상적인 사업을 성취해야 할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 다시 나는 교리와 성약 109편의 계시 중에서 다음 구절을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의 직분은 속세에 관한 일을 모두 집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웰기세택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을 갖게 되므로 속세에 관한 일을 집행하도록 임명될 수 있느니라.

“또 이 대제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판사가 되며 교회의 업무를 수행하며...”(교리와 성약 107 : 68, 71-72)

우리의 지난 수년간 이 계시에 나타나 있는 지시가 더욱 완전하게 적용되어 왔음을 지켜 보았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나라에서 교회를 건설하는 데 계시된 지시를 적용할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미루어 볼 때 왕국의 일을 처리하는 이와 같은 방법은 미래에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읍니다.

왕국이 이와 같이 기능을 다함에 따라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한 훌륭한 형제님들은 교회를 두루 다니며 필요에 따라 일을 정리할 수 있으나 과거에 행하였던 것과 같이 프로그램과 각파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지 않을 수 있읍니다. 지금은 교회의 각 파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일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속한 총판리 역원이 수

행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우리가 단합하여 과거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열의와 능력을 다해 일하는 관리 감독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지역 및 복합 지역 평의회를 조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스테이크, 와드, 특히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의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훌륭한 스테이크 부장님 여러분, 우리는 이 조치를 취하는 이유의 하나가 여러분의 어깨의 짐의 일부를 덜어 드리기 위한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책임의 대부분이 지역 대표에게 이양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테이크의 일에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읍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복지 사업 등 교회 활동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스테이크 부장의 임무와 특권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스테이크 부장의 일에 관하여 처음으로 감명을 받은 것은 나의 부친 앤드류 킴볼을 관찰했을 때였읍니다. 부친은 1898년부터 1924년까지 26년 6개월간 시온의 세인트 조셉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셨읍니다. 이 스테이크의 명칭은 순교한 예언자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족은 매우 겸소하게 생활하였지만, 부친은 감독에게 아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가르칠 방법을 발견하신 것 같았으며, 또한 많은 억눌린 자를 직접 돋기 위하여 마음 속에 그 방법을 간직하고 계셨읍니다. 나는 나의 부친이 자기 스테이크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성역을 베풀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성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헬러 계곡의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그에게 구할 것이라”고 약속했읍니다. 그 당시 나는 그의 모범의 훌륭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가 세워 놓으신 표준은 스테이크 부장에 알맞는 훌륭한 것이었읍니다.

나의 부친은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모범을 보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식량을 재배하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채소밭, 다시 말해서 먹을 것도 재배하고 향기도 나는 채소밭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채소밭에 물을 주기 위해 펌프를 이용하여 손으로 물을 뿐 올리곤 했으며 젖소의 젖을 짜며 유실수의 가지를 치며 울타리를 수리하고 그 밖의 일을 하는 것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내게는 두분의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죄다 쉬운 일을 맡고 힘든 일만 내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로 인해 나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역시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나는 세인트 조셉 스테이크로부터 분리되어 1938년에 조직된 마운틴 그레이엄 스테이크의 초대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이 되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기쁨은 물론 슬픈 일도 경험했습니다.

나는 1941년 9월의 홍수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대회가 열리던 주말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스테이크 대회 다음날에 헐려강이 범람하여 애리조나주 덩컨과 그 주변을 훨씬쳤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절박한 필요 사항에 관해 제 1 보좌였던 버넌 머그래스 형제님과 상의한 후 여러 스테이크가 상호 활용하도록 새퍼드에 마련한 복지 창고에서 자동차에 물품을 실고 덩컨까지 64킬로미터를 운전해 갔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을 처리한 후 버튼까지 13킬로미터를 걸어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자동차가 지나가기에는 위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가옥과 농토가 황폐하게 된 것을 보았으며 내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

지만 그다음 몇 주 동안 아마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가장 가슴이 뿌듯한 성취감을 갖게 해주었다고 생각되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고등 평의회와 와드 감독단을 통해서 복구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하였습니다. 복지 일용품과 지역의 노동으로 우리는 피해 지역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전 지역으로부터 성도들이 놀랄 만큼 많이 기부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 본부 복지 위원회에 요청할 필요가 없었음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역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에 내가 성도들에게 자립하고 빚을 지지 않도록 하라고 열심히 권고하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내가 자리를 잡았을 때에도 대불경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시에 그것을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지도 우린 스테이크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는 일, 자립심, 사랑, 봉사, 협력 그리고 청지기 직분 등 기본 원리를 말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쌓은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1936년에 복지 사업이 다시 강조된 이래 교회가 이룩한 발전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쌓았고 그 당시 성도들의 필요 사항을 관찰하였으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만일 내가 지금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한다면 오늘날 복지 사업으로 행하고 싶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프로그램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경전과 지침서와 복지에 관한 자료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나는 복지 사업이란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지 사업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겨우한 생활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모든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둘째, 절박한 필요 사항을 가진 자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며 세째, 심각하거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가진 자들을 위한 회복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1940년대 초기에 스테이크 부장으로 대회에 참석하여 복지 사업의 이러한 원리에 대한 클라크 부대관장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참된 것입니다.

내가 스테이크 복지 사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또한 우리 지역 복지 사업 평의회의 활동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복지 사업 활동 중에 어떤 것은 지역이나 복합 지역 단위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설을 나의 스테이크 내에 두는 것이 편리할지라도 이러한 시설을 다른 스테이크에 두기로 정하는 지역 평의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자신의 생활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배웁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나의 생활에서, 나의 가정에서 복음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교훈을 실제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채소밭을 마련해 두고, 가족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나의 교육의 분야를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가족의 일년 분용품을 보충하며, 우리 재산을 손질하고 그 밖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나의 부친이 지역의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지역 사회를 위해 보여 주신 다른 본보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가정과 마당을 청결하고 말쑥하게 정돈해 두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은 반드시 그렇게 행해져야 했습니다. 한번은 세퍼드에 살면 연로한 서부인이 나에게 찾아와

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사도의 부름을 받고 솔트레이크로 가기로 된 때였습니다. 스페서 형제님, 형제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모임에 참석하려 갈 때면 형제님의 집 앞을 지나곤 했습니다. 집이 청결하게 되어 있으면 나는 그때 회의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이 청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복지 활동을 위해 나의 재물을 바치는 것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금식 혼금을 아낌없이 내며 정원회 회원으로서 복지 사업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둘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배워서 나의 와드와 스테이크 역원에게 복지 사업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교육에는 그들에게 복음의 원리, 의무 그리고 구체적인 임무를 가르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나의 보좌들과 함께 나는 감독들에게 경전에 기록된 대조 “가난한 자를 찾아 내며 부유한 자와 교만한 자를 낚춤으로써 저들의 부족량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교성 84 : 112)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경전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들에게 금식의 법, 창고의 활용, 개인의 필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 도움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행해야 할 봉사와 작업의 종류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가진 자와 상담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독이 궁핍한 자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도록 지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스테이크 산하의 와드 자매들에게 감독을 돋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고 방법 등과 같은 일에 관해 훈련시키도록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원회 지도자에게 뜻깊은 가정 복음 교육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일 그리고 중대한 문제를 가진 형제를 돋는 것에 관해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셋째, 나는 나의 스테이크가 할 수 있는 최

선을 다해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참된 축복은 행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천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모임에서 대회 말씀을 듣고 난 후 아마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 좌우명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계획을 갖고 실천하라!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가진 후에는 다시 말해서 전 지역을 위한 계획을 가진 후에는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겨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충족시켜 주어야 할 필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데저켓 산업을 위해 의류와 가구 등을 수집하는 일, 일용품 생산 및 정원회를 통한 직업 알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금식 현물을 수집하고 레이맨인 형제와 자매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줄 가정을 찾으며, 자기 자신을 바치고, 서로 돋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이 위대한 계획은 주는 자와 받은 자에게 모두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는 “너희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헌납할 때에는 내게 헌납하는 것이니라”(교성 42:38)는 말을 알아야 하고 받는 자는 주님이 “만물이 나의 것임이니 나의 성도를 부양하리라”는 그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성 104: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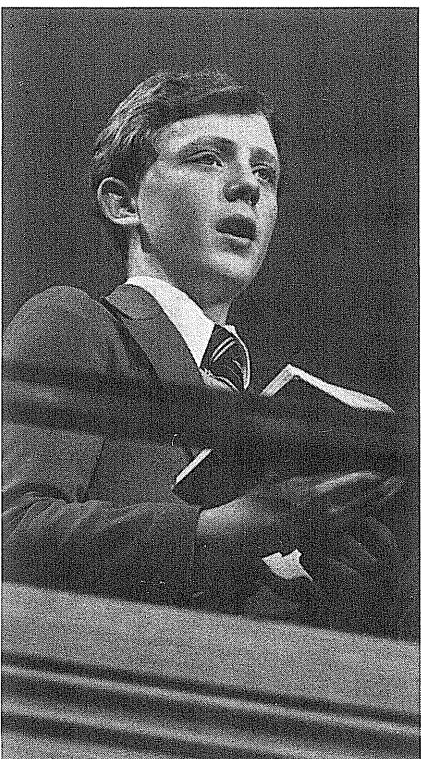
교회는 항상 주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나는 1907년에 중국에 있었던 극심한 기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봅니다. 존 알 원더 부대관장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밀가루 20톤을 보낼 결의를 대회에 제기하였습니다. 비 에이춰 로버츠 형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결의를 찬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중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재난이 닥치든지 우리의 동정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또한 이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될 이 운동이 자선과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물품을 수집하는 우리의 방법이 지혜로움을 증명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필요한 때 인

간의 자녀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방편이 되도록 자선 기금을 중단하지 않고 축적하고 있는 제도가 지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같은 준비를 갖추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잘 대변해 줍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원더 부대관장의 결의에 찬성합니다.” (대회 보고, 1907년 4월, 59페이지)

이 결의는 회중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고 채택되었습니다.

나는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에 꼭 물 창고를 더 많이 건축할 것을 승인하면서 그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 지도자에게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한 저들의 임무를 상기시키면서 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된 축복은 행하는데 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 발전을 생각할 때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특정한 청지기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건축하고, 항상시키며, 제 기능을 다하고 절음의 폭을 넓힐 것을 요구하겠지만 나는 여러분의 훌륭한 봉사를 인정하며 공적으로 그려 한 봉사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디언 학생 배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든 분에게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인디언 부모되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기 자녀로 하여금 가정을 떠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희생을 하고 있음을 암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키게 될 것인가를 암니다. 자신의 생활의 일부를 할애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나누어 주며 양육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러한 레이맨인 청소년들을 부양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이 같은 사랑과 비이기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을 나타내 보일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많은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암니다. 양육을 맡고 있는 가족은 물론 인디언 가족도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유익을 얻고 있읍니다. 인디언 학생 배치 프로그램은 주님에게서 영감을 받아 마련된 것 이었읍니다. 우리는 많은 레이맨인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지켜 보았읍니다. 대부분의 그들은 자기 지역 사회와 세상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읍니다.

우리는 감독들에게 이 중요하고 공식적인 교회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인디언 학생 배치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될 레이맨인 청소년을 찾아내어 그들이 "장미와 같이 피어"(사 35:1 참조) 오르도록 도와 주십시오. 스테이크 부장되시는 여러분도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감독들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지 농장을 효과있게 경제적으로 안전히 운영하면서 궁지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농장을 청결하게 정돈하고 손질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복지 농장은 스테이크 부장이 청지기 직분의 원리를 가르치는 데 적절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많은 농장에 수반되는 제한된 요소는 농장 위원회를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위임하며, 정규적으로 업무 보고에 관한 관리 접견을 갖고 있는 스테이크 부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복지 사업의 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이득이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읍니다. 우리가 복지 농장을 통해 생산한 것으로 주님을 섭길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새로운 창고, 통조림 공장 그리고 베저렛 산업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보고를 받아서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모두 많은 희생을 이룸으로써 행해지는 것임을 암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힘을 갖게 될 때 이러한 건축 계획은 이 일을 행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이 승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창고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창고를 통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경전의 말씀은 주님이 교회의 초대 관리 감독에게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거듭 말하노니, 감독은 이 교회를 위하여 창고 하나를 지정하여 백성의 부족량을

충당하고 남은 것은 돈으로나 음식물로나 다
이곳에 보관시켜 감독의 손으로 이를 관리
하게 할지어다...

“이같이 나는 나의 율법에 따라 이 백성
가운데 체계를 세울 특권을 이 백성에게 부
여하노라...

“보라, 이것은 나의 종 패트리지에게 예
로 주는 것이니, 다른 곳에 있는 모든 지부
에서도 이를 따를지어다.”(교리와 성약 51 :
13, 15, 18)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오늘날 그의 성스
러운 방법에 따르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브라운 감독님은 사정에 따라 “모든 교회에
서...이 예”를 따를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이같은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
리의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일이나 어떤 다른 일
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
음을 다시 상기시켜 드림으로써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읍니다.

이같이 우리는 주

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교리와 성약 105편
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명령에 따를 책임
이 있읍니다.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
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일 수 없느
니라.

“나의 백성은 순종을 배우기 까지 필요하면
저들이 겪는 고난으로 정계받아야만 하느
니라...

“...그러므로 그 율법에 복종하자 말하게

하리라.”(교리와 성약 105 : 5-6, 32)

우리는 이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
게 현재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심심
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이 사업이
곧 그의 사업임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 우
리에게 영광과 판단력을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대회 말씀과 교회 교과 과정과의 상호 관계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모나 교사나 회원을 위해 이 도표에는 1979년 연차 대회 말씀과 성인 및 청소년 교과 과정의 상호관계가 나와 있다. 대부분의 공과는 말일의 예언자들의 중요한 가르침을 참조함으로써 보다 알찬 공과가 될 수 있다.

1980년도 멘기세덱 신권반

과 총판리 역원

- | | |
|----|-----------------------------|
| 1 | 하트만 페터 이세 |
| 4 | 하워드 더블류 헌터 |
| 5 | 엔 엘든 태너(신권회) |
| 7 | 로버트 더 헤일즈 |
| 9 | 스펜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후 모임) |
| 11 | 디어도어 엘 버튼 |
| 12 | 스펜서 더블류 킴볼(신권회), 레이비드 비 헤이트 |
| 14 | 브르소 알 맥콩키 |
| 16 |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후 모임) |
| 19 | 지 호머 더럼 |
| 20 | 매리온 지 롬니(토요일 오전 모임) |
| 24 | 로렌 시 먼 |
| 26 | 고든 비 헝클리 |
| 27 | 스펜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전 모임) |
| 28 | 매리온 더 행스 |
| 30 | 스펜서 더블류 킴볼(복지 모임) |

1980년도 복음 교리반

과 총판리 역원

- | | |
|----|------------------------------------|
| 23 | 마크 이 피터슨 |
| 24 | 고든 비 헝클리 |
| 25 | 매리온 지 롬니(복지 모임) |
| 26 | 토마스 에스 몬슨, 레이비드 비 헤이트 |
| 27 | 매리온 더 행스 |
| 28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로렌 시 먼 |
| 31 |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전 모임) |
| 32 | 스펜서 더블류 킴볼(복지 모임), 매리온 지 롬니(복지 모임) |
| 33 | 엔 엘든 태너(신권회), 스펜서 더블류 킴볼(신권회) |
| 34 | 브르소 알 맥콩키 |
| 35 | 지 호머 더럼 |
| 36 | 엔 엘든 태너(신권회), 매리온 지 롬니(신권회) |
| 37 | 로버트 더 헤일즈 |
| 38 | 로이든 지 레릭 |
| 39 | 제임스 이 파우스트, 폴 에이치 먼 |
| 40 | 에즈라 태프트 벤슨(복지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

1980년 가정의 밤 교재

과 총판리 역원

- | | |
|----|----------------------------------|
| 19 | 스펜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전 모임), 디어도어 엘 버튼 |
| 20 | 토마스 에스 몬슨 |
| 21 | 매리온 지 롬니(신권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
| 22 | 마빈 제이 애쉬튼 |
| 23 | 브르소 알 맥콩키 |
| 25 | 프랭클린 더 리차즈 |

- 29 제임즈 엘 페리모어
 30 엘 톰 페리
 32 엔 엘든 태너(토요일 오전 모임)
 34 제임즈 이 파우스트, 마빈 제이
 애쉬튼
 25 브루스 알 맥콩키
 38 로렌 시 먼

주일학교 제14반

과 총관리 역원

- 34 매리온 지 룸니(신권회)
 31 제임즈 엘 페리모어
 32 토마스 에스 몬슨
 34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후
모임)
 35 제임즈 이 파우스트, 폴 에이치 먼
 36 프랭클린 디 리차즈
 37 디어도어 엘 버튼
 39 지 호머 더럼
 40 프랭클린 디 리차즈
 42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모임), 하워드 더블류 헌터, 마
빈 제이 애쉬튼

주일학교 제16반 및

제17반

주일학교 제16반 및 제17반, “총관리 역원
을 따르라”의 목표는 교회의 청소년이 저
들의 생활에서 총관리 역원의 권고를 받아
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 교재에 마
련되어 있는 공과가 있고, 교사가 총관리 역
원의 말씀과 기사를 활용하여 가르쳐야 할
공과가 있다. 교사는 적절한 경우 카세트 테
이프에 녹음된 대회 말씀을 교실에서 사용
할 수 있다. 다음 자료는 현재의 공과를 보
통해 주고 교사가 추가로 공과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16반

단원 과 총관리 역원

- | | | |
|---|----|--|
| 1 | 1 | 하워드 더블류 헌터 |
| 1 | 2 |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모임), 폴 에이치 먼 |
| 1 | 3 | 제임즈 이 파우스트 |
| 1 | 4 | 제임즈 엘 페리모어 |
| 2 | 1 | 스펜서 더블류 킴볼(신권회) |
| 2 | 2 | 스펜서 더블류 킴볼(신권회) |
| 2 | 8 | 스펜서 더블류 킴볼(신권회) |
| 3 | 1 | 브루스 알 맥콩키 |
| 3 | 2 |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모임), 하트만 톱터 이세, 매리온
더 행스 |
| 3 | 4 |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모임), 고든 비 힙클리 |
| 3 | 5 | 로렌 시 먼 |
| 3 | 7 |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모임) 엔 엘든 태너(신권회) |
| 3 | 12 | 보이드 케이 페커 |
| 3 | 13 | 토마스 에스 몬슨 |
| 3 | 15 | 폴 에이치 먼 |

제17반

과 총관리 역원

- | | |
|----|---|
| 2 | 제임즈 이 파우스트 |
| 3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로렌 시 먼 |
| 4 | 스펜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전
모임), 매리온 지 룸니(신권회) |
| 6 | 지 호머 더럼 |
| 7 | 제임즈 엘 페리모어 |
| 13 | 보이드 케이 페커 |
| 14 | 로버트 디 헤일즈 |
| 15 | 엘 톰 페리 |
| 16 | 프랭클린 디 리차즈 |
| 17 |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모임), 브루스 알 맥콩키 |

제16반 및 제17반 보충 공과 제목

1. “지금은 회생의 날이요”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후 모임)
2. “사랑의 필요성” 디어도어 엠 버튼
3. “왕족의 유산” 로이드 지 테릭
4. “진보의 장애물” 마빈 제이 애쉬튼
5. “참된 교회의 표적” 마크 이 피터슨
6.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매리온 지 롬니(일요일 오전 모임)
7. “행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엔 엘론 태너(토요일 오전 모임)

뉴 이라 기사

8. “축구에서 또는 인생에서” 조셉 비 워스린 1978년 11월호 4—6페이지
9. “그의 처지가 딱 하다” 존 에이치 그로버 그, 1978년 12월호, 6—7페이지
10. “네가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 매리온 지 롬니 1978년 12월호 47—50페이지
11. “명예롭게 돌아 오라” 로버트 디 헤일즈 1979년 1월호/2월호, 4—5페이지
12. “자매의 특권과 책임” 스페서 더 블류 킴벌, 1979년 1월호/2월호, 42—46페이지
13. “신앙의 권속” 엔 엘론 태너 1979년 3월호, 4—5페이지
14. “점성학에 대한 나의 연구” 제임즈 이 탈매지 1979년 3월호, 18페이지

15. “인간이 결코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1979년 4월호, 4—5페이지
16. “모든 다른 사람 보다 더 높음” 매리온 디 행스 1979년 4월호, 6—9페이지

1980년도 상호부조회

과	방문 교사 메시지	영적인 생활	어머니 교육	사회 관계
8	제임즈 매리온 엠 디 페러모어 행스	매리온 디 페러모어 행스		데이비 드 비 헤이트
9	지 호퍼 더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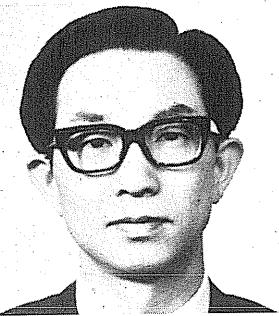
스펜서 더블류 킴벌 (토요일 오전 모임)

10. 엔 엘론 태너(신권회) 프랭클린 더 리차즈 (신권회)
11. 풀 에이던 제임즈 엔 패러모어 엔 엘론 태너(토요일 오전 모임) 디어도어 엠 버튼
12. 제임즈 이 파우스트

대회 기간에 열린 각 모임에 관한 카세트 테이프는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번역 출판부로부터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회소 도서실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여러 회사에서도 개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 내어놓는데, 일반적으로 대회 이후 2주일이 지나면 구입할 수 있다.

맡은 일에 충실하자

부산 선교부장 이호남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 이니라”(교성 130:21)라고 밀일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모든 회원과 지도자, 그리고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데가로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스테이크”라는 한 아기를 탄생시키게 되었읍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과 지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한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스테이크라는 한 아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산모로서 열심히 준비했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를 빙쳐들고,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를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읍니다.

이 어린아이를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성 38: 27 참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로 굳게 결합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읍니다.

둘째, 우리는 신천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회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지지의 표시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지도자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겠음을 약속하는 표시입니다.

세째,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청지기

의 직분을 100퍼센트 완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성 78:22)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이 어린아이를 양육시켜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주어진 책임을 미룰 때 이 어린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때 모든 보조 조직 및 프로그램은 각기 뜻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네째, 우리는 지난 연차 대회에서 킴볼 대관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모든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정직한 십일조를 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지혜의 말씀과 순결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가정의 밥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함을 표하는 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명대로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아기의 탄생을 모든 이웃과 친지들에게 알려서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오늘날 살아계신 예언자이신 킴볼 대관장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걸음의 폭을 넓히라”고 선교 사업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만이 향유해서는 되겠습니까?

“모든 회원은 선교사이다”라는 말씀을 생활에 옮길 때 우리는 이곳에 또 하나의 아니 수많은 스테이크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크 조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님을 인식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다섯가지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지도자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계명대로 충실히 생활하는 성도가 되고, 밀일에 회복된 이름답고 완전한 이 복음을 모든 이웃과 친지들에게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하나님 왕국에서의 승리를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생활하는 자만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혀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2:14)